ISSN 2733-564X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2022년 10월)

KAMFT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Kore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2022년 10월)

목 차

❒ 이혼 부부 관련 해외 연구동향
김준성 · 천성문 ····· 1

❒ 가족치료사의 '상담사로서의 자기'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전은숙 · 김혜진 ····· 17

❒ 한국 상담사의 이마고부부치료 적용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김숙경 · 정혜은 · 김신영 · 이주안 · 이지영 · 정은영 · 하영윤 ····· 43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부모 교육 연구동향 분석
: 최근 10년간 RISS에 등록된 등재(후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이경주 · 조영애 · 엄형준 ····· 75

❒ 내면아이치료 중심의 통합적 단기상담 질적 사례연구
: 불안을 주호소로 하는 애착외상 내담자를 중심으로
윤상용 ····· 89

❒ 가족상담사의 상담스트레스 및 대처방안과 성장에 관한 현상학 연구
최미용 · 이영주 · 김영은 · 김현주 ····· 111

❒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의 매개효과
: 상담센터(온라인)에 방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최윤진 · 윤영남 · 김민하 · 이재선 · 안종화 · 구경희 ····· 129

❒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김지수 · 박은아 ····· 147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1-15

이혼 부부 관련 해외 연구동향*

김 준 성** 천 성 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경대학교

본 연구는 해외 이혼 부부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후, 이혼 부부 연구의 주요 특징 및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 향후 이혼 부부 관련 연구 방향 및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8월까지 Web of Science(WOS)에서 이혼 부부 관련 연구물 중 총 11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계량서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로 첫째, 1993년 첫 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 초반까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는 Heuveline와 Timberlake(2004)의 동거와 가족 형성에 관한 연구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는 Paul Amato로 나타났다. 셋째, 이혼을 제외하고 Children이 가장 높은 빈도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용, 공동단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혼 부부 관련 연구물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계량서지 분석, 연구동향, 이혼, 이혼 부부, R

* 본 논문은 2021년 (사)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김준성,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천성문,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48513)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506호
Tel : 051-629-5905 / E-mail : smcheon@pknu.ac.kr

결혼을 시작하는 부부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며,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기대한다(강혜숙, 김영희, 2008). 하지만 현실은 다른 성장 환경과 성격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김은숙, 2001; 박영옥, 한상숙, 1987) 반복되는 갈등은 이혼으로 이어진다(박영신, 안귀옥, 2012; 유미순, 유가효, 2017).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의사소통, 역할 분담, 원가족의 문제, 폭력, 음주 등의 문제로 부부 갈등이 시작되며,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개선하지 못할 시 부부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생기거나 반대로 무관심 또는 외도 등으로 관계가 악화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김요완, 2007). 이혼은 한 개인으로서도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고 가정이 해체되면서 그를 둘러싼 모든 가족 구성원과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담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각 기관과 단체에서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에서도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전에 부부간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박효순, 한재희,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면서 최근 이혼남녀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김미라, 2021). 대표적인 예로 돌싱포맨, 우리 이혼했어요 및 돌싱글즈 등 이혼남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0). 평균수명 연장, 수입과 여가 증가 및 가족 형태의 변화 등 개인이나 가족 배경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도 함께 변화하고 있어 이혼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김영희, 정면숙, 2018). 또한, 이혼율 증가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박상윤(2022)은 단순히 법적인 이혼뿐만 아니라 동거, 사실혼, 커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영역과 그 의미가 확장되어가는 시기임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이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이혼 부부 연구 방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향 분석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혼 부부와 관련한 질적연구에서는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 과정, 이혼숙려기간, 재결합 등의 주제로 진행된 사례연구(변은주, 2017; 윤경자, 2015; 이현주, 엄명용, 2013; 최춘화, 배영윤, 문혜린, 박태영, 2021), 위기경험이나 이혼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유명숙, 서미아, 2018; 조양희, 오은화, 2022) 및 혼전 임신 부부의 이혼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김수지, 최지원, 2017) 등 주로 갈등 과정이나 이혼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양적연구에서는 치료 프로그램 연구(박성주, 박재황, 2011; 유계숙, 최성일, 2005; 정진오, 변상해, 2009),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관계연구(박영신, 안귀옥, 2012; 서영숙, 김경신, 2018; 우현주, 유계숙, 2013) 및 특정 대상(노년, 다문화 등)을 중심으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강신성, 임왕규, 2013; 김길현, 하규수, 2012; 이영설, 이원식, 2021) 등으로 대상별 변인에 관한 연구 또는 관계 개선이나 치료를 목표로 두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해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보다 포괄적이었는데, 이혼 부부뿐만 아니라 미망인과 이혼 여성에 대한 비교연구(Biblarz & Gottainer, 2000; Miller, Smerglia, & Gaudet, 1998), 혼전 동거와 그 이후 결혼 생활에 대한 연구(Sanchez et al,

2006)나 이혼 후 공동양육에 대한 연구(Hardesty, Khaw, Chung, & Martin, 2008)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사례 중심의 연구가 다수인 국내와 다르게 프로그램 연구나 관련 변인 연구 이외에도 이혼에 따른 세대 간 전달이나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단연구(Dronkers & Härkönen, 2008; Wolfinger, 1999)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내에서 이혼 부부 관련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동향 분석 연구를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부부 갈등, 가정불화 및 이혼 등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동향 연구(신정국, 2019)에서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검색된 논문의 수는 총 103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의 개선을 적용하고 효과분석을 한 연구는 28편뿐이며 효과분석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주장하였으며, 선정한 28편의 연구 중 1편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이혼 의도에 관한 연구 동향(이정하, 2022)에서는 총 27편의 연구 분석을 통해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부친밀감, 의사소통, 결혼 만족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 성 만족도, 부부 갈등,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고부갈등, 성격 특성 요인 등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신정국(201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최근 이혼율 급증이나 졸혼이라는 개념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반하여 연구 추이는 이전과 거의 비슷함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혼 위기 부부 대상 동향 연구(박상윤, 2022)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33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례연구 중심의 질적연구에 편향되어 있으며 연구 대상도 부부가 7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아내가 15%로 일부 나타났으며 남편의 관점에서의 연구물을 거의 없는 실정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법적인 이혼뿐만 아니라 동거, 사실혼, 커플 등 관점으로 대상 및 주제에 맞춰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혼에 대한 관점 변화 및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연구를 대상으로 이혼 부부 관련 동향 연구가 일부 있으나 분석에 사용된 연구의 수는 20~30편 사이로 적은 편이며 국외에 반해 그 대상이나 방법이 편향된 제한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대부분 지금까지 이혼과 관련된 동향 연구들은 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내용 분석을 통한 방향성을 분석하였기에 연구 분야에 대한 요약된 결과만 제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연구 흐름이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 제한점도 있다. 국내의 제한된 편수나 편향된 연구 방법 등을 고려해볼 때 해외의 이혼 부부 관련 연구물로 대상을 확장하여 동향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서지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이혼 부부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주제와 대상 그리고 제안할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계량서지 분석 방법은 제목, 초록, 키워드, 참고문헌 등과 같은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양적 분석 및 통계를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가별 연구 상호작용, 공동인용, 키워드 및 높은 인용 연구물 등을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기별이나 군집 별로 영향력 있는 논문을 인용이나 중심성 지수를 기반으로 제공하여 이혼 부부 관련 분야의 핵심 저자 및 연구물을 파악하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이혼 부부 관련 연구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해외 이혼 부부 관련 핵심 연구자 및 연구물은 어떠한가? 셋째, 해외 이혼 부부 관련 네트워크 행렬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2022년 8월 기준, Web of Science(WOS)에서 이혼 부부와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 'Divorced Couple'와 'Divorced family'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 총 544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중 연구물의 질 고려와 부부가족 관련 연구물로 한정하기 위하여 국제학술지인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SSCI)에 게재되어 있으며, 연구영역을 가족 연구(Family Studies)로 선택하여 재검색하였다. 끝으로 논문의 제목, 초록 또는 키워드에 'Divorced Couple'와 'Divorced family'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물 중 중복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19편의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자료의 상세서지정보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BibTex포맷으로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계량서지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R(ver 4.0.4)프로그램의 bliometrix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패키지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상세서지 정보연구를 위해 이탈리아 과학자 Massimo Aria가 2017년에 개발하였으며, 빅데이터 서지정보를 기반하여 시계열 및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강점이 있다(이봉우, 조헌국, 2020). 본 연구에서는 bliometrix 패키지를 활용하여 연도 및 국가별 연구 추이, 상위 인용 연구물 및 저자 및 공동인용, 키워드, 공통단어 등의 네트워크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도별 출판된 연구의 수를 살펴본 후, 국가별 연구 수(교신저자 기준) 및 상호작용 지표를 산출하였다. 상호작용 지표는 단일 국가 간 상호작용 생산(Single Country Production)과 다수 국가 간 상호작용 생산(Multiple Country Produ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약자로 하여 SCP와 MCP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상위 인용 연구물 및 저자는 전체 인용과 연간 인용 비율을 바탕으로 연도 간 직접인용 관계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서지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네트워크인 커플링, 공동인용, 공동 발생 및 공동 작업 등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먼저 네트워크 구조의 꼭짓점 수를 Size로 표현하며 전체 엣지 대비 현재 엣지의 비율이 Density이다. 또한, 노드 간 최단 경로의 길이는 Diameter이며, 정규성 정도 및 최단 거리의 평균은 각각 Degree Centralization와 Average path length를 의미하며(Aria & Cuccurullo, 2017), 시각화한 결과를 해석할 때는 노드의 크기는 발표된 연구의 수와 비례하고 노드 간의 거리는 연관성을 의미하며 노드의 색과 연결선의 굵기는 같은 집단에 포함된 항목 및 연결 강도에 비례하여 해석할 수 있다.

결 과

이혼 부부 관련 연구 추이

R(ver 4.0.4)의 bliometrix패키지를 활용하여 총 119편의 계량서지 분석을 통해 연구 시기, 학술지 분포 및 국가별 연구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시기를 살펴보면 1992년 첫 연구가 시작되어 90년대까지 45편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0부터 2010년까지 72편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2011년 이후부터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으며 19년도와 20년도에 각 1편씩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분포를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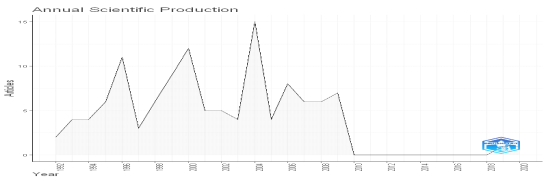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연구 빈도

펴보면 총 119편의 연구 중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가 46편(38.6%)으로 가장 많은 문헌을 게재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문헌을 게재한 학술지는 Journal of Family Issues로 28편(23.5%)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개 학술지의 연구 수는 전체 119편 중 101편(84.8%)은 그림1과 표1에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국가는 미국이 97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캐나다 6편, 네덜란드 4편, 스웨덴 2편 및 영국 2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어서 국가별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논문을 생산하는 지표인 SCP와 MC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국가별 전체 연구 수(Articles) 대비 SCP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단일 국가 내에서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MCP의 경우는 유일하게 네덜란드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된 논문들이 있으나, 그 외에는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표 1. 이혼 부부 관련 연구를 게재한 학술지 top5

순위	학술지	연구 수(%)
1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38.6)
2	Journal of Family Issues	28(23.5)
3	Family Relations	16(13.4)
4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5)
5	Journal of Divorce Remarriage	5(4.2)

표 2. 국가별 연구 빈도 top 5 (교신저자 기준)

순위	국가	논문 수	SCP	MCP
1	미국	97	97	0
2	캐나다	6	6	0
3	네덜란드	4	3	1
4	스웨덴	2	2	0
5	영국	2	2	0

이혼 부부 관련 인용 추이

이혼 부부 관련 상위 인용 연구물 및 저자에 대해 결과는 표3과 표4에 제시하였다. 먼저 인용 상위 연구는 Heuveline와 Timberlake(2004)의 연구로 가족형성에 있어 동거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7번의 인용이 이루어졌으며 연간 인용은 16.16번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Brown과 Booth(1996)의 연구는 동거와 결혼에 대한 관계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로 현재까지 총 303번의 인용이 이루어졌으며 연간 인용은 11.22번으로 나타났다. Kerig(1996)의 연구는 어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갈등 척도로 총 268번의 인용이 이루어졌으며 연간 인용은 9.93번으로 나타났다. 이어 Amato(2001)은 아동 및 메타분석 연구로 총 226번의 인용이 이루어졌으며 연간 인용은 10.27번으로 나타났다. Presser(2000)은 비정기적인 근무가 별거 또는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로 총 211건의 인용이 이루어졌으며 연간 인용은 9.17번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남성의 가사노동과 결혼 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Gupta, 1999),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족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Kaufman, 2000), 결혼의 종단적 과정의 이해(Bradbury, Karney, 2004), 가족구조와 자녀 성공에 있어 미망인과 이혼한 미혼모 가정의 비교연구

표 3. 인용 상위 연구 top 10

저자	논문명	Total Citations	TC per year
Heuveline, P., & Timberlake, J. M. (2004).	The role of cohabitation in family form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307	16.16
Brown, S. L., & Booth, A. (1996).	Cohabitation versus marriage: A comparison of relationship quality.	303	11.22
Kerig, P. K. (1996).	Assessing the link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he conflicts and problem-solving scales.	268	9.93
Amato, P. R.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 (1991) meta-analysis.	226	10.27
Presser, H. B. (2000).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marital instability.	211	9.17
Gupta, S. (1999).	The effects of transitions in marital status on men's performance of housework.	185	7.71
Kaufman, G. (2000).	Do gender role attitudes matter? Family formation and dissolution among traditional and egalitarian men and women.	166	7.22
Bradbury, T. N., & Karney, B. R. (2004).	Understanding and altering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riage.	137	7.21
Biblarz, T. J., & Gottainer, G. (2000).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success: A comparison of widowed and divorced single mother families.	127	5.52
Cooke, L. P. (2004).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and family outcomes in Germany.	113	5.95

표 4. 인용 상위 저자 top 10

순위	저자명	인용 수
1	Paul Amato	107
2	Judith Seltzer	63
3	Frank Furstenberg	56
4	Larry Bumpass	54
5	Sara McLanahan	48
6	E. Mavis Hetherington	42
7	Alan Booth	39
8	Arland Thornton	34
9	Andrew Cherlin	33
10	Wendy D. Manning	31

(Biblarz, Gottainer, 2000) 및 독일의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Cooke, 2004)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는 Paul Amato로 결혼생활의 질, 이혼 및 가족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졌으며 중국과 미국의 이혼 위험모델 비교연구, 유럽과 미국의 이혼 관련 유사점과 차이점 등 국가 간 연구를 비롯하여 남성, 여성 및 자녀 등 다양한 대상으로 이혼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저자는 가족 결혼과 동거 또는 이혼 및 비결혼 가정 등의 혈연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Judith Seltzer로 나타났다. 이어 세 번째로는 Frank Furstenberg로 주요 관심사는 사회 변화, 이혼, 재혼 및 세대 간 관계 등이다. 다음으로는 Larry Bumpass로 결혼과 동거의 안정성 비교, 동아시아와 서구의 가족 변화에 대해 관심사를 두고 있는 학자로 나타났으며, 이어 가족 및 아동 복지 연구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 Sara McLanahan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혼, 가족, 자녀발달의 영향에 관한 연구 진행한 바 있으며, 주요 연구로 이혼과 재혼에 대해 버지니아 중심의 종단연구를 진행한 Hetherington나, 결혼과 가족 및 생활 구조과정에 관해 연구한 Arland Thornton 및 가족 및 인구 통계센터 설립자이자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족 관계의 시대에 서로에 대한 의무나 정의를 주제로 조사하는 Wendy D. Manning 등이 인용 상위 저자로 나타났다.

이혼 부부 관련 연구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32개의 꼭짓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엣지 대비 현재 엣지의 비율은 0.05, 삼각 비율은 0.285, 정규성은 0.605, 노드 간 최단 거리 및 평균 거리는 4와 2.212 정도를 가졌다. 이를 공동인용, 키워드, 공통단어 등으로 시각화하였으며 노드의 크기는 발표된 연구의 수와 비례하고 노드 간의 거리는 연관성을 의미하며 노드의 색과 연결선의 굵기는 같은 집단에 포함된 항목 및 연결 강도에 비례하여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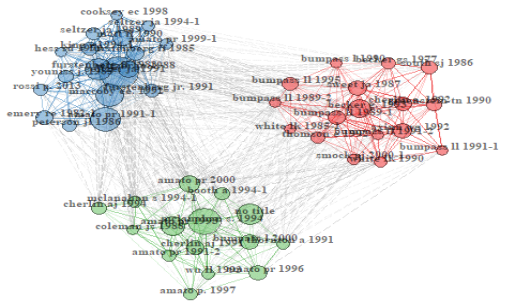

그림 2. 공동인용 네트워크 시각화

공동인용 네트워크를 결과는 그림2에 제시하였으며, 시각화한 자료에서는 상위인용 저자인 Amato, Seltze, Furstenberg, Bumpass 및 Hetherington를 중심으로 군집이 이루어지며, 특히 Amato의 경우 3개의 군집 모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면 Divorce가 3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Marriage가 13건, Cohabitation가 10건, Family Structure가 9건, Children과 Fathers가 각 7건, Gender와 Remarriage가 각 6건 및 Fatherhood와 Marital Quality가 각 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5에 제시하였다.

또한, 공통 키워드는 최근 계량서지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저자의 키워드뿐 아니라 인용된 논문의 제목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결과이다(조헌국, 이봉우, 2019). 공통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표6과 그림3에 제시하였다. 먼저 Divorce가 5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Children이 26건, Marriage가 22건, Family가 21건 및 Adjustment 19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표 5. 키워드 top 10

순위	키워드	키워드 수
1	Divorce	35
2	Marriage	13
3	Cohabitation	10
4	Family Structure	9
5	Children	7
6	Fathers	7
7	Gender	6
8	Remarriage	
9	Fatherhood	5
10	Marital Quality	

표 6. 공통 키워드 top10

순위	키워드	키워드 수
1	Divorce	57
2	Children	26
3	Marriage	22
4	Family	21
5	Adjustment	19
6	Cohabitation	13
7	Gender	
8	Support	
9	Women	12
10	Family Structure	9

Cohabitation, Gender, Support가 모두 13건으로 나타났으며 Women 12회 및 Family Structure가 9회로 나타났다. 공통단어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상위 키워드인 Divorce, Marriage, Family 및 Adjustment 등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상위 키워드인 Divorce는 Family, Gender, Perspective, Parents, Remarriage 및 Patterns 등 이혼, 재혼, 관점, 패턴 등의 단어와 군집을 이루었다. 다음으로 Children의 경우 Adjustment, Conflict, Stress 및 Intergeneration 등 자녀, 조정, 갈등, 스트레스 등의 단어와 군집을 이루었다. Marriage의 경우는 Satisfaction, Cohabitation 및 Stability 등 결혼, 동거, 만족, 안정성 등의 단어와 군집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Marital Discord의 경우는 상위 키워드에는 없지만, Fathers, Women 및 Separation 등 부부간 불화, 부-모, 별거 등의 단어와 군집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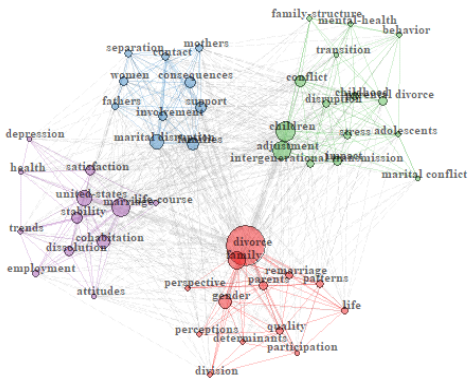

그림 3. 공통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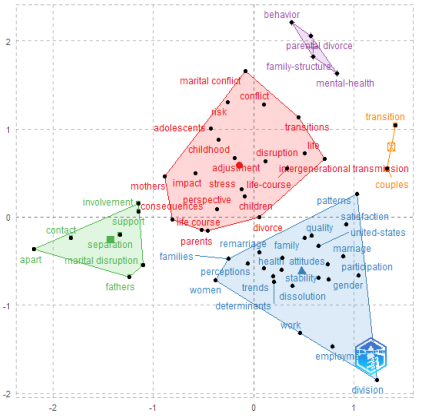

그림 4. 공통단어 네트워크 시각화

끝으로 제목, 키워드, 초록에서 추출된 텍스트를 이용하여 관계성 있는 공통단어를 네트워크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4에 제시하였으며 Adjustment, Separation, Attitudes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 군집화된 모습을 보였다. 먼저 Adjustment는 Divorce, Perspective, Disruption, Parents, Children, Adolescents 및 Stress 등 이혼, 조정, 관점, 혼란, 부모, 자녀, 청소년 및 스트레스 등이 연관성 있게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eparation은 Dissolution, Attitudes, Determinants, stability 및 perceptions 등으로 분리, 해산, 태도, 요인, 안정감, 자각 등이 연관성 있게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eparation의 경우는 Marital Disruption, Support, Contact 및 Fathers 등으로 별거, 파행, 연락, 지원, 아버지 등이 연관성 있게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이혼 부부 관련 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본 후, 국내 이혼 부부 관련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관련 연구의 핵심 연구자 및 연구를 자료화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8월 기준, Web of Science(WOS)에서 'Divorced Couple'와 'Divorced family' 키워드로 중복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19편의 연구물을 선정하여 계량서지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 이혼 부부 관련 연구 추이를 살펴본 결과 1992년 첫 연구가 시작되어 90년대까지 45편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0부터 2010년까지는 72편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2011년 이후부터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으며 19년도와 20년도에 각 1편씩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우리나라와 상반되는데 이혼 위기 부부 연구 추이가 06년부터 21년까지 매년 평균 2~3편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박상윤, 2022)와 달랐다. 처음 연구가 진행된 시기나 평균 연구 건수 등은 2010년까지는 해외가 국내에 비해 큰 차이가 있었으나 SSCI 기준으로는 발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SCI-EXPAMDED(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나 CPCI-SSH(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Social Science & Humanities)를 포함하여 재검색한 결과, 2010년 이후에도 평균 10건 이상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이혼 부부 관련 최근 연구를 찾을 때는 SSCI뿐만 아니라 색인을 확장하여 검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구영역을 가족 연구(Family Studies)로 한정하였으며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였기에 검색엔진의 오류, 저널의 학술지 등록 시 오류 및 색인표기 등의 문제로 검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 부부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게재한 학술지는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로 나타났으며 게재 상위 5개 학술지가 전체 연구의 8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연구 추이도 대다수의 연구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뒤로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외 이혼 부부 관련 상위 연구물 및 연구자를 살펴본 결과 이혼과 관련된 연구물의 경우 동거, 별거, 미망인과 미혼모 등 그 대상이 다양했으며 그 외에 사례나 변인을 이용한 관계 연구를 포함하여 척도나 메타분석 연구도 있었다. 이혼 연구 동향을 살펴본 Amato(2010)는 그간 이혼을 발생시키는 요인, 이혼으로 인한 자녀와 전 배우자의 정서 및 사회환경적 관계, 이혼 부부를 위한 개입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연구 방법적인 면에서도 국가 단위의 종단연구나 세대 간 전이에 따른 연구설계 등 발전하였으며 앞으로는 이혼이라는 단일 주제에서 나아가 가족구조의 전환과 같이 새로운 관점이 요구될 것을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OECE 및 UN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해 분석한 결과(Ortiz-Ospina, Roser, 2020)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상승하는 추세는 있었으나 정점을 찍은 후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결혼보다 동거를 먼저 시작하거나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추세 등 결혼이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화하고 있는 가족구조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보면 Amato(2010)의 주장처럼 이혼이라는 단일 주제에서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이혼 위기 부부 대상 동향 연구(박상윤, 2022)에서는 부부, 아내, 가족(부부+자녀) 등의 대상으로 이혼 위기, 신혼, 혼전임신, 외도 및 법원 상담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대상별

연구가 1~3편으로 연구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구 방법 영역에서 조금 상이한데 이혼 위기 부부 대상 동향 연구(박상윤, 2022)의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 3건, 질적연구 18건, 혼합연구 7건, 문헌 연구 5건으로 질적연구가 대다수이지만, 이혼 의도에 관한 연구 동향 연구(이정하, 2022)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 20편, 질적연구 7편으로 양적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자의 주제와 주요 목적에 따른 논문 수집 기준에 따라 상이 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외의 경우 다양한 주제와 함께 연구 방법적인 면에서도 종단연구나 세대 전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가족구조의 전환에 따라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주장됨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고려할 사항은 현재 이혼과 파생되는 유사 단어나 대상의 의미나 영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의 개념을 단순히 법적인 이혼뿐만 아니라 동거, 사실혼, 커플 등 관점으로 대상 및 주제에 맞춰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처럼 현재 이혼, 이혼 부부, 이혼가정, 이혼가족, 황혼이혼 등 그 용어가 다양하다. 예컨대, 현재일 기준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이혼가정의 경우 521건, 이혼가족의 경우 751건으로 검색결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도 남성, 여성, 남자, 여자, 자녀, 중년, 노인 및 황혼 등이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실제 대상이 혼용되거나 구분되지 않은 연구가 많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관련 연구를 찾거나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누적되는 연구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하고자 빅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으로 키워드나 공통단어 또는 연구 동향을 쉽게 파악할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의미나 내용이 혼용됨에 따라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거나 일부 연구가 누락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혼의 의미에 대해 확장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볼 때 체계적인 재정립의 시도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어 상위인용 저자의 경우, 대부분 결혼의 질, 이혼, 세대 전이, 가족 문제 및 종단연구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 학자들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정년 또는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용 횟수 증가를 고려해볼 때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관련 연구의 핵심 연구자의 연구뿐만 아니라 고찰 과정에서 연관되거나 파생된 연구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에 각 분야의 핵심 연구자에 대해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 이혼 부부 관련 네트워크 행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키워드의 경우 크게 4가지 군집으로 구분됐는데 가장 많은 키워드인 이혼을 중심으로 재혼, 관점, 패턴 등의 결혼 구조에 대한 군집, 자녀, 조정, 갈등, 스트레스 등의 이혼 후 자녀 양육이나 조정에 대한 군집, 결혼, 동거, 만족, 안전성 등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군집, 끝으로 불화, 아버지, 어머니, 별거 등의 부부 위기나 가정불화에 대한 군집 4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제목, 키워드 및 초록에서 추출한 텍스트에서 관성 있는 공통단어를 분석한 결과 이혼, 혼란, 스트레스 등의 단어가 연관 있었으며 분리, 태도, 요인 등의 단어와 별거, 파행, 연락, 지원 등의 단어가 각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 부부 관련 연구는 크게 결혼 구조, 자녀 양육이나 조정, 안정적인 결혼 생활, 부부 위기나 가정

불화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 이혼 위기 부부 대상 동향 연구(박상윤, 2022)에서는 시기, 연구 방법, 대상 및 주제에 대한 정보만 제시되어 있었다. 이혼 부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키워드나 네트워크 분석을 찾아볼 수는 없었으나 한국 가족치료 연구경향 분석(구경수, 최연실, 2020)에서 이혼이 가장 높은 빈도로 군집화된 그룹을 질적연구 방법론이라 명명하며 그 안에 학대, 강점, 관점, 용서 및 질적연구의 사례연구, 근거이론, 내러티브 탐구 등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특정한 연구 방법에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더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질적연구의 편중된 결과는 한국 가족치료연구의 단일사례 연구분석(배희분, 최연실, 2019)에서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발간된 사례연구 중 이혼의 키워드가 20회로 2번째로 높은 빈도의 키워드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이혼 부부와 관련하여 연구가 질적연구로 편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이혼 부부 관련 시기, 대상, 주제, 연구 방법을 포함하여 키워드나 네트워크 등의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해외 연구 동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데 실질적인 함의를 시사한다. 또한, 기존 동향 분석에서 제공하는 연구 추이나 빈도 등에서 나아가 관련 주제의 상위인용 저자나 연구물에 대한 정보 및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을 포함한 정보 및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 과정 및 국내외 연구의 비교 및 고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는 WOS 외에도 해외데이터 베이스인 Scopus, PubMed 등이 있으나 WOS의 데이터베이스 한 가지만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저명학술지인 SSCI급 논문으로 한정하여 검색하였기에 연구 결과가 해외 연구 동향 전체의 동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나 검색 설정을 이용하여 자료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 이혼 부부 관련 연구에 관한 동향 연구가 3편으로 적은 편이며, 분석 대상 논문도 20~30편 사이이기에 국내 실정을 일반화하여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제목, 키워드 및 초록의 서지정보에 기반하여 동향을 파악하며 직관적으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석 방법도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활용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세부적인 연구 내용이나 연구의 질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의의를 찾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강신성, 임왕규 (2013). 노년기 부부갈등이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178-192.

강혜숙, 김영희 (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135-156.

구경수, 최연실 (2020). 텍스트 마이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 가족치료 연구경향 분석 -한국 가족치료학회 학술지(1993년-2019년)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8**(1), 85-110.

김길현, 하규수 (2012).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256-271.

김미라 (2021). TV가 재현하는 이혼한 한부모의 여성의 모성 실천과 함의〈용감한 솔로육아-내가 키운다〉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3**(4), 164-192.

김수지, 최지원. (2017). 혼전 임신 부부의 이혼 과정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5**(4), 863-882.

김영희, 정면숙 (2018). 노년기 부부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9**(3), 171-183.

김은숙 (2001). **부부 갈등 및 부부관계 특성과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요완 (2007).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부부관계 와해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상윤 (2022). 이혼 위기 부부 대상 연구 동향 (2006~2021). **인문사회 21, 13**(2), 1621-1634.

박성주, 박재황 (2011).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47-73.

박영신, 안귀옥 (2012). 부부갈등, 부모역할, 자기효능감이 기혼남녀의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65-90.

박영옥, 한상순 (198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가정과 삶의 질 연구, 5**(1), 33-49.

박효순, 한재희 (2013). 이혼소송 중 자녀양육권을 주장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 **상담학연구, 14**(4), 2621-2639.

변은주 (2017). 이혼 위기를 극복한 부부의 사례연구-이마고 부부관계치료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119-140.

배희분, 최연실 (2019). 한국 가족치료연구에서의 단일사례 연구분석-『한국가족치료학회지』와 『가족과 가족치료』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7**(1), 181-211.

서영숙, 김경신 (2018). 여성의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3), 77-104.

신정국 (2019).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관한 연구동향 분석: 치료이론과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현주, 유계숙 (2013).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공동대처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51-71.

유계숙, 최성일 (2005). 이혼 숙려 부부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57-92.

유명숙, 서미아 (2018). 이혼위기를 극복한 중년기 남편의 삶에 대한내러티브 탐구. **가족과 가족치료, 26**(1), 133-155.

유미순, 유가효 (2017). 부부의 성격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시 부부를 중심으로. **과학논집, 43**, 15-42.

윤경자 (2015). 외도로 인한 이혼위기의 부부상담: 사례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1), 55-88.

이봉우, 조헌국 (2020). 상세 서지분석을 이용한 기후변화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10**(2), 99-109.

이영설, 이원식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간 감수성이 이혼 의사에 미치는 영향. **NGO 연구, 16**, 199-235.

이정하 (2022). 이혼의도에 관한 연구 동향: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5**(1), 62-82.

이현주, 엄명용 (2013).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종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0**, 157-187.

정진오, 변상해 (2009). 중년기 부부 갈등을 대처

하는 성경적 부부 치유 프로그램. **복음과 실천신학**, 19, 285-323.

조양희, 오은화 (2022). 재혼여성의 이혼위기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인문사회 21, 13**(2), 575-589.

조헌국, 이봉우 (2019). 상세 서지분석을 이용한 에너지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에너지기후변화교육, 9**(3), 241-251.

최춘화, 배영윤, 문혜린, 박태영 (2021). 이혼 부부의 재결합을 위한 통합적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1), 185-217.

통계청 (2020). **인구 총 조사**, 서울: 통계청.

Amato, P. R.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 (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355-370.

Amato, P. R. (2010). Research on divorce: Continuing trends and new develop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50-666.

Aria, M., & Cuccurullo, C. (2017). Bibliometrix: An R-tool for comprehensive science mapping analysis. *Journal of Informetrics, 11*(4), 959-975.

Biblarz, T. J., & Gottainer, G. (2000).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success: A comparison of widowed and divorced single 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533-548.

Bradbury, T. N., & Karney, B. R. (2004). Understanding and altering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62-879.

Brown, S. L., & Booth, A. (1996). Cohabitation versus marriage: A comparison of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668-678.

Cooke, L. P. (2004).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and family outcomes i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46-1259.

Dronkers, J., & Härkönen, J. (2008).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Results from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opulation Studies, 62*(3), 273-288.

Gupta, S. (1999). The effects of transitions in marital status on men's performance of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700-711.

Hardesty, J. L., Khaw, L., Chung, G. H., & Martin, J. M. (2008). Coparenting relationships after divorce: Variations by type of marital violence and fathers' role differentiation. *Family Relations, 57*(4), 479-491.

Heuveline, P., & Timberlake, J. M. (2004). The role of cohabitation in family form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14-1230.

Kaufman, G. (2000). Do gender role attitudes matter? Family formation and dissolution among traditional and egalitarian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21*(1), 128-144.

Kerig, P. K. (1996). Assessing the link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he conflicts and problem-solving sca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4), 454-473.

Miller, N. B., Smerglia, V. L., Gaudet, D. S., & Kitson, G. C. (1998). Stressful life ev

ents, social support, and the distress of widowed and divorced women: A count eractive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19*(2), 181-203.

Ortiz-Ospina, E., & Roser, M. (2020). *Marriages and divorces*. Published online at Our WorldInData.org. https://ourworldindata.org/marriages-and-divorces.

Presser, H. B. (2000).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93-110.

Sanchez, J. J., Phillips, C., Børsting, C., Balogh, K., Bogus, M., Fondevila, M., ... & Morling, N. (2006). A multiplex assay with 52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for human identification. *Electrophoresis, 27*(9), 1713-1724.

Wolfinger, R. D. (1999, April). Fitting nonlinear mixed models with the new NLMIXED procedure. *In Proceedings of the 24th Annual SAS Users Group International Conference (SUGI 24)* (pp. 278-284).

원 고 접 수 일 : 2022년 09월 21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2년 10월 08일
게 재 확 정 일 : 2022년 10월 22일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1-15

Bibliometric Informatio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Overseas Divorced Couples

Kim, Jun-Seong Cheon, Seong-Mo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ukye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divorced couples in Korea after examining overseas research trends related to divorced couples. To this end, big data-based bibliographic 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19 papers among studies related to divorced couples at Web of Science (WOS) until August 2022. The number of studies by year, the most cited studies, and information on the author were provided, and the network analysis results for joint citations, keywords, and joint words were visualized and present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research related to divorced couples were discussed.

Keyword : bibliometric information analysis, trend of research, divorce, divorced couple, R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17-42

가족치료사의 '상담사로서의 자기'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전 은 숙** 김 혜 진***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본 연구는 가족치료사들이 MFT 전문가 과정과 상담 현장에서 경험한 SOT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상담사로서의 치유와 성장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5명의 연구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여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10년 이상 된 숙련상담사로서 MFT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후 가족치료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경험으로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 차례의 심층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코딩,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쳐 의미 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MFT 전문가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적용 경험의 실체와 SOT를 활용한 가족치료의 맥락을 탐색하고, SOT의 개념적, 실용적 이해를 조명하였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 가족치료사 SOT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개념은 가족치료사들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SOT를 확장하고, 내담자 가족과의 관계적 조율을 통해 SOT를 활용하는 작업을 거듭하면서, 통합을 찾아 나만의 개인적 기술로 재창조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치료사 SOT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의의와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도구로서의 상담사에 대한 실체적인 의미는 향후 가족치료사의 개인 및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가족치료사, 상담사로서의 자기(Self-of-The-Therapist; SOT), MFT 전문가과정

---

* 본 논문은 전은숙(2022년)의 데이브레이크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전은숙, 데이브레이크대학교 결혼과 가족치료학과 박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혜진 교수, Daybreak University School of Couples and Family Therapy / 321 S State College Blvd,. Anaheim CA 92806. USA / Tel : 1-310-739-0132 / E-mail : Jinkim@daybreak.edu.

"상담사로서 함께 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이다"(Corey, 1997). 이 말은 상담사의 인간적인 성장이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임을 말해준다. 상담에서 상담사의 존재 자체는 매우 중요한 치료적 도구로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도구로서의 상담사로 자기 성장을 이어나가는 것은 가족치료사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가족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바라보는 가족치료의 특성상 가족치료사는 그 가족을 평가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기도 하며, 때론 그 가족의 일원으로 합류(joining)하여 가족 체계의 변화를 꾀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로 자신을 활용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족치료사는 개인을 치료하는 상담사와 달리 가족 체계론적 관점에서 내담자 가족들을 바라보도록 훈련받는다. 즉, 한 개인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가족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체계를 상담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더 나아가, 가족치료사는 자기 자신의 가족체계를 이해하고 자신과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역동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훈련을 받는다(Wetchler & Hecker, 2014). 이러한 가족치료사 훈련은 '가족치료사 자신이 가족치료의 중요한 도구'라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다세대가족치료(Multigenerational family therapy)의 선구자인 Bowen(1978)은 '가장 중요한 상담 기술은 상담사 자신'이며, '상담사의 자아분화 수준은 내담자와 상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였다. 구조적 가족치료(Structural family therapy)의 창시자인 Salvatore Minuchin도 '상담사 자신이 치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이 도구(상담사 자신)는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상담도구 라는 사실을 강조했다(Minuchin, Reiter, & Borda, 2014). 여기에서 상담사가 자신을 도구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을 '상담사로서의 자기(Self-Of-the-Therap-ist: SOT)'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SOT 활용은 상담과 심리 치료 중에서도 인간중심적 접근과 관계중심적 접근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치료에서 '자기 활용'이라는 용어는 치료사가 자신의 감정, 경험 또는 성격을 활용하여 치료 과정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Rogers(1957)는 상담사의 이론이나 기법보다는 상담사의 태도가 내담자의 성격변화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상담사는 자기 자신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며 SO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onte(1994)는 가족치료사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잘 활용하여 치료적 자원으로 쓰이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SOT의 활용은 효과적인 치료사가 되고, 내담자와의 치료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는 것이다(Andolfi, Ellenwood, & Wendt, 1993; Baldwin, 2000).

가족치료사는 치료적 관점에서 내담자 가족구성원들과 이들의 가족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가족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치료사 본인의 자각(Huber, 1994) 및 가족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황선민, 2013). 또한 가족치료사는 성공적인 상담과정에 중요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중재자(Sexton, 2007)로, 내담자의 일반적인 상황과 상담적 변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Simon, 2006; Sprenkle & Blow, 2007). 이때 가족치료사는 내담자와 가족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인성을 사용해야 한다(Whitaker & Bumberry, 1988).

가족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급증하고 가족치료를 공부하려는 사람들 또한 증가해 왔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훈련된 가족치료사가 공급되고 효과적인 가족치료가 진행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노미화, 최연실, 2015).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상담 센터들이 훈련된 가족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계적 관점으로 충분히 훈련되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가족치료사들에게 부부 및 가족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현실을 초래하였다(조은숙, 최연실, 김민경, 2015). 이에 가족치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가족치료를 교육시키는 전문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전문가의 질을 높여야 한다(서진숙, 2010)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장의 가족치료사들은 오랜 기간의 교육과 훈련 및 상담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치료 회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신혜종, 2015). 그중에서도 가족치료의 이론 못지않게 실제적 측면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에서 모의 세션을 진행하거나 실제 사례를 다루면서 슈퍼바이저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족치료 전문성은 전문 프로그램의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치료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훈련에서의 경험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부부가족치료협회에서 미국결혼과가족치료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AAMFT)의 공인 임상수퍼바이저(Approved Supervisor)가 직접 지도하는 MFT (Marriage and Family Therapy) 전문가과정이 국내에 개설되어 상담사들에게 AAMFT에서 제시한 핵심 가족치료 능력 기준에 부합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가 제공되었다. 또한 이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공인 임상 수퍼바이저(Approved Supervisor)로부터 직접 상담사례에 대한 가족치료 수퍼비전이 제공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접해 보지 못한 AAMFT 공인 임상수퍼바이저(Approved Supervisor)에 의한 MFT 전문가과정을 통해 훈련받은 상담사를 중심으로 가족치료사 SOT의 이해와 활용 경험이 어떠하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가족치료 관련 학술지들에 게재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가족치료모델/이론(19.3%), 문제유형별(사례)연구(22.7%), 가족관계/과정/다양한 가족(22.7%) 등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노미화, 최연실, 2015). 가족치료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가족치료 수련생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황선민, 2013), 가족치료사들의 상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노미화, 최연실, 2015), 가족치료사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연구(노미화, 최연실, 2018), 가족치료사의 역전이 경험 연구(엄영숙, 정연득, 2021) 등이 가족치료사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주로 가족치료사의 현황과 자격증 등 실태조사가 대부분이며 가족치료사의 경험적 연구가 간혹 있었지만, 초보상담사나 중급상담사의 경험이었고, 숙련된 가족치료사의 훈련에 대한 실제적이고 심층적 경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초보나 중급상담사의 경험과는 달리 숙련상담사는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내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킨 경험이 있고, 오랜 훈련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영하여 통합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자극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적 자질과 개인의 성장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도구로서의 상담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숙련된 상담사의 경험에 대한 탐색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숙련된 가족치료사의 훈련에 대한 실제적이고 심층적 경험 연구로서 가족치료사의 SOT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AAMFT 공인 임상수퍼바이저(Approved Supervisor)들이 지도하는 MFT 전문가과정에서 경험한 SOT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상담사로서의 치유와 성장과정의 경험이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자각한 SOT의 이해를 통해 실제 가족치료 현장에서 그러한 이해가 어떻게 활용되고 확장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배움과 적용 경험의 실체와 SOT를 활용한 가족치료의 맥락을 탐색하는 심층적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SOT의 개념적, 실용적 이해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가족치료사들의 SOT의 이해와 활용 경험에 대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치료사는 MFT 전문가과정을 거치면서 SOT의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가족치료사는 MFT 전문가과정을 마친 후 실제 가족치료 현장에서 SO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방 법

질적 사례 연구 방법

가족치료사가 MFT 전문가과정을 거치면서 SOT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족 상담 실제에서 SO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질적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 세계와 의미 세계의 고유성과 연속성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의미를 참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SOT의 이해와 활용 경험을 고찰하기에 알맞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Stake(1995)는 사례연구를 “주요한 맥락 안에서 사례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한 사례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Robert(2000)는 질적 사례연구는 “사례의 독특성과 복합성에 대한 연구이며, 중요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라고 설명한다.

Stake(1995)는 연구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사례연구를 본질적 사례연구와 도구적 사례연구로 나누고 있다.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는 연구자가 특정한 사례 자체에 대해 본질적인 관심이 있는 경우이다. 반면에,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는 어떤 문제나 쟁점에 대한 통찰을 얻거나 일반화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치료사들의 SOT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경계를 가진 여러 사례를 탐구한 본질적 다중사례 연구에 해당한다.

MFT 전문가과정은 2016년 11월 19일부터 4일간 1학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3학기 과정을 마치면 100시간 임상 수련을 받게된다. 이 MFT 전문가과정은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체계적 관점에서의 가족치료사가 되기 위한 가족치료 양성프로그램 중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노동부에서 정한 자격 인정 기준을 반영한 것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가족치료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실시된 미국의 임상수퍼바이저들이 지도하는 MFT 전문가과정을 수료한 가족치료사를 대상으로 SOT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수업내용은 표 1~표3과 같다.

표 1. MFT 전문가과정 수업내용 〈1학기〉

1day	2day	3day	4day
내러티브 가족치료	해결중심 단기치료	의학 가족치료	가족치료 임상윤리
가족치료 수퍼비전	가족치료 수퍼비전	가족치료사의 자기이해와 성장	가족치료 수퍼비전

표 2. MFT 전문가과정 수업내용 〈2학기〉

Day 1	Day 2	Day 3	Day 4
가족 체계 이론과 실습	여성주의 가족치료	보웬가족치료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1
미누친 구조적 가족치료	가족치료 수퍼비전	가족치료 수퍼비전	가족치료 수퍼비전

표 3. MFT 전문가과정 수업내용 〈3학기〉

1day	2day	3day	4day
가족치료 수퍼비전	가족치료 수퍼비전	가족치료 수퍼비전	가족치료 수퍼비전
이마고 부부치료	정서중심 부부치료	부부가족치료모델 통합과 적용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통해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드러내기에 연구의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연구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2016년 MFT 전문가과정을 1학기를 시작으로 하여 3학기를 모두 수료한 후 2-3년의 일정한 기간이 지난 상담사를 선정하였다. MFT 전문가과정 후 현장에서 어떻게 SOT를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숙련의 시간이 필요한 탐구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가족치료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현재 가족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가족치료사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가족치료사 1급 자격 취득기준인 최소 55시간 지도감독과 200시간 이상 가족치료 경험이 있고, 현장에서 가족치료사로 활동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본 연구 목적에 더 잘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10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있는 숙련상담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전문상담사로서의 이론적, 임상적 경험을 지니고 있으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 문제를 성숙하게 대처한 경험이 탐구되기 위해서이다. 주은선과 김주영(2002)은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험 기간을 5-10년(평균 7.5년 정도)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전문가 명단을 MFT 전문가과정을 개설한 협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1차 참여자는 2021년 3월 현재까지 총 12명이었다. 이 12명에게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간단한 안내와 연구동의서를 발송하였다. 그들에게 연구동의서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고 1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1년 5월에서 7월까지 마쳤고, 12명의 면담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12명의 축어록에 대한 1차 분석 이후,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경험들을 더욱 심층적이고 풍부하게 이야기 한 2차 참여자 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이 5명을 최종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한 주요한 이유는 첫째, MFT 전문가과정을 수료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후 현재까지 가족치료 현장에서 체계적 사고가 유지되는 사람이었다. 둘째, MFT 전문가과정 이후의 SOT의 새로운 변화가 뚜렷하여 가족치료를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셋째,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

표 4. 연구 참여자

참여자(가명)	성별	연령	학력	상담경력	자격	상담기관소속
한소리	여	50대 후반	박사	21	1급, 수련감독	사설상담센터장, 교수
최다정	여	50대	박사	18	1급, 수련감독	사설상담센터장, 교수
강단이	여	50대 중반	박사	22	1급, 수련감독	사설상담센터장, 교수
이연민	여	50대	박사	26	1급, 수련감독	사설상담센터장, 강사
나다운	여	60대	박사	25	1급, 수련감독	사설상담센터장, 교수

고 자기 자신의 삶이나 상담에서의 통찰을 가감 없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눠주는 사람이었다.

개인의 이야기를 탐색하는 연구이므로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고려도 주의 깊게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5명에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연구 참여자를 위한 설명문을 제공하였고, 연구 목적, 내용, 절차,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들의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였다. 또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동의했더라도 연구 진행 중 언제라도 참여를 중도 포기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을 것이며, 중단된 참여자의 자료들은 중단 즉시 폐기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완성된 연구들이 학술 목적의 책으로 출판되고 학술지에도 게재될 것임을 안내했다. 그 후 참여자들에게 연구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간단한 배경정보는 표 4와 같다.

연구 절차

자료 수집

2021년 5월에서 예비면담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8월부터 10월까지 5명을 최종 선택하여 3차례 더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들의 일터를 방문하여 직접 면담을 1회 하고, 코로나의 여파로 나머지는 줌(Zoom)을 사용하여 화상면담으로 5명의 참여자를 3회기를 더 만났다. 그간의 자료와 축어록을 풀면서 자료와 연구 방향의 일치 정도를 점검하고 자료와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2021년 12월까지 참여자 한 사람을 3회에서 4회까지 면담하였고, 소요시간은 대략 한 사람당 총 6~9시간 소요되었다. 질문지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초기 면담을 진행한 후,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미리 개발한 반구조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 영역은 상담사의 개인적 배경, MFT 수련과정, MFT 수련과정 후 상담경험, 상담사의 자기, 기타 영역으로 나뉘고, MFT 전문가과정에서 전반적인 SOT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경험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를 나누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례 내 분석을 통한 개별사례의 심층적 이해와 함께 사례 간 교차 분석으로 가족치료사라는 전문가 집단에서 SOT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현상이 어떠한 공통적 내용과 특성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축어록으로 전사하여 Creswell(2013)의 사례 내, 사례 간 분석을 활용하였다. 사례 내 분석은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가족치료사가 MFT 전문가과정 거치면서 SOT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시간적 흐름으로 정리하였고, 사례 간 분석은 질적 연구의 코딩 방식에 따라 자료를 정리해 나갔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별 사례를 정리한 사례 내 분석의 내용은 사례 간 분석의 의미 추출 과정에서 중요한 맥락적 틀로 활용될 수 있었다.

전체 25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수차례 읽으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카테고리들을 설정 검토해 보는 방식(조용환, 1999)으로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을 수행했다. 수집한 자료를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문장을 분류하고,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개념을 분류하면서 카테고리들이 생겼다. 분류가 모호한 단어와 문장들은 따로 모아 놓았고, 코딩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축코딩(axial coding)을 진행하였다. 축코딩은 개방적 코딩을 통해 나타난 카테고리 하나하나를 중심축에 놓고 자료들과 다른 카테고리들을 수렴시켜 검토하는 것(조용환, 1999)이다. 여러 번 카테고리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자료를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했다. 축코딩을 한 뒤에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카테고리들을 다시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하고 체계에 따라 논문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예비 목차로 연결되었다. 목차를 보면서 적합하게 잘 구성되는지를 고려하면서 자료 읽기를 반복하여 연구의 주제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목차의 구조를 세웠다. 자료수집과 분석의 과정은 나선형의 순환 과정으로 반복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SOT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한 보웬과 미누친의 가족치료 이론을 주요하게 적용, 참여자의 기술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 개념으로 환원하여 서술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를 코딩, 기술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입견과 편견으로 자료를 왜곡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 속으로 연구자가 들어가면서 연구 참여자와 신뢰를 형성하고자 하였고,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왜곡으로 인해 잘못된 이해가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다. 둘째,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고, 질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과 이론을 활용해서 보다 명확한 연구 결과를 확보하고자 했다. 셋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교수 2인에게 연구의 과정과 연구 결과에 대해 자문과 검증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정확성을 평가받았다. 넷째, 연구에 영향을 주는 저자의 선입견이나 가정을 연구 초기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명확히 하고자 했고, 연구의 분석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의 경험이나 편견, 선입견이나 관점을 발견하고 필요하면 언급하고자 했다. 다섯째, 면담의 전사 자료와 논문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연구 참여자에게 검토를 받는 'member check'를 했고, 그들의 견해를 요청했으며, 그들의 요청에 따라 민감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 지역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지역을 배제하는 등 수정하였고, 참여자의 진술 가운데 모호하거나 앞뒤가 불일치 되는 정보가 나올 때 추후 면담을 통해 확인하거나 이메일 통해 추가 질문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결 과

자료 분석 결과, 총 627개의 코드를 생성, 취합하였고, 여기에서 유사한 응답과 주제에 맞추어 627개의 코드를 다시 53개 그룹코드로 배열 정리하였다. 또한 53개의 그룹코드에 대해서 11개의 하위범주와 4개의 상위범주로 구분하였다. 가족치료사의 SOT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경험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질적 사례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으로 정리하였다.

사례 내 분석: 가족치료사들의 SOT 이해

사례 내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참여자인 가족치료사 5명의 SOT 이해가 그들 삶의 과정과 더불어 어떻게 형성, 변화되었는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를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참여자들의 삶의 과정을 상담사가 되기 전, 상담사가 된 동기와 상담 활동, MFT 전문가과정의 체험 중, MFT 전문가과정의 체험 후 변화 경험 순으로 정리하고, 이것이 SOT의 이해와 어떻게 관련되어지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통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사례 간 분석: 가족치료사의 SOT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경험

본 연구에서는 사례 간 교차 분석을 통해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를 연구 문제인 2개의 영역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5. 사례 내 분석: 참여자들의 삶의 과정에 따른 SOT의 이해

참여자	상담사가 되기 전	상담사가 된 계기 및 상담사 활동	MFT 전문가과정 중 변화	MFT 전문가과정 및 그 후의 변화	SOT의 이해
한소리	-5남매 중 첫째. -8세 때 큰댁에서 3년간 거주. -어렵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음.	-봉사활동으로 청소년집단상담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음.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메인 것을 풀고 살도록 도와주자" -심리상담사부부, 가족치료사	-깊이 있는 지식 탐구에 대한 필요성. -긴장감과 경직성이 풀림.자기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수 있게 됨 (본연의 자기로 회복) -엄마와의 거리감과 아빠와 동일시. -아빠에 대한 기준으로 남편을 평가했음을 알아차림.	-관계와 체계의 무한한 가능성과 유능감을 느낌. -남편과의 관계에서 깊어진 대화.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확장됨. "가족을 만나면 거미줄 같은 것이 보여요" "내담자가 나를 살린 거죠."	SOT란 "숨을 쉬게 하는 바람" "흡수하는 사람"
강단이	-4남매 중 첫째 -대가족 체계 안에서 할머니와 함께 삶. -고3 때 아버지의 외도에 대한 용서가 쉽지 않았음.	-아들과 대화를 위해 상담 공부. -목사님의 권유로 가정사역을 시작함. -심리상담사, 부부·가족치료사	-세대와 구조 안의 내가 맥락에서 의존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해하게 됨. -다세대 전수 과정을 깨달음. "혼자서 힘들게 살아왔구나" "최선으로 보는 치료구나." "사람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구나."	-남편에게 기대고 편안하게 취약점을 드러내기. 남편도 대화의 깊이가 달라짐 "한팀이 된 거죠." -내담자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김.-인간의 본질은 관계의 경험을 통해 성취. "영성은 연결감"	SOT이란 "안내하는 사람",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안내자"
최다정	-6남매 중 셋째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함. -산과 들로 뛰어 다녔던 자유로움.	-입시 날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애도 상담 후 상담 공부 시작 -예술치료로 시작 -정신병동 심리부석, 모래놀이 치료사, 부부·가족 상담사	-외국에서는 가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쓸 수 있나? -아빠와의 융합을 알아차림. -나와 남편의 패턴과 구조 안에서 남편의 고충을 깨닫게 됨. 원가족 내 언니와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	-가족의 역동과 현재 사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깨닫게 됨. -가족 상담에서의 유능감. "그들이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죠" "기본 틀은 갖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요."	SOT는 "딱 예술 가예요", "품어주는 그릇"
이연민	-부유한 대가족 집안의 5남매 막내. -오빠의 문제로 고1 때부터 스스로 도시락을 챙겨 학교에 통학.	-고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상담을 전공. -심리상담사, 부부·가족치료사로 활동.	-가족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낌. -자기가 아닌 오빠가 가족의 희생양임을 알아차림. -엄마와 자기가 융합되어 있으며 상당 부분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림. -딸과의 밀착을 알아차림.	-기능적 분화: 딸과의 거리두기·경계선에 대한 중요성인지. -부부 관계를 최우선:휴일에는 온전히 남편과 함께.-치료이론과 개념에 대한 자각, 새로운 비전에 대한 기대. -풍요로운 원가족 체계에 대한 감사. "개인이 와도 전체를 봐요" "가족 상담은 예술작업" "공식에 대입되지 않은 가족은 없다."	SOT란 "촉진자", "나는 나일 뿐" :치료자로서도 존재하고 한 인간으로서도 존재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다운	-8남매 중 일곱째. -어린 시절부터 오빠를 위로하는 상담사. -술 마시는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영웅 역할	-먼저 죽은 친구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신 분석을 받으며 해결됨. -상담 공부 시작. -목회상담사,부부·가족 치료사	-이야기 치료나 해결중심 치료가 매력적으로 느낌. -임상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필요를 느낌. 실제 해보니 "더 많이 필요하구나"-더 풍성해지면서 심리적인 허기가 해소됨.	-보는 시각이 바뀜. -영웅 역할을 나 자신과 분리하고 나다운 존재로 다시 통합함.-당당하고 편안해짐. -나의 분화가 내담자의 분화를 촉진함. -개인을 넘어 가족에게도 필요한 완전한 통합기법.	SOT란 "내 몸이 악기", "오롯이 홀딩해주는 그릇"

표 6. 범주와 주제

영역	범주	하위주제
SOT의 이해	이슈의 새로운 자각	가족의 희생양 : "내가 희생양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 사건 : "큰집에 보내졌어요"
		가족 안의 반복되는 이슈 : "의존하지 못했던"
	나와 가족: 새로운 관계 맺기	참자기 찾기 : "나로 회복하는 과정"
		가족 간 분화 :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부부체계 강화 : "한 팀이 된 거죠"
SOT의 활용	가족치료의 실제 : "공식에 대입되지 않는 가족은 없다."	가족 간 분화 : "분리와 독립"
		다세대 전수 : "친정아버지가 그랬어요!!"
		부부체계 강화 : "부부관계가 우선"
	동형성적 자각과 자기 개방 :"유레카를 몇 번 외치죠"	동형성적 자각 : "내 가족의 역동과 사례와의 영향"
		자기 개방 : "잠깐 나를 개방해도 될까요?"

SOT의 이해: "체계 안의 나"

1) 이슈의 새로운 자각

우리는 모두 가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은 원가족과의 관계 경험에서 비롯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상담사들은 상담사가 되기 위한 임상 훈련을 통해 자기 이슈에 대해 미해결과제를 자각하고 자기성찰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족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상담사로서의 자기 자신의 이슈에 대해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다.

1-1) 가족의 희생양[1]: "내가 희생양인 줄 알았는데…"

참여자 이연민은 늘 손님이 끊이질 않았던 땅 부잣집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이연민은 항상 생일날 저녁에야 엄마가 깜박했다 할 정도로 "내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연민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힘들어지게 된 원인이 큰오빠라고 여기며 몇십 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MFT 전문가과정에서 수업을 듣는 중 불현듯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

> 가족, 가족치료, 계속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중략)… 어느 순간 '내 큰오빠가 우리 가족의 희생양은 아니었을까?' 내가 어찌 보면 상대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 같았어요. 나도 실은 발달과정에서 큰오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연민〉

가족치료를 공부하면서 "내 큰오빠가 우리 가족의 희생양은 아니었을까"라는 인식이 새롭게 자각되어 가족의 맏아들로서 부모의 기대를 엄청나게 받지만, 부담만 있고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한 큰오빠는 가족의 희생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희생양"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자각은 이후의 가족 상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큰오빠와 나와의 관계를 해결한 "녹아내린" 나의 마음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1) 가족의 희생양(family scapegoat)이란 다른 가족들로부터 가족의 어려움과 정서적 혼란에 대해 비난을 받는 가족 구성원을 이른다(Worden, 2012).

근데 내가 가족 상담을 하면서…. 역할의 짐 때문에 버거워하는 첫째 아이나 아동 청소년이나 성인 자녀들을 보면 연민이 생겨요. 큰오빠같이 희생양인 역할의 짐이 있는 큰아이를 보면 짠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 큰오빠에 대한 나의 해결된 나의 마음을, 녹아내린 내 마음도 좀 들여다봐요. 그리고 그럴 때는 상담 끝난 날 오빠한테 전화를 한 번 해요. "잘 있냐"고. 〈이연민〉

1-2) 결정적 사건: "큰 집에 보내졌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몇 번의 결정적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이 굴곡을 겪게 되면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한소리에게는 5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 8세 때 부모 곁을 떠나 큰집에 가게 된 것이 결정적 사건이었다.

어렸을 적 큰집에 보내졌어요. 큰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하고 맏며느리의 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거죠. 그 기 싸움이 어떤 거냐면 차라리 쿵쾅쿵쾅하면 그냥 알아서 튀면 되는데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냉전이에요. 〈한소리〉

이러한 결정적 사건에 대한 한소리의 선택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버티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표현을 안 하기로"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게 뭐냐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가만히 버티자.',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큰 집에서 자란 그것이 너무 깊이 들어와서 나를 아예 만들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힘듦은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나는 내 얘기도 안 하고 남의 얘기도 안 하는 그게 아예 그때 몸에 뱄던 거죠. 〈한소리〉

이렇게 한소리는 아버지, 할머니, 큰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과 생각으로 혼자 감내하며 살아냈다. 이 선택은 한소리에게 평생 영향을 끼쳤다. 이 큰집에서 자란 그것이 너무 깊이 들어와 아예 한소리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소리는 상담사가 되어 자기 이슈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지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힘듦은 표현하지 않는" 상담사가 된 것이다. 그런 한소리는 MFT 전문가과정 중 실습이나 수업을 하면서 동료들과의 반응에 의해 변화를 경험한다.

MFT 과정을 통해서 실습을 하는데 동료들로부터 느껴진 것은, 냉기도 아니고 긴장도 아니라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안전한 환경이라는 거…. 이곳에서 '뭐든지 말하고 웃고 울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반영해 주고 공감해줄 때 더욱 편안하게 느껴졌고…. '아. 허용 받고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세상은 나를 환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나 자신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나 자신을 표현하기로 작정했지요. 〈한소리〉

한소리의 "나 자신을 내놓기" 시작하여 원가족 작업을 하면서 치유가 되었다. 실습에서 한소리는 직접 본인 작업할 때가 재미있었다고 한다. 어릴 때 내가 되어서 가족에게 표현해 보는 역할실습, 그 치유작업이 제일 좋았다고 한다. 한소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실제로 어린 시절을 재 경험함으로써 치유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실습(원가족작업)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다.

1-3) 가족 안의 반복되는 이슈: "의존하지 못했던…"

강단이는 4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부모와 한집에 살기는 했지만, 할머니가 계신 안채에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 아마도 할머니는 아래채에서 생활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손녀를 안채에 데려다 키우면서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했던 것 같다.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안채에서 생활하다 보니 할머니와 동일

시하면서,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시각으로 보는 강단이에게 부모님은 의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강단이의 삶은 늘 혼자서 해결하면서 엄청나게 애쓰고 힘들게 전투적으로 살아왔다. 상담사가 되어서도 자신이 "의존을 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궁금함이 항상 있었다.

> 좀 애어른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의존하지 않고, 눈치를 보며 알아서 하고, 이랬던 내가 아. 이해가 되는 거죠. …(중략)… 보웬의 다세대라든가, 맥락에서 볼 때 내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MFT 과정을 하면서는 구체화된 거예요. 이 세대 전수와 그 구조 안에서의 내가…. 제 성격이 좀 달라진 거죠. 얘기도 많이 하고…. …(중략)… 저희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강아지한테 너무나 애교가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남편이 보기에 너무 "당신에게 없었던 기능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강단이〉

강단이는 가족치료 수업을 들으면서 가계 안에 전수되어 온 패턴이 구조 안에서 더 구체화 되어 알게 되자, 의문이 풀리면서 가족 체계 안에서 "내가 아! 이해가 돼"로 새롭게 자각한 것이다. 강단이는 이러한 원가족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신을 이해하고 보니 자신이 갖고 있는 틀이나 가치관도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다. 너무 혼자 애쓸 필요도 없고, 남에게 조금 기대도 된다는 자신에 대한 허용이 생긴 강단이는 성격이 좀 변하였다. 이러한 강단이 개인의 성격 변화는 가족이 먼저 알아보고 "없었던 기능들을 쓰고 있다"며 강단이의 달라진 모습을 놀라워하였다.

2) 나와 가족: 새로운 관계 맺기

내담자 가족들에게 더 건강한 가족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치료사는 SOT의 이해와 함께 자신과 맺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도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앞서 참여자들은 개인의 새로운 자각과 변화에 대한 영향력으로 현재 나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자각과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건강한 가족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2-1) 참자기 찾기: "나로 회복하는 과정"

가족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족들은 역기능을 경험하게 된다. 나다운은 대가족 속의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착하고 묵묵하지만 술만 드시면 온 집안이 다 긴장하는 역기능적 가족(dysfunctional family)[2]의 가장이었다.

> 내가 우리 가정의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영웅이 되어야지', '내가 영웅 역할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서 '저 집에는 아버지가 저래도 셋째 딸이 공부를 잘하니까' 하면서 수치심을 덮어야지 그런 어떤 방어기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나다운〉

이렇게 나다운은 공부를 잘해서 가정의 수치심을 덮으려는 방어기제로 "영웅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나다운은 성장하면서도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

2) 역기능적 가족(dysfunctional family): 역기능적 가족은 가족구조의 융통성이 부족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부모 하위체계가 강력한 권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구조적 가족치료에서는 명확하고 안정된 경계선, 부모 하위체계의 강력한 위계구조, 체계의 융통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가족을 기능적이라고 본다(김춘경 외, 2016).

고 영웅 역할이 나인 것처럼 매사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상담사로서 살아온 세월이 30여 년이 되었다. 나다운은 또 한 번의 성장을 위해 MFT 전문가과정을 들어와서는 "체계 안의 나"를 들여다보면서, 역할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되었다. 나다운은 이제 역할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동일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 제가 들여다봐야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어릴 때도 가정에서 영웅 역할을 하고…. 뭐 또 그냥 편하게 쉬어도 되는데도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이나 책임 맡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고…. 역할과 저 자신을 분리해서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해요.〈나다운〉

2-2) 가족 간 분화: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MFT 전문가과정에서 최다정은 가족치료 이론 중 가장 와 닿은 보웬의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3]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원가족 간의 관계를 떠올려보고 아빠와의 융합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최다정은 6남매에 셋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랐고, 특히 아빠와의 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고3 수능 끝나는 날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최다정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굉장히 상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애도 상담을 받다가 대학 진로를 상담 관련 공부를 해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 무렵 최다정은 아빠와 관계에서도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MFT 과정에서 가족치료를 공부하면서 아빠와의 융합[4]을 알아차리게 된 최다정은 "그래서 독립이 되게 어려웠구나"라고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최다정은 이런 아빠와의 융합이 자신의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자상하고 가정적인 아빠를 두었기에 이런 기준에 미치지 않는 남편을 더 이해하지 못한 자신을 알아차렸다.

> 아빠가 너무 가정적이다 보니까 많이 융합되어 있었던 부분들? 아빠가 너무 자상하다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파트너를 안 만났을 때는 더 힘든 거죠.〈최다정〉

이연민은 MFT 전문가과정에서 보웬의 다세대 전수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자신이 엄마와 융합 관계였듯이 딸과도 융합 관계라는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연민은 나 자신이 먼저 분화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채로 다른 가족들을 어떻게 분명한 경계선(boundary)[5]을 치는 데 도움을 주겠냐"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은 가족체계의 분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Minuchin, 1974).

>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이 분화되어야 해요. 자녀와. 나 자신이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로 다른 가족들을 어떻게 분명한 경계선을 치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녀와 거리를 두고 친밀한 관계로 아이랑 그렇게 좀 하려고 하죠.〈이연민〉

---

3) 분화란 보웬의 핵심 개념인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에서 나온 말로서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분화를 의미한다. 보웬은 원가족에 대한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가족 갈등과 관련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라고 보았다(김용태, 2000).

4) 융합(fusion)이란 자신과 타인과의 심리적 경계가 모호하고, 정서적, 지적기능이 혼합된 상태. 분화의 반대개념(Nichols& Schwartz, 2007).

5) 경계선(boundary)이란 개인, 하위체계, 가족의 통합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정서적인 벽을 설명하는 구조적 가족치료의 개념이다(Nichols & Schwartz, 2007).

2-3) 부부체계(marital subsystem)[6] 강화: "한 팀이 된 거죠"

최다정은 앞의 2-2)에서 아빠와의 융합 관계임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다. 최다정의 부부관계 패턴은 어린 시절 필요했던 미해결과제가 정반대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관계 패턴이다. 즉, 아내는 "여기에 함께 있어 주기" 바라고, 남편은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이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관계 패턴이었다. 최다정은 MFT 전문가과정 통해 가족 간의 관계 패턴을 알아차리고, "저와 남편의 구조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상한 아빠에 비해 그렇지 못한 남편을 부족하게 바라보던 자신에서 벗어나 이제 온전히 남편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다. 최다정은 그제야 "아! 남편이 힘들었겠구나!"를 깊이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최다정의 부부관계의 변화처럼 강단이도 MFT 전문가과정을 통해 1-3)의 "의존하지 못했던" 자신을 가족 구조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격이 좀 달라지면서 점차 부부관계에도 변화가 왔다. 강단이는 남편에게도 이제 "기대기도 하고", "내 취약점도 드러내"는 용기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 "진짜 의존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강단이에게 몇 십 년 동안 해오던 패턴의 내려놓음이며, 엄청난 변화이다. 이제 부부간에 서로 얘기 나누는 게 많아지고, 깊어지게 된 것이다.

> 서로 얘기 나누고 이러니까 둘이 계속 변하는 게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크레물린이 이제 완전히 열려서 저한테 다 얘기하고 하다못해 직원 채용하는 거까지도 의논할 정도로. 한 팀이 이제 팀워크가 된 거죠.〈강단이〉

이렇게 참여자들은 MFT 전문가과정을 통해 개인적 삶의 변화로 참여자들 가족관계의 변화로 "관계"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고 원활한 가족 간의 소통과 건강한 분화를 이루어 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가족치료사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분화 수준을 높이고 점진적인 단계로 가족 체계로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SOT의 활용: "거미줄 같은 게 보여요"

1) 가족 상담의 실제: "공식에 대입되지 않는 가족은 없다!"

가족체계적 패러다임은 치료의 초점이 개인의 증상이 아니라 가족의 힘의 역학 구조, 관계 패턴, 가족간 상호작용에 있다. 이연민은 가족상담을 할 때 MFT 전문가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개념을 써보니 "공식에 대입되지 않는 가족은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 이론이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 곧 실제…. 공식도 자연스럽게 실제처럼 쓰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써요. 상담에도 공식이 있다는 걸 가족 상담 MFT에서 되게 느꼈어요. 공식에 대입되지 않는 가족은 없다! 이론이 명확히 설명되거든요.〈이연민〉

6) 부부체계(marital subsystem)란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하위체계중의 하나로, 부모하위체계, 부부하위체계, 자녀하위체계가 있으며, 이중 부부체계가 상위에 존재한다. 부부체계가 부부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책임지는 위치를 갖고 가족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에 대해 규칙을 정하고 행동을 옮기는 일을 한다(김용태, 2000).

1-1) 가족 간 분화: “분리와 독립”

한소리는 최근 기억나는 사례를 떠올리면서, 개인의 문제로 왔다가 가족 모두가 변화된 사례를 말했다.

> 저는 1회기에 가족의 시스템이나 가계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요. 이 아이의 문제가 가족한테서 왔는지 개인한테서 왔는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죠. 그랬을 때 가족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그러한 IP(identified patient: 지정된 환자)[7]을 본 거죠. 〈한소리〉

한소리는 이 내담자의 문제는 “가족이 깊이 관여”되어 있으며, 주 양육자인 할머니가 내담자를 어린 시절부터 키우면서 모든 행동을 심하게 규제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한소리는 초기 사정 단계에서 이러한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과 가족구조를 파악하고, “구조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다. 한소리는 보웬이론을 적용하여 자기 분화라는 상담목표로 세우고 구체적 전략으로 “탈삼각화(detriangulation)[8]”를 도와주고, 가족 간의 경계선을 긋도록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 성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탈삼각관계로 가도록 도와주고 경계선 긋게 도와주고, 그다음 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차리게 하면서, 그 밑에는 핵심 감정을 도출해내도록 드러내게 도와주는 거죠. 〈한소리〉

한소리는 가족 간의 분화라는 상담목표를 세운 뒤 문제 행동이 드러난 내담자의 개인 상담을 중점으로 하면서 가족 상담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소리는 내담자의 아빠와 할머니의 융합으로 삼각관계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아빠와 할머니의 “탈삼각화”를 시도하였다. 한소리는 아빠에게 “탈삼각화”를 위해 할머니와 “경계선을 긋고”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몇 회기의 부부 상담으로 부부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할머니와의 탈삼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에게도 변화가 왔다. 한소리는 이 가족이 이전에는 “서로 엉켜있는 새 둥지”였다가, 가족 상담 후 “분리와 독립”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딸의 날갯짓”으로 시작 된 이 가족의 변화는 “가족 간의 분화”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가족을 보면 마치 서로 엉켜있는 새 둥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새 둥지에서 독립해서 날아갈 때는 날아가야 하는데 못 날아가서 서로 엉켜있는…. 근데 지금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해서 딸은 지금 날갯짓하고 있고 둥지를 하나 만들기 시작하는 거 같고…. 그런 부분에서 새 둥지가 두 개가 필요한 가족이 한 둥지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거죠. 그래서 분리와 독립, 이 두 개를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죠. 〈한소리〉

1-2) 다세대 전수: “친정아버지가 그랬어요!!!”

최근 이연민은 개인이 불안을 호소해 왔을 때 이러한 보웬의 이론을 적용하여 내담자의 불안을 낮추게 된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현재 내담자는 “남편과 사이가 멀어질까 봐” 불안을 호소하였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된다는 내담자의 표현을 근거로, 이연민은 보웬의 이론을 적용하기로 결정

7) IP(identified patient)란 ‘지정된 환자’라는 뜻의 가족 치료 개념으로, 역기능적 가족 안에서 가족의 핵심적이고 내적인 갈등을 표출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선택된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김춘경 외, 2016).

8) 탈삼각화(detriangulation)란 보웬의 이론에서 가족 내의 가장 주요한 삼각관계를 수정하기 위해 치료사가 치료적 삼각관계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법을 말한다(Nichols, 2015).

하였다. 이연민은 내담자의 불안이 야기된 역사를 알기 위해 내담자의 성장배경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내담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혼자서 남동생을 데리고 엄마 역할을 하며 살아야 했음을 발견했다. 내담자는 엄마가 집을 나가자 의지할 데가 없이 그야말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내담자에게는 "부모의 이혼은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는 불안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게 된 것이다.

> 남편이 떠남으로써 아들과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툭툭거려도 말을 못 해요. 근데 더한 것은 아들이 그래서 집을 나가버릴 거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이연민〉

이연민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집을 나가버릴 거 같은 두려움"은 내담자가 어린아이였을 때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 그래서 거기에서 직면보다는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저 아이의 엄마라는 거…. 어린 시절의 누나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자기 남동생으로 생각했대요. 자기가 이제는 그 어린 시절에 남동생을 데리고 살았던 그 힘든 여자아이가 아니라는 거, 엄마라는 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아이는 자기 아들이라는 거….〈이연민〉

내담자는 이런 통찰 이후 엄마의 역할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내담자는 자신이 제대로 양육 받지 못하여 지금의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했던 것이었다. 이에 이연민은 내담자에게 "아버지에게 바랐던 것"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내담자는 "돈이 아니라 한 집에 사는 거"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내담자는 자신이 바랐던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있어 줘야"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내담자가 불안하면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 방식은 아들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는데, 이연민은 내담자가 "버럭"하며 화를 내면서 불안이 전수된 것이 이 가족의 패턴이었고, 이 불안은 앞으로 자식에게도 전수될 수도 있다는 다세대 전수과정에 대해 내담자에게 알려주었다.

> 이게 참 다세대 전수 과정이…. 그리고 아들이 엄마를 표현하는데 '버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이 사람이 문짝을 뜯어 버려요. 문고리를 뜯어 버리고….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게 자기 방문 들어오는 데에 번호 키를 해 달래요. 근데 그 말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친정아버지가 그랬어요!!!"〈이연민〉

또한 이연민은 내담자에게 깨달아 알아차리면 "멈추면 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깨달음과 멈춤이 "저항"이고, 이러한 "저항"은 대를 끊어내는 것이므로 "숭고한 작업"이란 것을 말해주었다. 이제 내담자는 불안의 근원을 깨달아 알아차려 잘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역할인 엄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 참 이 세대 전수라는 게…. 그것을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멈추는 거…. 그거를 좀 다뤘죠. 보웬이 그러잖아요. 전수할 것인가, 뭔가 그 사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건 저항을 해야 하잖아요. "멈추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숭고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이연민〉

1-3) 부부체계 강화: "부부관계가 우선이다"

한소리는 황혼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마지막 수단으로 부부 상담을 신청해 온 사례를 들려주었다. 이 노부부는 남편이 가부장적이며 "남자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있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한평생

맞추며 참고 살아왔다. 그러다가 최근 아내의 외출에 대해 남편은 "폭력과 폭언"을 하였고,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진 아내는 "이혼하기 싫으면 당신이 이제 바뀌어라"라고 강하게 마음먹고 상담실로 찾아온 것이다.

한소리는 초기 사정 단계에서 남편이 자신의 부모인 "원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원가족과 미분화되어 있고, 오랫동안 살아오며 굳어진 남편의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한소리는 상담목표를 부부간의 건강한 분화로 정했다. 먼저 자신이 원가족과의 미분화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다음으로 가족 체계에서 우선순위가 부부관계임을 알게 하는 구체적 상담 전략을 세웠다. 한소리는 상담의 개입에서 남편에게 아내처럼 바꾸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 무조건적인 수용과 인정을 해주었다. 상담이 계속되면서 남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서서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남편의 귀가 열리자 가족체계의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가 우선이다"라는 상담사의 말이 남편에게 제대로 들리게 되었다.

> 이 내담자가 '부부관계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선생님께 듣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부터 다 듣고 연습해오고 따라하겠습니다"했어요.〈한소리〉

참으로 신기하게도 남편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렸다"라고 말했고, 상담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였다. 이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그야말로 기절하기 직전까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 한소리는 남편이 상담을 통해 인정과 수용을 받음으로써 "자기 분화의 시작"이 되었다고 표현했다. 한소리는 남편이 원가족 속에서 미분화된 채로 살다가 이제야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된 것으로 보았다. 부부 상담에서의 통찰과 변화로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가 이제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할 때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자 배우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왜 나를 밥 차려주는 사람 취급하냐?", "당신의 식사 시간 지키느라 평생 외출 한 번 제대로 못 해서 비참했다"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상처에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돈을 벌어야 하는 무게감에 돈이 최고가 되어버렸고, 자신은 돈을 벌되 낭비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힘들었다고 하였어요. 할머니도 그제야 평생 짊어진 할아버지의 무게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한소리〉

이 노부부는 오십 평생 처음으로 부부간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였다. 남편은 "당신의 식사 시간을 지키느라 외출할 수 없어 비참했다"라는 아내의 말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린 것이다. 아내도 남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남편의 "돈을 벌어야 하는 무게감"과 "중압감"이 가슴에 와 닿았고 서로를 깊이 연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노부부가 긍정적으로 변하자 한소리는 가족치료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 가족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고 온 사람들한테 체계를 알려줬을 때 거기에 귀를 열고 자신의 삶과 부부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에 '가족치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비로소 나의 유능감이 살아나고 좋았어요.〈한소리〉

한소리는 MFT 전문가과정을 통해 자신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처럼, 내담자들의 패러다임이 변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했을 때, "가족치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고 가족치료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유능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족

치료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한소리는 SOT의 새로운 이슈의 자각으로 성장되었고, 가족치료의 현장에서 SOT를 잘 활용하여 내담자 가족에게로 그 영향력이 확장되었다.

2) 동형성적 자각과 자기 개방

MFT 전문가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주로 체계적 관점과 함께 상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동형성이론으로 임상훈련을 받게 된다. 이 임상훈련을 받은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치료사-내담자-내담자 가족"간의 상호 유사 관계패턴의 속성과 영향력을 분명히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형성적 자각은 참여자들이 SOT를 충분히 인식하고 상담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도구로서의 자신을 항상 잘 들여다보는 자기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소리는 이러한 동형성적 자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가끔 나도 내담자를 돌려보내고 뒤돌아서는 순간 유레카를 몇 번 외치죠. 혼자서 맞아, 이거는 나도 치료가 되었어. 동시 치료. 그런 경험도 꽤 있어요…. 그를 치료하면서 그 메스가 나한테도 동시에 작동한 거죠. 그래서 '셀프 오브 테라피스트'라는 그 자리가, 도구 자체로 치료가 되면서 나오는 순간 나에게도 치료가 된다.〈한소리〉

한소리는 내담자를 치료하면서 상담자 자신도 "동시 치료"된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말로 자신의 그런 새로운 발견이자 깨달음을 "유레카를 몇 번 외치죠"라고 말한다.

또한 상담사의 자기 개방(self-disclosure)[9]은 가족치료에서 상담사 자신을 도구로 하는 기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Whitaker는 치료적 과정의 핵심을 치료사 자신의 활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치료사의 개인적 반응의 활용'이라고 주장한다(Whitaker & Bumberry, 1988). 가족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경험하는 분노, 좌절감, 슬픔 기쁨 등의 반응은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가족 구성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반응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의 치료적 반응을 촉진하여 신속한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Worden, 2012)

2-1) 동형성적 자각: "내 가족의 역동과 사례와의 영향"

동형성이란 원래 수학 분야에서 시스템의 모든 레벨에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러한 개념은 가족치료전문가 훈련과 수퍼비전의 핵심 개념으로 도입되었다(오제은, 김혜진, 2019). MFT 전문가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주로 체계적 관점과 함께 상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동형성이론으로 임상훈련을 받게 된다. 이 임상훈련을 받은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치료사-내담자-내담자 가족"간의 상호 유사 관계패턴의 속성과 영향력을 분명히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형성적 자각은 참여자들이 SOT를 충분히 인식하고 상담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도구로서의 자신을 항상 잘 들여다보는 자기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강단이는 자신이 역전이로 힘들었던 사례에서 동형성적 자각(isomorphic insight)을 함으로써 내담자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 경험을 얘기해 주었다. 강단이에게 제일 힘든 사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려는 "무기력"한 그런 내담자를 만날 때이다. 그럴 때 강단이는 "그것이 건드려지는구나"로

9) 자기개방(self-disclosure)이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주제에 관련하여 상담자가 자신의 생각 가치, 느낌 태도 및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을 내담자에게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Hill & O'Brien, 1999).

강단이가 알아차린 것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자살 충동의 그 시점이었다.

>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그때가 제가 자살 충동을 느꼈을 시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아주 무기력하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 안 하고…. 그리고…. 다 사면초가에 갇힌 거 같은 사람…. 그럴 때 굉장히 저도 같이 다운되고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내가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그것이 건드려지는구나.' 그 때 그것이…. 〈강단이〉

강단이는 이것이 상담사와 내담자의 동형성의 패턴임을 알아차렸다. 강단이는 동형성적 관점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MFT 전문가과정에서 배웠다. 지금까지 내담자에게 받은 영향으로 힘든 에너지를 멈추고, 강단이는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치유와 성장점을 찾아서 내담자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였다.

> 힘든 그것들에 대해 공감도 하고…, 또 삶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의미도 찾고, 또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지…, 내가 그래도 좀 즐거울 수도 있고, 웃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에피소드를 찾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예외 상황을 찾는 거…. 그리고 라이프 라인을 연결하는 거…. 그렇게 해가면서…, '이게 과정이다.' 내 얘기도 가끔은 해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해서 살아왔는데 정말 이런 그 상황이 끝인 줄 알고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강단이〉

최다정은 부부 상담에서 상담사로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최다정은 MFT 전문가과정을 통해 자신이 원가족과 현재 가족의 구조 속에서 자신을 더 이해하면서, 이것이 가족 상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리고 저의 바로 위의 언니랑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중략)… 그래서 저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제가 이 MFT 과정을 다 하면서 제가 거기에 '약간 남자 편을 들고 있구나'를 깨달았거든요.'내가 걸려있는 부분이구나'…(중략)… 내 가족 역동과 지금 사례와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좀 깨닫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다정〉

최다정은 부부 상담에서 외도한 아내를 대할 때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불편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고, MFT를 통해 "상담사 자기 작업"을 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상담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그다음 최다정은 "제 것을" 더 정확히 깨닫고, 자신의 취약성을 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해보려고 한다. 즉, 최다정은 의도적으로 "여성을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 그래서 그 여성에게 더 몰입하는 장면들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훨씬 더 이해되는 장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게 이제 원가족하고 연결되어,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남편이 늘 정서적으로 외롭게 만드는 장면.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고 이 여자를 보듬는 작업이 일어나요. 제가 여자한테 조금 더 가면 이제 균형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꼭 필요하구나.' 그 역동을 바라보는 거에서도 그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되죠. 〈최다정〉

최다정의 자기 자각은 그 여성에게 더 몰입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이해하고 보듬게 되는 데까지 이르러, 이제 "부부 상담에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최다정은 "상담사의 가족 역동과 지금 사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는 동형성적 자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취약성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2-2) 자기 개방: "잠깐 나를 개방해도 될까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족치료사로서 상담 현장에서 가족들과의 치료적 동맹을 더 잘 맺고, 상담관계 촉진을 위해 SOT를 활용하는 기법 중의 하나로 자기 개방(self-disclosure)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여 상담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때 상담사가 자기 공개에서 주의할 것은 자기 공개를 통해 반드시 내담자를 성장으로 이끌어야 하고,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며 현재 치료관계 내에서(지금 여기)의 자기 공개는 치료적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윤리적 문제와 잠재적 경계 위반을 검토해야 한다(Dewane, 2006).

이연민은 동형성을 인식하고 상담사로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 등을 내담자와 나눈 자기 개방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 여기서는 치료자이지만 내가 내 원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고 이런 게 치료 안에서 연결돼서 작동되잖아요. 그걸 생각을 했죠. 정말 그 사람이 처한 입장에서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그 사람보다 내가, 혹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심정을 내가 딱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왜 저 가족에게 연민이 느껴지지?' 내 안에 흐르는 감정 같은 걸 나는 좀 찾아보는 거 같아요. 거의 내 이야기를 안 하지만. 나는 상담 중에는 안 해요. 상담이 다 끝나고 50분 넘으면 "잠깐 나를 개방해도 돼요? 내가 좀 느끼는 걸…."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해요 〈이연민〉

또한 최다정은 다른 예로 상담사의 감정에 대한 자기 개방의 예를 들었다.

> 얼마 전에 온 친구도 히스토리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같이 아프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너무 가슴이 아프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찢어질 거 같다. 같이 좀 나눠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막 가는 에너지가 멈춰지더라고요. 상담에서 솔직하여지려고 노력해요. 내가 '당신이 이럴 때 나한테 느껴지는 감정이 이렇더라. 이게 왜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최다정〉

최다정은 내담자의 사연을 들을 때 감정에 몰입이 되면, 솔직하게 "같이 좀 나누자"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그러고 나면 상담사의 "몰입된 에너지가 멈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감정을 나눔으로써 "더 깊게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상담사는 전문가 입장이 아닌 인간적이고 진솔한 반응으로 상담관계가 촉진되는 경험을 한다.

논 의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맥락적 의미에서 고찰하고, 가족치료사 훈련과정과 가족치료 임상 현장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는 논의를 이어가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족치료사로서의 SOT의 이해가 확장되어 도구로서의 상담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 이에 대해 Minuchin은 "치료사의 스타일은 한 인간으로서, 전문가로서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며, 시대에 발맞추어서도 변화한다"라고 하였다(Minuchin, Nichols, & Lee, 200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전의 개인 패러다임에서 가족치료사 SOT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나를 더 정확히 봤어요'라는 깊은 통찰이 새롭게 일어나고, 이러한 다양한 SOT 인식의 변화는 MFT 전문가과정 후 상담 현장에서도 계속 진화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인 상담사 발달 연구인 Skovholt와 Rønnestad(1992)의 연구에서 상담사 발달 6단계인 전문적 자기와 개인적 자기를 통합하는 단계를 지나 7단계인 개별화

단계에 도달할 때 쯤 치료사는 스스로를 도구로 사용하는 치료사를 넘어서 그 자신이 변화의 도구 자체가 된다는 내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미정과 박승민(2015)의 연구에서 상담 수련 과정에서의 상담사의 개인적 자기 발달 경험의 본질을 개인 내적으로 성찰적 자기가 발달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사가 상담 수련 과정에서 성찰적 능력 함양과 상담사 자신의 상처와 미해결 과제에 대한 인식 및 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 상담사의 자기 발달 경험이 아닌 가족치료사의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SOT의 이해를 조명해 본 것이 앞의 연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MFT 전문가과정의 수련을 거친 가족치료사들은 새로운 틀을 의식하고 자신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고, 자신을 잘 이해하고, 이슈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가족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험을 하도록 훈련을 쌓아가면서 '치료적 도구로서의 SOT'의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것을 넘어 상담에 적용하여 SOT를 활용함에 있어 이제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SOT의 새로운 자각과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가족치료사로서의 전문성이 크게 성장하고 발달하였고, 이는 다시 개인과 그 가족 안에서의 긍정적 변화와 순환을 이루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 가족의 구성원의 어떤 변화나 기능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였다. 따라서 가족치료전문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상담사로서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과 함께 부부나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전문적 발전과 개인 생활 사이에 상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Paris, Linville, & Rosen(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상담사 개인적 성숙도와 직업적 성숙도 사이의 유사성을 보여준 연구 결과이다. 이 연구가 발견한 개인적 성장 중 하나는 부부관계의 개선이며, 또한 상담사로서의 전문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Paris et al., 2006). 또한 이미정과 박승민(2015)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상담 수련에서 얻은 자기 통찰과 자기 강화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에서 연결을 회복하고 분화를 시도했을 때 가족 체계에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가족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나간다는 유사한 결과를 이야기 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SOT의 이해를 확장시켜 실제 가족치료의 현장에서는 SOT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되었고, 이는 상담사의 유능감을 촉진하였다. 상담사의 유능감이란 상담사의 자기효능감에서 나오며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상담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Larson & Daniel(1998)는 상담사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 상담사의 수행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상담 경험이 많은 상담사들은 자기효능감이 더 높으며 상담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불안은 적다고 요약하였다. 또한 그들은 상담실습생들에게 역할 놀이, 모델링,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할수록 상담사 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Larson & Daniel, 1998). MFT 전문가과정에서 한소리는 어릴 때 내가 되어서 가족에게 표현해 보는 역할 실습, 그 치유작업이 제일 좋았다고 한다. 한소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실제로 어린 시절을 재경험함으로써 치유가 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실습(원가족작업)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소리는 "내가 나의 전문성을 믿어주기:로 하였고, 자신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처럼, 내담자들의 패러다임이 변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했을 때, "가족치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고, 가족치료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유능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Larson 과 Daniel(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SOT의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족치료의 현장에서 상담 관련 전문성을 발휘하는 상담 개입기술에 있어서 가족체계이론을 충실히 따르면서 이를 현장에서 체화하는 과정이 두드러졌다. Nichols & Schwartz(2007)는 가족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상담 모델에 대한 상담사의 충성도(fidelity)라고 하였다. 이는 다른 말로 가족치료의 사례개념화로 표현되기도 한다(Reiter, 2016). 즉, 가족치료사가 보웬 모델을 가족에게 적용할 때는 그 과정에서 보웬 이론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며, 또 구조적 가족치료를 적용할 때는 그 실천원리와 철학에 기반한 접근을 활용해야 특정의 치료적 접근이 그간의 연구를 통해 누적된 증거에 기반해 주장하는 효과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Nichols & Schwartz, 2007). 한가지 이론적 접근에 충실히 숙달하고 그 이론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가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 다른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Gehart, 2010).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SOT를 이해한 만큼 적합한 세계관을 구축하였고, 각자 자신만의 개념적 렌즈를 가지고 상담이론과 상담 구조화와 더불어 상담개입기술에 숙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과정을 통해 가족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 가족이 왔을 때,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가족 간의 분화를 도와주고, 다세대 전수 과정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부부체계 강화를 도와주었다. 개인의 문제로 상담이 시작되었지만 이론에 대한 충실한 태도로 가족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관계 변화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발달과 통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실제 가족치료에서 SOT를 활용하면서 매우 유용하게 상담의 효과적 변화를 경험한것은 동형성적 자각을 통한 자기 반영 작업이었다. MFT 전문가과정의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들은 동형성이론에 입각하여 참여자들이 "수퍼바이저-치료사-내담자-내담자 가족"간의 상호 유사관계 패턴의 속성과 영향력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동형성적 자각을 통해 참여자들은 SOT를 충분히 인식하고 상담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도구로서의 자신을 항상 잘 들여다보는 자기 반영 작업을 하였다. 동형성이론을 바탕으로 수퍼비전을 받은 참여자는 상담사 자신의 역전이로 힘들어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자각하여 함께 치료적 동맹을 맺어 긍정적 자원을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SOT를 활용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 상담에서 상담사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체계적 관점에서 비롯된 SOT의 활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Timm & Blow(1999)의 연구에서 상담사와 감독자들이 수퍼비전에서 Self-of-the-Therapist Work을 통해 동형성으로 상담사의 자원이나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들은 상담사의 자기 작업에 필요한 기초 작업 중에서 그룹 수퍼비전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Timm, & Blow, 1999). 엄영숙과 정연득(2020)은 그동안 간과되어온 가족치료사들의 역전이 경험에 대해 연구하면서 SOT의 사용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가족치료에서 역전이 감정을 활용하는 데에는 가족치료만의 독특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체계적 관점을 중시하는 가족치료에서는 가족치료사의 역전이 감정을 다루는 것은 부부나 가족 구성원의 체계적인 측면과 심리 내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는데,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그들은 가족 체계적 접근인 동형성적 자각인 상호관계적 측면으로 SO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가족치료사는 역전이 문제를 개인 내적인 역동에서의 상호주관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와 내담자 가족체계의 영향력을 시스템이론에 입각한 동형성적 자각으로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동형성적 자각의 중요성을 본 연구 사례들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내적 및 외적 자기의 일치성을 경험하면서 자기 인식이 높아졌고, 이를 통하여 SOT의 활용에 자기 개방성이 두드러졌다. 자기 개방을 지지하는 상담사들은 개방을 상담사의 투명성으로 보고, 이를 통해 내담자는 상담사의 힘이나 불완전성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그와 같은 투명성은 정직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Shadley는 임상경험이 많은 상담사일수록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친밀한 상호작용이란 치료적 상호작용에서 SOT를 공유하고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말한다(Shadley, 198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숙련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SOT 활용 기법 중 하나인 자기 개방을 함으로써 친밀한 상호작용으로 치료적 동맹을 잘 맺고 있었다.자기 개방의 연구 흐름은 정신 건강, 대인관계, 상담의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되었고, 너무 많은 자기 개방과 너무 적은 자기 개방보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자기 개방이 대인관계 측면과 상담 장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김강일, 201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SOT를 활용하여 상담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맞게 자기 개방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자기 개방으로 상담의 효과를 높이고 있었다. 이에 자기 개방의 이점과 내재적 위험을 잘 인식하고 또한 수퍼바이저는 적절한 상담사의 자기 개방을 교육하여 상담사 자기 개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의 공통된 특징은 가족치료 전문가로서의 공통요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는 것이다. 공통요인이란 “모든 형태의 심리치료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 혹은 성분”을 말한다(Hubble, Duncan, Miller, & Wampold, 2010). 다양한 치료자가 공통적으로 함께 나누는 핵심 요소를 정하여, 그러한 공통요인을 기초로 더 간략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가족치료의 궁극적 목적이다. 개인치료와 가족치료의 중복되는 공통요인으로는 치료 외적 요인, 기대요인, 모델/기법, 치료적 동맹요인을 포함하여 여러 공통요인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가족치료에는 구별되는 몇 가지 공통요인을 가진다. 관계적 개념화, 직접적인 치료체계의 확장, 치료적 동맹의 확장 등의 체계이론적 공통요인이 그것이다(Reiter, 2016). 이 체계적 공통요인 세 가지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대로 잘 드러내 주었다. 먼저, 관계적 개념화는 가족치료사가 증상을 체계이론적 렌즈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 이에 대해 참여자 한소리는 “가족을 만나면 거미줄이 보여요”라고 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체계이론적 렌즈를 통해 가족을 만나고 이해의 확장이 일어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접적인 치료체계의 확장은 치료자 IP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가족치료 접근은 치료실에서 여러 사람과 작업한다. 때로 가족 중 한 사람만 치료에 참석해도 치료자는 여전히 체계 이론적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참여자 이연민은 “한사람이 와도 부모 세대까지 다 보여요”라고 하였다. 이렇게 가족치료사는 내담자 한 사람(IP)만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료체계의 확장으로 가족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접근을 보여준 예시였다. 셋째, 치료적 동맹의 확장은 치료자가 치료실에 있는 각 개인뿐 아니라 하위체계 및 전체 가족과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족 치료사에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참여자 이연민과, 한소리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가족에게 개인 상담, 가족치료, 부부 상담을 번갈아 교차

적으로 시행하면서,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와 치료적 동맹을 잘 맺어준 예시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치료사에게 임상적 적용을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치료에서 가족치료사의 SOT가 내담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능한 가족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원가족작업을 통해 SOT의 치유와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원가족으로부터의 미해결 과제는 상담사의 SOT의 영역으로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가족치료사는 체계적 사고를 가지고 현재 가족관계가 SOT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치료사로서 가족치료 현장에서 활동할 때, MFT 수퍼비젼을 통해 가족체계와 동형성을 이해하고 SOT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경력이 많은 가족치료사의 경험을 탐색하는데 집중된 연구였다. 또한 이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남성 가족치료사를 고려하지 못하여 모두 여성 가족치료사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제한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로 경력 수준, 성별 등을 다양화하여 비교 연구들이 이어진다면 SOT의 활용 경험 과정에 대한 좀 더 다층적인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제인 SOT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치료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개인상담사의 SOT 이해와 활용의 경험을 이해하는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 상담 관점과 가족체계적 관점을 비교하면서 개인상담사와 가족치료사의 SOT 이해와 활용에 대한 경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 SOT의 활용을 다방면으로 확장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가족치료사들의 SOT 개념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체화하여 심층적으로 조명해 본 것에 의의가 있으나 변화의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변화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SOT의 개념과 활용방식에 대한 이론화의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거이론 방법 등 다른 질적 연구 접근을 활용하여 개념화나 이론 도출을 위한 작업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관점에서의 SOT의 이해와 활용의 사례를 드러내기 위해 한 가지 이론인 보웬이론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맞는 개인, 가족을 위한 가족치료사들의 SOT의 이해와 활용에 집중하여 연구한 사례이다. 이러한 한계로 더욱 다양한 가족치료 이론이나 다른 문화의 가족치료사들 SOT의 이해와 활용의 사례들을 포함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강일 (2015). 상담사 자기개방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8**(1), 37-53.

김용태 (2000).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노미화, 최연실 (2015). 가족치료사들의 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117-141.

노미화, 최연실 (2018). 가족치료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연구: 근거이론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3-29.

서진숙 (2010). 가족치료 전문가 교육에 대한 미국의 연구 동향 분석: 프로그램 평가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1**(1), 317-334.

신혜종 (2015). 가족 상담 및 치료의 현황과 과제: 일 학회 발표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4), 781-800.

이미정, 박승민 (2015). 상담 수련 과정에서 상담사의 자기 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6**(1), 1-29.

엄영숙, 정연득 (2021). 가족치료사의 역전이 경험 연구: 근거이론 접근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9**(2), 281-319.

오제은, 김혜진 (2019). **내면 부모 자녀체계치료: 동형성-상담사로서의 자기 치유와 성장.** 서울: ICFR.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조은숙, 최연실, 김민경 (2015). 가족치료사의 국가자격제도를 위한 기초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3), 469-498.

황선민 (2013). **가족치료 수련생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 상담심리학회(2004).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www.krcpa.or.kr

Andolfi, M., Ellenwood, A. E., & Wendt, R. N. (1993). The creation of the fourth planet: Beginning therapist and supervisors inducing change in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4), 301 - 312.

Aponte, H. J. (1994). How personal can training ge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1), 3-15.

Baldwin, M. (Ed.). (2000). *The use of self in therapy. 2nd ed.* New York: Haworth Press.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York: Jason Aronson.

Corey, G. (1997).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5th ed.).* Pacific Grove, CA: Books/Cole.

Corey, M. S., & Corey, G. (2004). **좋은 상담사 되기.** *[Becoming a helper].* (이은경, 이지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97년 출판).

Creswell, J. W. (201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4th Edition.*London: SAGE Publications, Inc.

Dewane, C.J. (2006). USE OF SELF: A PRIMER REVISITED.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4*, 543-558.

Gehart. D. (2010) *Mastering competencies in family therapy.* Belmont, CA: Brooks/Cole

Hill, C. E., & O'Brien, K. M. (1999).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ubble, M. A., Duncan, B. L., Miller, S. D., & Wampold, B. E.(2010). Introduction. In B. L. Duncan, S. D. Miller, B. E. Wampold, & M. A. Hubble (Eds), *The heart & soul of change (2nd ed.)* (pp. 23-4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uber, C. H. (1994). *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issues in the practice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nd ed.).* New York: Merrill Publishing Company.

Larson, L. M, & Daniel, J. A.(1998). Review of the Counseling Self-Efficacy Literature. *The Counseling Psychology, 26*(2), 178-218.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inuchin, S., Reiter, M. D., & Borda, C. (2014). *The craft of family therapy: Challenging certainties.* New York: Routledge.

Minuchin, S., Nichols, M. P., & Lee, W. L. (2007). *Assessing families and couples.* Boston: Allyn & Bacon.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7). **가족치료: 핵심개념과 실제적용.**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김영애,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7년 출판).

Nichols, M. P. (2015),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6th Edition,]* (김영애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14에 출판).

Paris, E., Linville, D., & Rosen, K. (2006).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interns' experiences of growt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2*(1), 45-57.

Reiter, M. D. (2016). **가족치료 사례개념화.** *[Case conceptualization in family therapy].* (정혜정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4년 출판).

Robert, E. S. (2000). **질적 사례 연구.**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서울: 창지사(원전은 1995년 출판).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2), 95-103.

Sexton, T. L. (2007). The therapist as a moderator and mediator in successful therapeutic change. *The Association for Family Therapy,* 29, 103-107.

Shadley, M. L. (1987). Are all therapists alike? Use of self in family therapy: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Journal of Psychotherapy & the Family, 3*(1), 127-137.

Simon, G. M. (2006). The heart of the matter: a proposal for placing the self of the therapist at the center of family therapy research and training. *Family Process, 45*(3), 331-344.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Sprenkle, D. H., & Blow, A. J.(2007). The role of the therapist as the bridge between common factors and therapeutic change: more complex than congruency with a worldview. *Journal of Family Therapy, 29*(2), 109-113.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Timm, T. M, & Blow, A. (1999). Self-of-the-Therapist Work: A Balance Between Removing Restraints and Identifying Resource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1,* 331-351.

Wetchler, J. L., & Hecker, L. L. (Eds.). (2014). *An introduction to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nd ed.). Routledge.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Whitaker, C. A., & Bumberry, W. M. (1988). *Dancing with the family:A symbolic-experiential approcah.* New York: Brunner /Mazel.

Worden, M. (2012). **가족치료 단계별 접근**. *[Family therapy basics 3rd ed].* (신혜종, 정수경역). 서울: 센게이지러닝(원전은 2003년 출판).

원 고 접 수 일 : 2022년 09월 14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2년 10월 08일
게 재 확 정 일 : 2022년 10월 22일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17-42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Understanding and Use of "Self-of-the-Therapist" by Family Therapists

Jun, Un-Suk Kim, Hye Jin

Daybreak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how family therapists experienced healing and growth as therapist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understanding and using SOT experience in the MFT training process and counseling field.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selecting final five study participant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skilled therapists who had more than ten years of therapy experience and they connected the knowledge learned in the family therapy field with actual experience after completing the MFT training course. This study explored participants' learning, the application of experiences obtained in the MFT training process, and the context of family therapy using SOT. Then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SOT were highligh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suggestions for the understanding and use of family therapist SOT were discussed.

Key words: family therapist, self-of-the-therapist (SOT), marriage and family therapy (MFT) training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43-73

한국 상담사의 이마고부부치료 적용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김 숙 경* 정 혜 은** 김 신 영*** 이 주 안**** 이 지 영***** 정 은 영****** 하 영 윤*******

김숙경 사랑연구소 | 별빛가족 상담센터 | 대한가족 상담연구소 | 고양시 가족센터 | 국제부부가족 관계연구소 | 서초구 가족센터 | 캘리포니아 개혁신학 대학원

본 연구는 한국 상담 현장에서 이마고부부치료를 부부상담에 적용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에서 이를 활용한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상담사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CQR) 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시작 과정',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의 역할 경험',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마고부부치료의 개념과 기법', '한국 내담자에 대한 이마고부부치료의 유용성', '한국 내담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경험',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의 활동이 개인 삶에 미친 영향',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성장을 위한 필요' 등 7개 영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영역에 따라 범주들과 의미를 구조화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마고부부치료가 외연적 확장을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마고부부치료 이론과 기법이 한국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정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마고부부치료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확대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시대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이마고부부치료를 정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 경험,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 상담 적용

* 제1저자: 김숙경,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
** 제2저자: 정혜은, 별빛가족상담센터 센터장
*** 제3저자: 김신영, 대한가족상담연구소 부소장
**** 제4저자: 이주안, 고양시가족센터 상담사
***** 제5저자: 이지영, 국제부부가족관계연구소 팀장
****** 제6저자: 정은영, 서초구 가족센터 상담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 하영윤 캘리포니아 개혁신학 대학원 주소: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USA / E-mail: halohangoqnf@gmail.com

과거에 비해 2022년을 살아가는 부부, 가족들은 부부 및 가족상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집안 문제, 부부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고 드러내기를 꺼려했다면, 현재는 TV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부부나 가족의 문제를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부부관계나 가족 내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 전문적 개입에 대한 기대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가족에게 있어서 부부관계는 어떤 가족관계보다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결혼의 주동기가 정서적 친밀감으로 바뀌면서,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오랫동안 유지,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족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핵심이 되었다(김영희, 정선영, 2007). 또한 2000년대 이후로는 부부와 소수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면서 부부가 공유하게 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이유들로 어느 때보다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그 관계가 가지는 문제에 민감하며, 관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Fitzpatrick, 1988; Stanley, Markman, Jenkins, & Blumberg, 2009).

한편으로 부부관계를 통한 친밀감 추구 동기가 커진 것에 비례해 이혼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한국의 이혼율은 1950년대에 비해서 13.6배 증가하였다. 60년대에 비해서는 6.6배, 70년대에 비해서는 3.6배, 80년대에 비해서는 1.6배, 90년대에 비해서는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아시아 국가 중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매거진 한경, 2021). 지속적인 이혼율의 상승은 더 많은 가족들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고(정교영, 신희천, 2007), 이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개개인을 고립시키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송정아, 2004). 이와 같이 친밀하고 질 높은 부부관계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커진 것과 동시에 많은 부부들이 관계 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별로 이어지는 불일치한 현실 속에서 부부상담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커플/부부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모델의 개발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커플/부부치료 모델 중 하나로 이마고부부치료를 들 수 있다. 이마고부부관계 치료(Imago Relationship Therapy: IRT)는 부부관계, 가족, 자녀관계를 아우르는 인간관계의 치료를 위해서 하빌 헨드릭스(Harville Hendrix)와 헬렌 헌트(Helen L. Hunt) 부부가 1980년대 말에 개발한 관계이론이다(Brown, 1999/2009). 이마고부부치료는 행동 과학, 심층 심리학, 서양의 종교적 전통과 교류분석, 게슈탈트 심리학, 체계이론(system theory) 및 인지이론을 포함시킨 치료이다(Hendrix, 2005). 이마고부부치료는 관계에서의 치유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심리치료 기법으로 국내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부부갈등과 가족의 위기를 다루기 위한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이민영, 2021). 또한 이마고부부치료는 탁월한 임상효과로 인해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부부치료 프로그램이며, 부부상담센터와 각종 정신의료, 가족치료 전문기관, 대학교와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 이마고부부치료 상담 전문가 과정은 세계적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Brown, 1999/2009). 한국의 경우, 2012년 국제이마고부부치료협회(Imago Relationship International)의 공식인증 전문가양성과정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약 190여명의 국제공인 이마고 치료사(Certified Imago Therapist: CIT)들이 활동 중이다(한국부부

상담연구소, 2022. 1. 18).

이마고(Imago)란 키워준 부모(혹은 주 양육자들)의 중요한 성격적 특성들을 뒤섞어 놓은 혼합된 정보의 실루엣이다(Hendrix & Hunt, 1999). 결핍된 양육의 상처와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치며 양육자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을 이마고 짝(Imago Match)으로 선택하게 된다(Brown, 1999/2009). 이마고 짝(Imago Match)은 관계에서의 단절을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파트너이자 치유자(healer)이다(Lee, 2022). 이마고부부치료는 관계적 패러다임의 접근법이다. 개인의 내적인 역동, 개인의 삶, 가족병력과 성격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전통적인 심리치료적인 접근인 개인 패러다임과 상반된다. 이마고부부치료에서 인간의 탄생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며, 각 개인은 관계 안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상처도 생겨나므로 관계를 원초적인 힘으로 이해한다(Brown, 1999/2009). 그러므로 이마고부부치료에서는 내담자 커플이 파트너가 원하는 바를 직접 제공해주는 방식을 습득하면서 커플관계를 함께 치료한다(정정화, 윤가현, 2018).

이마고부부치료의 핵심이론은 부부 각자의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unhealed childhood wounds), 즉, '미해결과제(unfinished business)'와 관련된다(Hendrix & Hunt, 2006). 부부의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 상처를 현재 부부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인식하고 이를 부부치료에 임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Erikson의 발달이론은 이마고 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Erikson(1950)은 심리사회적 발달의 8단계를 통해 인간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며, 각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발달 과제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인간 모두는 어린 시절 (특히, 영유아기부터 아동기에 해당하는) 부모, 즉 주 양육자로부터 각 발달단계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돌봄을 제공 받아야만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각 발달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그 결핍된 욕구들로 인해 미해결과제가 되고 사람들은 이러한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 즉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배우자로부터 채우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지니게 된다(Handrix & Hunt 2006; Luquet & Hannah, 2011). 개인의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던 주 양육자에 대한 이미지, 즉 이마고(Imago)가 성인이 된 후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Handrix & Hunt 2006). 따라서 이마고부부치료에서는 커플 관계를 치유하고 성장하기 위해 배우자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Brown, 1999/2009), 이러한 점을 치료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루어간다. 이와 같이 이마고부부치료는 커플의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발달이 저해된 것을 바로잡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들 사이의 연결을 회복시키는 한편, 서로의 분화 또한 촉진시킨다(Luquet & Hannah, 2011).

이마고부부치료의 주요기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마고 대화법을 들 수 있는데, 부부가 자기 기준의 틀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영하기(mirroring), 인정하기(validate), 공감하기(empathy)를 통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한다(Hendrix & Hunt, 2006). 거울처럼 반영을 하는 일에는 해석적인 틀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표현한 것 그대로 그 의미에 대해 치료사나 배우자의 어떤 해석 없이 다시 돌려주게 된다(Brown, 1999/2009).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항상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경험이라도 해석될 수가 있으며, 각 사람에게 이 다름이 각각 진실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Brown, 1999/2009).

이마고부부치료의 주요기법인 부모-자녀 대화법은 이마고부부 상담사가 어떤 해석이나 분석, 판단을 하지 않고 반영하기 과정을 계속 지속하여 안전감을 더욱 증대시킨다. 이때 말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표현하게 되면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는 부부를 부모-자녀 대화법으로 이끈다. 이 대화법 안에서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받은 가장 좌절되고 깊은 상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Hendrix & Hunt, 1999).

상담사의 역할은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의식적인 대화를 하도록 촉진하고 문장 줄기를 주어 부부가 더 깊은 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는 말의 내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이보다는 “부부가 어떻게 말하는가?”, “서로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Brown, 1999/2009). 이마고부부 상담사는 이마고 부부대화법을 소개하면서 부부가 이마고 대화법 안에 머물러 대화하도록 도와주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안전감을 경험하도록 하고, 대화 과정을 촉진하며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Brown, 1999/2009).

이마고부부치료는 현재 북미를 중심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부부, 커플 관계에 주목할 만한 치유와 성장을 불러오고 임상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연구로 이어진 결과물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지수, 오서현와 최연실(2022)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의 가족치료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부부・가족치료(MFT)의 공통요인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한 결과, 한국은 2016년 이후 부부・가족치료의 공통요인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마고부부치료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마고부부치료가 가진 긍정적인 치료적 영향과 커플(부부) 상담 현장에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이어져왔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이마고부부치료 모델 적용(송정아, 2004; 이재기, 2017), 이마고부부치료를 경험한 내담자의 경험(김덕수, 2009; 변복수, 2010; 신영호, 2012; 이옥선, 2011), 이마고부부치료 모델(김명주, 2009; 이명희, 2007), 이마고부부치료 사례(백운영, 2012; 이재기, 2017; 이효경, 2009), 이마고부부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정정화, 2015), 이마고부부치료 이론적 접근(김효람, 2009; 박창용, 2015; 오소정, 2016; 이은주, 2017), 다른 치료 기법 및 이론과의 통합적 적용이나 비교(김인영, 2012; 김예슬, 2016; 김창호, 2020; 전소원, 2013), 이마고부부치료의 효과(김보겸, 2005)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마고부부치료를 적용한 부부상담사의 경험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이마고부부치료의 치료적 요인 개발(Lee, 2022). 상담사의 비대면 화상 이마고 부부상담 경험 연구(민경숙, 이승현, 윤숙재, 임주리, 김사라, 2022)가 있다. Lee(2022)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의 제한성, 즉 사례연구와 성과연구 위주인 점을 인식하고 이마고부부치료를 부부상담시 적용하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이마고관계치료모델의 치료적인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이마고관계치료모델의 전문가 관점에서 이마고 관계치료의 치료적 요인을 개념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외에 부부상담사의 경험(민경숙 외, 2022; 서미아, 김지선 2021), 상담사의 역할과 정체성(윤아롬, 변시영, 조민경, 이겨라, 2020; 허재경, 신영주, 2015), 상담사의 효능감(김도희, 김혁진, 2021; 김문정, 유성경, 2022; 김진선, 정남운, 2017), 상담사의 좌절 혹은 성장의 필요성(김혜미, 오인수, 2016; 홍예영, 장은진, 2019; 황현정, 권경인, 2021)로 정

리해볼 수 있다. 초심상담사들의 상담전공 입문 전 자기 치유 경험에 관한 자전적 내러티브 연구(김경희, 김영미, 이진희, 이윤주, 2019)에서 상담사의 상처 치유 경험과 성장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돌보는 지속적인 자기 치유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내담자를 돕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내담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이와같이 이마고부부치료를 배우고 경험한 상담사들은 자신들의 삶과 부부관계에 치유와 성장을 불러오고 그 성장과 치유는 내담자 부부에게도 적용되었다.

한국 문화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 비교하여 개인보다는 인간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라 할 수 있다(최상진, 2007). 한국인에게 있어 인간관계의 일차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우리성' 집단을 구성하고, 확인하며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다(최인재, 1999). 문화의 영향에 대한 탐구는 심리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Matsumoto, 2000). 문화는 인간 행동의 산물이며 사람의 행동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장성숙, 2006).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고 동기화 하는 가치관은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상담 접근은 한계를 지니게 마련이다(장성숙, 200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마고부부치료 또한 한국 사회와 문화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의 현장 경험을 통해 그 실제적인 적용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마고부부치료는 관계패러다임을 중심축으로 만들어진 모델임을 감안할 때, '관계주의'가 우선시되는 한국 문화에서 그 접점을 찾아 활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마고부부치료를 적용한 이마고 부부상담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선행 연구들의 주요 주제들에서 드러나듯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이마고부부치료 이론적 모델 자체에 대한 탐색 외에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나타난 효과나 경험들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상담 이론의 적용성과 그 이론이 어떠한 맥락에서 치료적 효과를 지니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경험과 치료적 요소뿐만 아니라 실제 그 치료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상담사의 경험 또한 탐색이 필요한 부분이다(이민영,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이마고부부치료를 한국 상담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담사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이마고부부치료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내담자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고, 그러한 제한점을 고려할 때 치료 이론으로서 치료적 요인과 그 요인이 발현되는 맥락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해 상담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마고부부치료가 한국 내에서 외연적인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의 경험을 탐색함으로, 그 이론과 치료적 기법이 한국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정착되어져 가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국 내담자들에 대한 적용성을 이해하도록 도와 이마고부부치료가 한국 문화와 시대에 부합된 보다 효과적인 치료 이론으로 정착해 가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마고부부상담사로 훈련을 받고 이를 상담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상담사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이마고부부치료가 한국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과정에 상담사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셋째, 보다 나은 이마고부부 상담사로 성장하기 위한 상담사의 필요는 무엇인가?

방 법

본 연구는 이마고부부치료를 현장에서 적용한 상담사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Hill et al., 2005; Hill, 2012/2016)을 사용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현상이나 경험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실제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하는 질적 연구(Creswell & Poth, 2018/2021)의 한 방법으로, 특히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장점들을 함께 취할 수 있다. 소수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여 개인이 경험한 내면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이와 함께 여러 명의 연구자가 지속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질적 자료들을 언어적 표현을 통해 수치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Hill, 2012/2016).

한국의 상담현장에서 이마고부부치료를 적용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경험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시점에서 소수의 사례이지만 이들의 현장 경험을 여러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동시에 상담사 개인이 상담 현장에서 경험하는 내적 이야기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합의적 질적 연구가 적절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본 연구가 계획되고 수행된 배경은 질적 연구 훈련을 위해 여러 명의 연구자가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질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함께 수행하고,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며, 감수자가 참여하여 연구자들의 결과를 검토, 다시 합의 과정을 거치는 등 합의적 질적 연구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었다.

연구 절차는 Hill(2012/2016)이 제안한 4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는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팀을 구성하며, 질문을 개발하고, 참여자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 사례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영역을 개발하고, 자료들을 분류하여 영역들에 할당하고 핵심개념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교차분석 단계에서는 각 영역 내의 사례들을 범주화하며 빈도를 산출하였고, 이후 감수자를 통해 영역과 핵심 개념, 교차분석 내용을 감수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 글쓰기 단계에서는 자료를 가장 잘 반영하는 명료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쓰고 퇴고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각 연구 단계를 수행하면서 연구팀 전체의 지속적인 합의와 합의 결과에 따른 수정, 감수와 이에 대한 합의, 재수정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대학의 연구심의위원회(IRB) 심사를 통과한 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국제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국제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전문가로서 현재 한국 내담자들과 함께 이마고부부치료를 활용한 경험이 3년 이상 된 상담사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이마고부부치료의 수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자격증 취득과정과 3년 이상의 경험이 이마고부부치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제안에 따라 정하였다. 일차적으로 2021년 2~3월 데이브레이크대학교에서 시행된 '이마고부부치료 한국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잠정적 연구 참여자로 정하여 이메일로 연구 목적과 과정을 알리고 연구 참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자격증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 활동연수
참여자1	여	50대	석사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WP워크샵프리젠터	10년
참여자2	여	50대	박사과정 중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7년
참여자3	여	50대	석사과정 중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13년
참여자4	여	50대	석사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8년
참여자5	여	60대	박사과정 중	CIT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8년
참여자6	남	70대	박사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12년
참여자7	여	60대	박사 수료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10년
참여자8	여	50대	박사 수료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WP워크샵프리젠터	10년
참여자9	여	40대	박사 수료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5년
참여자10	여	50대	박사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7년
참여자11	여	50대	박사과정 중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13년
참여자12	여	40대	박사과정 중	CIT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 WP워크샵프리젠터	12년

여 의사를 타진하여 연구와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 면담에 동의하는 최종 연구 참여자 1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들의 기본 정보와 특성은 다음의 표 1에 정리하였다.

면담을 위한 질문지 작성

한국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이마고부부치료를 활용해 온 상담사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데이브레이크대학교에서 시행된 '이마고부부치료 한국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상담사들의 경험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김도희, 김혁진, 2021; 김문정, 유성경, 2022; 김진선, 정남운, 2017; 윤아롬 외, 2020; 허재경, 신영주, 2015)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참고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팀 대부분이 국제공인이마고치료사 훈련과정을 거쳐 이마고부부치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담사들로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마고부부치료사들의 경험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 질문지는 감수자 1인에게 검토를 받아 그 피드백에 대한 연구팀의 재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심층 면담을 위한 기본 질문

번호	질문내용
1.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2.	커플이나 부부 상담 장면에서 이마고 치료사가 가지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역할이 선생님 자신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3.	이마고부부치료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개념이라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것 순서대로 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4.	이마고부부치료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의미 있고 중요한 기술이라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나시는 것은 중요성 순서대로 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5.	이마고부부치료의 이론이나 기법 중 한국 문화나 한국 내담자와 잘 맞고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6.	이마고부부치료의 이론이나 기법 중 한국 문화나 한국 내담자와 잘 맞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7.	지금까지 이야기해주신 이러한 경험들이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의 현재 모습과 어떻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8.	앞으로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 수집 및 연구윤리준수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우선 이메일과 전화로 연구 주제에 대한 안내와 참여 의사를 물은 후,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12명을 연구자 6명이 나누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이 이루어진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이고, 참여자 개인별 면담 소요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 수행 이전에 연구자 모두 면담 질문지를 숙지하고, 연구팀 안에서 모의 면담을 통해 면담 태도와 기술에 대한 상호 검토와 피드백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전달과 이해가 원활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표현을 수정하였다. 각 연구자 별로 유사한 수의 참여자를 무선으로 배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이후에는 연구팀이 함께 모여 자료를 검토하고 이후 면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면담 과정은 본격적인 면담을 진행하기 이전에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함께 살피면서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면담은 팬데믹 상황임을 감안하여 Zoom을 사용한 화상 면담이 이루어졌고, 연구 참여 동의 과정에서 함께 동의를 구하여 면담 내용을 녹화하였다. 녹화된 면담 내용은 면담을 시행한 연구자가 직접 축어록을 작성하여 이후 분석을 위한 자료로 전환하였고, 축어록은 참여자가 말한 그대로는 기록하여 면담 내용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면담 당시의 상황 맥락이나 행동 관찰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록하였다. 연구 윤리 준수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자에게는 언제든

연구철회가 가능함을 고지하였고, 축어록 등 연구 자료에서 개인 정보는 첫 단계부터 기호화하여 연구팀에서 공유하였으며, 영상 및 문서 자료는 연구가 마친 뒤 폐기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Hill(2012/2016)이 제시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에 따랐다. 분석을 진행한 연구팀은 상담학 관련 박사과정생과 수료생으로 모두 질적 연구와 관련된 수업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한 바 있고, 본 연구 수행에 앞서 합의적 질적 연구에 대한 공부와 훈련을 마쳤다. 연구팀을 지도한 교수는 질적 연구 방법을 강의하고,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자로 연구 과정을 총괄하면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을 제안하는 내부 감수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사전 교육, 영역개발, 자료 코딩, 핵심 개념 구성, 교차분석을 통한 범주 개발, 주제의 대표성을 지닌 표본 범주 도출 등으로 진행하였다. 개별 자료에 대한 평정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은 일차적으로는 기초 코딩 과정을 수행한 개인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이후 하위 팀별, 전체 연구팀의 논의 및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교차분석 이후 과정은 단계마다 결과에 대해 감수와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 주요 자료 분석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domain)개발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가 면담 후 축어록을 정리하였고, 연구팀은 먼저 진행된 두 사례의 면담 내용을 미리 읽고 만나 전체 내용의 영역 목록을 함께 만들었다. 이후 각 의미단위별로 핵심 개념을 표로 만들어 따로 정리하면서 그 사례 내 공통적인 핵심 개념들을 범주화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영역구성 틀을 공유하여 연구자들이 나머지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읽고 주요 영역을 설정하였다. 한편, 자료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보들은 기호로 처리하였다. 개별 작업을 연구팀만 볼 수 있도록 보안처리된 공동 드라이브에 올려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다시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누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초기에는 8개 영역이 개발되었으나 이후 코딩과정에서 영역 구분에 의미가 크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다시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7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핵심 개념(core idea) 구성

핵심 개념은 참가자의 이야기에서 적은 개수의 단어로 핵심을 포착하여 자료를 요약하는 작업(Hill, 2012/2016)으로, 연구자들은 일차 독립적으로 사례마다 핵심 개념을 요약하고, 자료를 각 사례에 따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함께 모여 정리한 내용들을 비교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참가자의 실제 이야기가 연구자의 신념이나 편견과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왔다. 핵심 개념 구성 단계에서는 원자료에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가자가 직접 표현하지 않은 의도를 추론하거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되지 않도록 서로 점검하는 과정을 수시로 진행하였다. 또한 핵심 개념 구성에서 사례가 이루어진 맥락에서 참가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면담이 진행된 상황과 행동 관찰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여 이를 함께 참조하였다.

교차분석(cross-analysis)

합의를 통해 영역을 따라 요약된 핵심 개념들을 가지고 사례에 따른 공통주제를 확인하는 교차분석을 다음 단계의 분석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영역

내에 자료를 최대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각 사례에서 의미가 유사한 핵심 개념끼리 포괄적으로 묶어 범주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자들은 자료 자체에서 범주 제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원칙(Hill, 2012/2016)을 염두에 두고 각자 범주 및 하위 범주를 개발한 다음, 예비 범주에 대해 연구팀이 모여 함께 논의를 진행하여 범주에 제목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핵심 개념을 범주에 배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고, 이후 각 팀에서 수행한 내용을 서로 바꾸어 검토하여 상대 팀에 범주 목록의 변경을 제안하였고, 다시 그 제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매 수정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원자료로 돌아가 검토하는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각 수정 작업은 사례별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는 교차분석을 통해 범주화된 최종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범주가 전체 사례 중 얼마나 빈번하게 적용되었는가를 빈도표를 통해 정리해볼 수 있다. 주제의 대표성을 지닌 표본 범주가 이 빈도표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Hill(2012/2016)의 제안에 따라 한 범주가 모든 참가자, 또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로 구성되었을 때는 '일반적(general)'으로 이름을 붙이고, 절반 이상인 6명 이상의 참가자에게서 나온 자료로 구성된 범주는 '전형적(typical)'으로, 최소 2명 이상의 참가자부터 5명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에게서 나온 자료로 구성된 범주는 '변동적(variant)'으로 표현하였다. 1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빈도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료 분석 감수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문을 두어 합의 과정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연구팀에 제공하도록 한다(Hill, 2012/2016). 본 연구의 핵심 개념 구성과 교차분석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구팀이 둘로 나뉘어 각 팀의 분석 작업과 논의에 대한 내부 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자료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담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다수의 질적 연구 강의와 연구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감수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팀의 6명이 선정한 영역과 분석한 핵심 개념이 원자료를 반영하기에 타당한지 검토하였고, 수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구팀이 교차 분석과 결과에 대한 팀별 상호 비교 및 검토, 수정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여 연구팀에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연구팀은 그 피드백의 내용을 합의적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힘의 균형 가치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결 과

이마고부부치료를 한국 내담자와의 상담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담사 12명의 경험을 합의적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하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시작 과정',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역할 경험',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마고부부치료 개념 및 기법', '한국 내담자에 대한 이마고부부치료의 유용성', '한국 내담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경험',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 활동이 개인 삶에 미친 영향',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성장을 위한 필요' 등이 그것이다. 영역별 범주와 하위범주, 사례빈도를 정리하여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고, 각 영역별로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표 3. 영역 및 범주 분석 결과

영역	범주	하위범주	사례빈도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시작 과정	이마고부부치료를 시작하게 된 개인적 동기	지인의 소개	변동적(5)
		부부/자녀 관계의 개인적 어려움	변동적(3)
	이마고부부치료를 시작하게 된 전문가적 동기	부부치료사로서의 한계 경험	전형적(6)
		이마고부부치료 효과에 대한 신뢰	변동적(5)
		훈련차원에서 전문가 과정 이수	변동적(5)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의 역할 경험	상담사로서의 효능감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자	전형적(7)
		돕는 조력자	전형적(6)
		지휘하듯 조율하는 촉진자	변동적(5)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공감적 수용자	변동적(4)
	상담사로서의 한계	분노 감정 다루기에 좌절	변동적(3)
		연결 실패로 무능감 경험	변동적(2)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마고부부치료 개념 및 기법	자아의 여행	존재가 연결된 관계 패러다임	전형적(8)
		오래된 뇌, 새로운 뇌	변동적(2)
		안전감의 확보	변동적(2)
	관계패턴의 이해	미해결과제의 치유	전형적(10)
		이마고 짝	변동적(6)
		축소자와 확대자	변동적(4)
	이마고 대화	반영하기	전형적(9)
		인정하기	변동적(3)
		공감하기	변동적(3)
		부모-자녀 대화법	변동적(4)
		행동수정요청 대화법	변동적(3)
	상담사의 역할	상담사의 구조화와 모델링	변동적(3)
		경청	변동적(2)
한국 내담자에 대한 이마고부부치료의 유용성	새로운 대화방식의 경험	동등한 입장에서 귀 기울여주는 대화	전형적(7)
		한을 풀어주는 부모-자녀 대화	전형적(6)
	외면했던 정서와 마주함	나와 너의 상처(취약성)를 안쓰럽게 여기게 됨	변동적(4)
		비로소 이해되는 '화'	변동적(2)
		표현해도 되는 욕구	변동적(2)
한국 내담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경험	이마고 대화 프로세스를 이어가기 어려움	낯선 표현 방식에 대한 어색함	전형적(8)
		갈등 패턴의 고착	변동적(3)
		상담자 자신의 불편함이 반영	변동적(3)
	남성 내담자 합류의 한계	정서 표현에 미숙함	변동적(5)
		권위적인 가부장적 태도 버리지 못함	변동적(3)
	개인 혹은 관계가 가진 트라우마 영향	트라우마를 가진 내담자와 상담 진행의 어려움	변동적(3)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 활동이 개인 삶에 미친 영향	이마고부부치료와의 만남으로 인한 성장	상담사로서의 성장	전형적(7)
		개인의 삶과 부부관계에서의 성장	전형적(7)
	이마고부부치료 개념을 삶에서 실천	대화법의 효과 경험	변동적(4)
		세계관과 삶의 패러다임 변화	변동적(3)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의 자부심	상담사로서의 효능감 확장	변동적(3)
		의미와 보람 발견	변동적(3)
		치료의 효과 절감	변동적(2)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성장을 위한 필요	전문가로서의 성장	지속적인 공부와 수련	전형적(8)
		수퍼비전	변동적(3)
		임상경험	변동적(2)
	개인으로서의 성장	자신의 관계에 이마고치료 개념 적용	변동적(4)
		자신의 삶과 상담사 역할의 일치성	변동적(2)
	외부 지원 체계	동료 상담사들과의 교류	전형적(6)
		사례 및 연구자료 공급	변동적(3)
		교육 프로그램 개설	변동적(2)

영역 1: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의 시작 과정

한국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이 이마고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과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2개의 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마고부부치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알고 지냈던 관계를 통해 연결되거나 자신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절실한 개인적 필요에서 출발하였거나 상담사로서 전문가적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마고부부치료를 시작하게 된 개인적 동기

참여자들이 이마고부부치료를 접하게 된 개인적 동기에는 우선 학교나 학회 등에서 알고 지냈던 교수나 선배, 동료 등의 소개(변동적)가 주요하게 작용했고, 이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면서 더 알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상담사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마고부부치료를 공부하거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변동적).

저는 이제 이마고 ICT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한테 이제 이마고를 잠깐 소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약간 스터디처럼 잠깐 했다가 호기심이 챙겨서 이제 그것을 잠깐씩 시도를 해 봤었거든요, 상담 현장에서. 그런데 그게 되게 효과도 좋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격 과정에 들어갔었고요. (참여자 11)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 제가 이마고 지도를 받아서 … 성공하지 못했던 제 부부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 이마고 치료만 했던 것 같아요. 고지식해서 배운 거를 … 어쨌든 치료에도 그렇고 제 삶에도 적용시켜 보자는 목적이 있어 그랬어요. (참여자 7)

이마고부부치료를 시작하게 된 전문가적 동기

한편, 참여자들이 이마고부부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의미 있게 작용하였다(전형적). 전문가로서 무언가 확실한 치료 도구를 가지고 있고자 훈련의 차원에서 자격과정을 시작하기도 하였고(변동적), 우연치 않게 이마고부부치료를 접하게 되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면서 매력적으로 느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긴 과정을 이어가기도 하였다(변동적).

부부 상담을 하는 게 되게 가족 치료도 그렇고 부부 치료도 그렇고 좀 버거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끼고, 막 서로 상담자를 자기편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또 거기서 이렇게 막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담아내고 한다는 게 그때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대상관계 부부치료라든가 가트만이라든가 좀 이렇게 기웃기웃 하면서 들었고 봤는데, 이마고 치료 이론을 보면서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툴이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좀 배워보자!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참여자 6)

이마고를 만났는데 와 이게 이제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 엄청난 도구를 만났다. 그래서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상담자 중심이 아니고, 부부 문제는 부부가 서로 잘 안다. 이 점이 벌써 마음에 와 닿고 … 그리고 관계 중심이라는 거. 대화 중심이라는 거네.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치유되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게 해주고 … 이게 아주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어요. (참여자 6)

영역 2: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의 역할 경험

참여자들이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탐색해본 결과, 효능감에 대한 경험과 상담사로서 한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범주를 나누어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한 하위범주로 각각 2개와 4개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마고부부치료를 부부치료에 적용하는 상담사로서 연결자, 조력자, 촉진자, 수용자의 역할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면서 상담사로서의 효능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관계치료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좌절이나 무능감으로 상담사로서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상담사로서의 효능감

본 연구자의 참여자들은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양한 의미로 인식하면서 효능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효능감을 느끼게 한 주요한 역할 경험에는 커플이 대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연결하는 연결자(전형적), 미처 표현하지 못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계의 역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조력자(전형적), 거칠고 혼란한 마음의 힘듦을 알아주면서 받아주고 그것을 세심하게 지휘하듯 조율하는 촉진자(변동적), 내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버텨주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공감적 수용자(변동적)가 있었다.

촉진자로서 부부나 커플이 연결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적인 것도 아니고 또 지시적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서로가 대화를 좀 더 연결되는 쪽으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촉진해 주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자 2)

진짜 이 내 속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들은 이미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고 말해야 되는데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몰라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장줄기를 주고 눈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좀 더 가까이 앉아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겠어요?'하고 멘트를 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기도 하고 이 사람 이 말 하면 이 사람 가슴에 와 닿겠다 느낌이 올 때 한 번 더 깊게 얘기해 보세요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냥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고 거죠. (참여자 3)

정말 심포니의 지휘자인데, 그 지휘자가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민감하게 하나하나의 소리를 다 듣고 그거를 하모니를 맞춰줄 수 있도록 조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의 지금 갖고 온 마음들이 뭔지를 ... 받아주는 작업, 치료사가 ...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척박하고 마음이 막 거칠어져 있고, 너무나 외롭고 이런 것들을, 우선은 저는 치료사가 처음에 오면은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

상담사로서의 한계

역할 경험을 통해 효능감을 느끼는 한편, 본 연구자의 참여자들은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한계 또한 있었다. 그 경험에는 분노를 주로 표현하는 커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관계치료사로서 막막했던 것(변동적)과 연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그 연결을 촉진하는 데 실패하면서 무능감을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였다.

분노가 꽉 차서 폭발한 상태에서 오신 커플들인데 그 중에서 한 커플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남편이

외도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발각이 되가지고 이혼하자 하니까 남편이 이제는 이혼 안하려고 온 커플이었어요. 이 아내는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완전히 배신당한 모멸감을 느끼고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이 감정이 수습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마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제가 상담 초기에 좌절이 컸던 케이스예요. (참여자 5)

촉진자인 내가 연결에 실패를 한 거지. 왜 자꾸 내담자를 탓하는가. 그러니까 이마고 상담에서 실패했다는 건 촉진자가 연결에 실패한 거지. 내담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점점 그런 쪽으로 굳어지는거예요. 내가 저 부부가 저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 내가 뭘 실패했나 자꾸 나를 보게 되죠. 지금에 와서는 나름 100%로 얘기를 해요. 촉진자가 연결에 실패를 한 거지. 내담자는 문제가 있어서 온 부부인데 그걸 내담자 탓한다 그거는 이마고테라피스트라면 스스로 자기 무능을 노출한 것 밖에 안돼. (참여자 6)

영역 3: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마고부부치료 개념 및 기법

한국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마고부부치료로 현장에서 커플들을 상담하면서 특별히 비중 있게 사용되는 개념과 기법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할 결과, 4개의 범주와 13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이마고 치료 및 기법으로는 안전한 연결 관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자아의 여행 개념, 미해결 과제를 배우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커플관계 패턴의 이해, 실제적인 대화를 이끄는 이마고 대화 등이 보고되었고, 무엇보다 상담을 구조화하여 이끌어나가는 상담사 역할 자체를 중요한 기법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자아의 여행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마고 부부치료 개념과 기법과 관련하여 기초 이론에 해당하는 자아의 여행과 관련된 개념들을 이야기하였다. 자아의 여행에서 커플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심이 되는 관계패러다임 개념(전형적), 상대에 대한 반응과 커플관계의 역동을 설명하는 데 주요 활용되는 개념인 생존에 반응하는 오래된 뇌와 의식적이고 깨어있는 새로운 뇌(변동적), 반영하는 이마고 대화를 통해 얻는 안전감의 확보(변동적)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이다. 두 사람 사이에 지금 관계가 어떻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고 치료는 커플이 내담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내담자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두 사람 사이에, 비트윈 부부 사이에 있는 에너지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차갑고 거칠고 이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 거칠고 거절감을 주고 차갑고 사나운 에너지를 바꾸는 작업,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두 사람이 이 내담자들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참여자 1)

이제 부부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 사람 지금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 또 굉장히 변화가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뇌 이야기를 하잖아요. 편도체 이야기하면서 이제 뇌 이야기 설명을 이제 드릴 때 그것이 되게 오래된 뇌에 있었던 그 어떤 생존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분노하거나 당황해서 그런 거고, 이런 어떻게 어떤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는 시간들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결국은 미해결과제를 서로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아! 하시면서 또 '내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가실 그 부분들에 좀 많이 말씀드려 봤고요. 무엇보다 이마고 대화법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영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마고 대화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안전한 대화잖아요. 그 대화가 안전한 대화, 이마고 대화라는 거. (참여자 11)

관계패턴의 이해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마고 커플 관계치료 개념과 기법과 관련하여 커플 관계패턴의 이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관계 패턴의 이해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을 배우자를 통해 받음으로 인해 어린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미해결과제의 치유(전형적),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마고 짝(변동적), 미해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접촉을 피하고 축소하는 축소자와 과잉 확대하는 확대자의 개념(변동적)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 미해결과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마고 이론에서 개념을 정리를 해놓은 어린 시절 미해결과제 … 거의 다 여기에 다 뭉덩그려져서 이 속에 녹아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어린 시절 미해결과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이마고 짝을 만나는구나 … 그 이론이 중요하고, 또 어린시절 상처 치료의 중요성, 어린 시절 상처를 치료해 놓지 않아 계속해서 현재의 부부가 그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 활성화되면서 끝날 수 없는 그런 갈등으로 가게 되는 그런 개념들이 치료의 중요성이고, 갈등과 맞물린다고 봐요. (참여자 8)

어린 시절에 미해결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난다. 같은 우리 어떤 발달단계에서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 상담을 오면 저 사람(배우자)이 나보다 더 못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상하고 … 이런 얘기 하실 때 결국은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졌다. 같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다른 환경에서 컸더라도 우리는 결국 같은 상처를 가졌다라는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하시지만 결국은 미해결과제를 서로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아!' 하시면서 또 '내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가실 그 부분들에 좀 많이 말씀드려 봤고요. (참여자 11)

이마고 대화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마고 개념과 기법으로 비중 있게 이야기한 것은 이마고 대화다. 이마고 대화 범주에는 배우자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배우자가 하는 말 그대로 듣고 표현해주는 반영하기(전형적),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인정하기(변동적), 배우자의 마음을 상상하며 감정을 읽어주는 공감하기(변동적)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좌절을 현재 파트너가 안전한 역할을 해줌으로 치유되게 하는 부모-자녀 대화법(변동적), 자신의 욕구를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요청하게 하는 행동 수정요청대화법(변동적) 등과 관련된 경험들이었다.

이마고 치료에서 이제 중요한 치료 기법은 일단은 저는 반영하기라고 생각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반영하다 … 내 속에서 혼자 돌아가고 있던 역동을 멈추고 그리고 그걸 멈추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 그때가 눈 뜨고, 들리고 … '아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들리고, 인정하기로 가려면 진짜 반영하기가 돼야 되거든요. (참여자 1)

너를 이해하고 보니까 '아마 당신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하고 이 잠깐 생각해 보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저 사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그 시점에 가게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그냥 '공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되게 막연한데, 그걸 배

우시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 그것도 중요하고 실제로도 그 장면에서 느끼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가 정말 슬펐었을 것 같아. 외로웠을 것 같아.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본인이 또 말하면서 다시 경험하고 상대방을 또 이해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고 …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떠냐면 … '하고 자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그냥 딱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는 게, 서로에게도 그렇게 작용이 되니 마음이 전달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 …. (참여자 9)

가장 파워풀한 건, 이마고의 꽃은 부모 자녀 대화죠. 이제 정말로 내가 가장 좋은 부모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부모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표현하지 못했던, 표출하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자기를 표현하게 하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나 다움, 나는 원래 이렇게 이거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이거 느껴도 되는 거고, 그런 나다움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pc 다이올로그 할 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부부가 녹녹해지고, 그게 무르익었을 때, pc로 들어가잖아요. 부모 자녀 대화로. 근데 들어갈 때, 정말 이제는 이렇게 좀 한 팀이 됐어, 팀원이 됐어, 그랬을 때, 내가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정말 어, 정말 그 어린아이였을 때 남편이 그 어린아이였을 때 정말 듣고 싶었고, 받고 싶었고, 그거 한번 이 자리에서 내가 흔쾌히, 기꺼이, 정말 그걸 마음껏 해줘서, 그 한이 좀 풀리게 해주자 하는거죠. (참여자 1)

상담사의 역할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마고 개념과 기법으로 보다 기본적인 상담사의 역할도 이야기했다. 이마고 대화에서 상담사가 촉진자로 역할을 하지만 잘 구조화된 이마고 대화법을 사용하고 커플들이 서로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상담사 자신이 잘 경청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상담사가 관계를 위한 이마고 대화법을 구조화하여서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구조화와 모델링(변동적)과 이마고 대화의 핵심인 듣기를 통해 관계가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경청(변동적)으로 경험이 구성되었다.

이마고는 너무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내가 몰라도 구조, 딱 거기 문자대로만 해도 크게 뭐 이렇게 망할 게 없거든요. 이 말이 왜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구조 안에서 기본 구조가 있고 거기에 내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사가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상담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 '딱 이것만 해야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그 문장 구조들은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참여자 3)

이마고 테라피는 연결을 하면은 기적이고, 연결이라고 하는 건 듣는 훈련이다. 말하는 훈련이 아니라 듣는 훈련이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이마고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마고는 잘 듣는 훈련이다. 잘 들어야 연결이 된다. 말을 잘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는 그건 어렵고, 잘 듣게 되면은 연결이 되는데, 잘 듣는 방법이 뭐냐? 있는 그대로 그래서 반영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죠. (참여자 6)

영역 4: 한국 내담자에 대한 이마고부부치료의 유용성

한국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은 한국 내담자들에게 새로운 대화방식으로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데 있어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임팩트있는 대화로 인해 치료가 유용하다고 이야기했다. 한국 내담자에 대한 이마고 상담의 유용성을 살펴본 결과, 2개의 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한국문화에서는 낯선 새로운 대화방식을 경험하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에서 외면했던 정서와 마주할 수 있었다.

새로운 대화방식의 경험

참여자들이 한국 내담자와 작업하면서 경험한 이마고부부치료의 유용성 첫 번째는 한국 정서와는 다른 새로운 대화방식의 경험이었다. 여기에는 부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귀 기울여주는 대화(전형적)로 감정이 울컥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 있었고, 또한 어린 시절 경험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받고 싶었던 것을 배우자가 부모 역할로 해줌으로 무의식적인 정서가 연결되어 한을 풀어주는 파워풀한 부모-자녀 대화(전형적)가 있었다.

뭔가 이렇게 동등한 … 음. 부부지간에도 약간 서열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있기 마련인데. 그냥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시도하는 거. 대화법이 되게 한국 내담자들한테 임팩트가 있는데 그래서 내담자들이 그 대화법을 적용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그러니까 눈을 마주 본다던가 아니면은 평등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반영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참. 익숙지 않은 이런 방식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울컥 올라오고 뭔가 그냥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안이 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1)

이마고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데.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키면 더 파워풀하게 되고 …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 한 풀어주자. (참여자 1)

외면했던 정서와의 마주함

참여자가 경험한 한국 내담자에 대한 이마고 상담의 유용성의 두 번째는 외면했던 정서와 마주하는 것이다. 외면했던 정서와 마주하다보니 자신과 배우자의 상처(취약성)를 알게 되면서 배우자를 안쓰럽게 여기게 되고(변동적),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충동적으로 냈던 화의 원인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변동적),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마고 대화를 통해 안전함이 생기면서 배우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도 되는 경험(변동적)이 하위 주제들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들이 그런데 이 부부 상담을 통해서 부모-자녀 대화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상처가 뭐다 … 이 사람의 상처가 뭐다라는 것이 이때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거야. 처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 저런 상처가 있는지 저 오늘 처음 알았어 …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 그러면서 이제 상대 배우자가 불쌍하게 느껴지고 제 안쓰럽게 느껴지고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참여자 10)

감정을 잘 이렇게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부 상담하면서 우연치 않게 자기 얘기로 들어갔을 때 그때만큼은 자기 감정을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 정도 감정을 오히려 벌컥벌컥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충동적으로 화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잘 되면 부모 다녀 대화법에서 더 감정적으로 안 느끼는 것 같아 온 가족하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잘 느끼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참여자 4)

돌봄을 받고 싶어서 이것이 언어화 되어 있지 않고 아내들의 자기 주장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세계가 이 이론을 통해서 열리는구나. 이 이론이 한국 사회 이 커플에게 굉장히 큰 의식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5)

영역 5: 한국 내담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경험

한국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이 한국 내담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경험을 살펴본 결과, 3개의 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로 구성해볼 수 있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낯선 표현 방식인 이마고 대화 프로세스를 이어가기 어려운 점과 정서 표현이 어렵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가진 한국 남성 내담자들의 제한점, 그리고 개인 혹은 관계에서 가진 트라우마 영향이 주요 범주에 해당하는 주제였다.

이마고 대화 프로세스를 이어가기 어려움

한국 내담자에게 적용이 어려운 경험의 첫 번째로 참여자들은 이마고 대화 프로세스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점을 말하였고, 그 이유로 대화를 요청하고 요약 반영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낯선 표현 방식에 대한 어색함(전형적)과 심각한 에피소드로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갈등 패턴의 고착(변동적), 한국적인 정서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안아주기를 하면서 편하지 않았던 상담자의 불편함 반영(변동적) 등이 있었다.

초기에는 그게 어렵고 부담이 됐을 수도 있는데 … 이 부부 대화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부부 대화법을 이제 프로세스대로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요청하고 반영하고, 요약 반영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익히게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참여자 10)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심각한 에피소드를 갖고 올 때는 그 에피소드만 갖고 이제 다루는데, 때로는 이마고 식의 프로세스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일단은 감정을, 그거를 좀 해소시키고 진정시키고 또 정말 그것을 마무리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소비할 때도 있어요. (참여자 2)

근데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이 안아주기가 저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연을 할 때도 이제 동료 선생님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조금 저에게 충분히 그 과정이 경험적으로 오지 않은 게. 이런 부분도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다기보다는 상담사가 제가 상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주저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특히 한국적이라고 해서 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이제 부부간에 이런 이제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상담 현장도 약간 공식적인 자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 제 경험이 그래서 그런가? (참여자 11)

남성 내담자 합류의 한계

한국 내담자에게 이마고부부치료 적용이 어려운 경험에 대해 참여자들은 남성 내담자 합류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이마고 상담에서 남성 내담자 합류의 한계로는 공감 자체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남자들이 이마고 대화에서 공감을 할 때 공감이 잘 안됨으로 인한 정서 표현의 미숙함(변동적)과 권위적인 가부장적 태도를 가진 남자들이 아내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권위적인 가부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함(변동적)을 이야기했다.

공감도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공감에 좀 부족하시고, 자꾸 생각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아서 … 굉장히 어색해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젊은 사람조차도 … 남자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한 7~8명 정도가 강도를 더 세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액션을 충분히 더 많이 하거나 하는 거에 조금 어색해하시고 불편해하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남편들 중에 이걸 설명을 드려도 되게 낯간지러워하고, 반영하기하면 특히 '무슨 장난치냐, 뭐 내가 앵무새냐'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이 남성분들이 처음에 그거, 그런 이렇게, 힘, 파워, 이 반영하기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이게 내 힘이야, 나 이 위치에 있어, 너보다 내가 위치가 우위야' 막 이랬던 분들이, 이 위치를 포기하는 것이 반영하기더라고요. 이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서, 그런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이분들한테 이 반영하기는 되게 도전적이고, 정말로 '내가 이거 내려놔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개인 혹은 관계가 가진 트라우마 영향

한국 내담자에게 이마고 상담의 적용이 어려운 경험으로 상담사가 아무리 대화를 이어나가려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사례들은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은 개인이나 혹은 관계가 가진 트라우마의 영향(변동적)과 관련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적용에 있어서 대화가 되게끔 치료사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그중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트라우마로 온 내담자들인데, 그거를 리액티브하나 한국 사람들이 더 감정적이고 보면 대화라는 걸 그렇게 조리 있게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참여자 7)

영역 6: 이마고 커플관계치료 상담사 활동이 개인 삶에 미친 영향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이 커플관계 치료사로 활동하면서 그 활동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3개의 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경청을 통해 상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개인의 성장과 상담사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미해결과제가 해결되는 부부의 성장을 경험하였고, 이마고 대화의 효과를 체험하면서 이마고 치료 개념을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여 자신의 관계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경험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마고 관계치료를 통해 상담사로서 효능감을 경험하고, 치료의 효과를 보게 되면서 이마고 상담사로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마고 치료와의 만남으로 인한 성장

상담사로서의 활동이 개인 삶에 미친 영향은 이마고 치료와의 만남으로 인한 개인과 부부관계의 성장이주요한 주제였다. 자기중심성에서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점의 변화로 인한 상담사로서의 성장(전형적)과 실제로 이마고부부치료 개념을 통해 상담사 자신의 부부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미해결과제가 해결되면서 개인의 삶과 부부관계의 성장(전형적)을 경험하였다.

결국 자기의 어떤 가치관, 판단, 편견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세계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자기 중심성에서 이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가치로 바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경청하는 것 자체가 성장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경청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성장의 시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치료사로서도 더 제가 경청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려고,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저의 이제 미해결과제 그리고 또 배우자에 대한 미해결 과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부부관계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가족 부부간의 관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이 이마고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사실

은 '안 되겠다 더이상 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그런 즈음 이마고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마고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남편과 관계가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참 성장했다, 좋아졌다, 성장했다. 정말 정말 이마고를 통해서 많이 힘이 되고 성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1)

이마고부부치료 개념을 삶에서 실천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게 되었으며, 부부관계에서 미해결과제까지 해결할 정도로 이마고부부치료 개념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이는 나와 너가 연결된 우주를 경험하였다는 말로 그 의미가 표현되었다. 이마고 치료 개념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에는 이마고 대화법의 효과를 개인과 부부관계에서 경험(변동적)한 것과 이마고를 통해 세계관과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변동적)를 이야기하였다.

개인 상담이나, 가족 커플 이런 데서 프로토콜이 주는 그 힘을 제가 이제 장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한테 이런 대화를 이끌어가거나 공감하거나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데 훈련이 잘 되도록 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저의 이제 미해결과제, 그리고 또 배우자에 대한 미해결과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부부관계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참여자 11)

이마고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것이 저를 매료시킨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마고의 세계관은 우주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너와 내가, 우리라는 거 … 연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동의가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고! (참여자 3)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의 자부심

참여자들은 이마고부부치료를 상담에서 적용하면서 상담사로서의 유능감이 커지고, 커플들이 연결되는 모습에서 의미와 보람도 느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자로서의 상담을 통해 커플들이 회복되는 경험을 함께 하며 상담사로서의 효능감이 확장(변동적)되었고 이마고 치료를 통한 커플들의 변화에서 의미와 보람을 발견(변동적)하고, 이마고 치료의 효과를 절감(변동적)하는 경험도 했다.

일단 이마고를 만나는 바람에 부부를 만날 때 굉장히 상담소에서 유능감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구를 하나 굉장한 프로세스 도구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이마고를 적용해 봤을 때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을 계속 봐오면서 오히려 더 부부 상담사한테 더 효능감을 소유하게 된 것 같고요. (참여자 12)

항상 감사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중간에 끝나고 안 오시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 끝까지 오셨던 분들은 정말 서로 칭찬해 주는 것도 해보고 안아주는 것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 작업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선물을 주신 것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자 9)

영역 7: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로서 성장을 위한 필요

한국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이 이마고 상담사로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상담사로서의 성장을 위해 더 필요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수련과 수퍼비전을 통해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자신의 삶에 이마고 개념을 적용함으로서 지

속적인 개인으로서의 성장을 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속적인 사례 공유와 연구자료를 공급받으면서 동료치료사들과의 교류하는 등의 외부 자원체계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로서의 성장

참여자들은 이마고 커플치료 전문 상담가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사가 되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부와 수련(전형적)을 통해 성장하고, 정기적으로 이마고 전문가로부터 수퍼비전(변동적)을 받으며 동료들과 함께 실습하는 충분한 임상경험(변동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도 내 안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 그냥 이마고 치료사가 되었다고 끝낼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거라고 내가 다 안다는 생각 빼고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다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된 거는 나누고 싶어요. (참여자 8)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습도 좀 하고 그거를 연습해 나가는 어떤 그런 거.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동료들끼리 이렇게 연습하고 나누고 사례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조금 더는 필요하다고 봐요. 맥을 끊지 않고 자극을 한 달에 한 번 자극만 받아도 내가 다시 가서 해봐야지. 그러고 힘 떨어지면 또 다시 가서 자극받아서 해봐야지 하다 보면 3년, 4년 갈 것 같아. 그럼 많이 성장할 것 같아. (참여자 4)

개인으로서의 성장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인 자신이 먼저 커플관계에서 배우자를 더 잘 보살피고 더 많이 표현해보는 등 먼저 이마고 개념을 자신의 부부관계에 적용(변동적)하고자 하였다. 또한 삶과 상담 현장이 구분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인격적인 모습이 치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치료사 역할의 일치성(변동적)을 성장을 위해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였다.

이마고 치료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편을 더 잘 보살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함께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같이 뭔가 하는 거 좋아하고, 이 부분 제가 시간을 더 쓰고, 같이. 정말로 이제 저희가 지금 주말 부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만났는데 … 그럴 때 제가 좀 더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더 그리워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남편에게 많이 표현하는 거, 이것을 제가 그렇게 자꾸, 이제 저희 부부 관계에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전 굉장히 경험적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야 그것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 …. (참여자 11)

저의 인격이 곧 치료자의 모습, 그대로 이콜이 될 정도까지 가려면 굉장히 더 많이 저를 수련하고, 진짜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삶, 이거는 치료적인 현장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 전 영역에서 제가 그렇게 해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의 괴리, 갭을 느끼거든요. 진정성과 진솔성,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예요. 이마고식으로 정말 일치적으로, 나의 삶 현장과 치료 현장이 거의 크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이제 제 성장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 바램입니다. (참여자 2)

외부지원체계

참여자들은 성장을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외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외부적인 지원 으로는 이마고부부치료하는 동료 치료사들과의 교류(전형적)와 상담사례 및 이마고 연구자료를 공급(변동적)받고, 어드밴드 과정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변동적)을 필요로 했다.

이마고 상담사들의 협회나 그런게 있으면 좋겠지 … 성장을 위해 협회에서 워크숍을 자주 한다든지, 치료사들과의 만남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 슈퍼바이저들의 어떤 업데이트된 그런 논문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치료사 트레이닝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8)

코로나 막 시작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이마고 치료사도 있고 각도 지부장들이 있잖아요. 이마고 지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간에 서로 교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훈련 이후에 자격 과정 이후에 정비하면서 수퍼비전을 받거나 … 뭔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이마고 협회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고 어드밴스 과정이, 좀 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딱 정기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6)

논 의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한국 상담 현장에서 이마고부부치료를 활용한 상담사들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충분하고 타당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 전문가과정을 이수하고,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전문가로서 한국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마고부부치료를 활용한 경험이 3년 이상 된 상담사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해볼 때, 기존의 이마고부부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은 치료 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증이나 내담자를 중심으로 한 치료 영향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연구 경향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현장에서 이마고부부치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담자의 경험을 통해 치료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이마고부부치료가 치료 이론으로서 가지는 치료적 요인과 그 요인이 발현되는 맥락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커플관계치료가 한국 내에서 외현적인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의 경험을 탐색함으로 그 이론과 치료적 기법이 한국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정착되어져 가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경험적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가지는 전반적인 의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이 이야기한 치료사로서의 역할 경험을 통해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가지는 효능감과의 한계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자로서의 효능감은 개인 상담이나 전통적인 커플(부부) 상담과는 다소 차별화된, 커플(부부) 관계를 매개하는 자로서의 역할에서 더 부각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된 상담 목표에 도달했을 때, 상담사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 상담의 주요한 목표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 삶의 불편감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문제해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자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가 합의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담사는 적절한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박은희, 2022). 반면, 이마고부부치료에서 상담사는 커플(부부)이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상담사는 내담자 부부에게 치료에 있어 촉진자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된다. 내담자 부부의 치료적 역동이 충분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때 이마고 상담사의 효능감은 증대된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부부가 재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내담자 부부 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부부가 안정감을 갖고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권형진, 2020).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효능감의 경험으로는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자', '돕는 조력자', '지휘하듯 조율하는 촉진자',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공감적 수용자'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상담사들은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자와 돕는 조력자에 대한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력자와 연결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관계 자체에 초점을 둔 적절한 개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홍숙(2015)의 연구와 같이 상담사는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 코칭을 제공',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주도록 인도', '대화법을 가르침', '표면적 갈등 이면에 있는 자신과 배우자의 욕구와 감정을 알도록 도움', '내담자의 이야기에 공감' 등이다. 이러한 부부 상담사의 적절한 개인 요인은 본 연구에서 이마고 치료상담사가 경험한 '조력자', '촉진자', '공감적 수용자' 경험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마고 치료사는 부부의 이마고 치료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자 경험',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공감적 수용자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한 '효능감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고 상담사는 부부 상담 현장에서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부부와 함께 존재해주면서 그들이 긍정적인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정정화, 2015)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고 상담사가 부부 상담에서 가장 큰 효능감을 경험하게 되는 동기는 갈등 있는 부부가 이마고 상담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가 다시 연결되는 결과는 상담자가 경험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 이마고부부치료 모델은 부부관계 향상에 효과적인 부부치료 모델임을 확인하였다(송정아, 2006). 민경숙 등(2022)은 이마고 상담의 탁월한 점 중에 하나는 부부가 연결이 잘 되고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상담사가 이마고 상담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고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상담은 상담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론으로만 알던 것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론이 확증되고 깊이 알게 되면서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마고 이론이 실제 상담사들이 상담하는 현장에서 실증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에서 상담사로서의 한계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부부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관계 치료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부부 상담이 자신이 기대했던 바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따른 무능감을 느낄 때 한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미화(2017)는 상담 결과가 좋고, 내담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상담사들은 유능감을 경험하는 반면, 상담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부부 상담사는 연구의 결과와 같이 좌절과 무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이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둘째, 상담사들은 이마고부부치료의 주요한 개념과 기법이 부부 상담의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마고부부치료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확신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 특히 이마고 대화에서 사용되는 반영, 인정, 공감, 부모-자녀 대화, 행동수정요청 대화법이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이마고 치료에서 사용되는 다

양한 대화 방법의 시도와 연습이 부부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김창호, 2020; 민경숙 외, 2022)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마고부부 대화를 소그룹에 적용했던 이종대(2012)는 이마고부부 대화법을 통해서 일방적이고 회피적인 기존의 대화 방식이 아닌, 반영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부부의 의사소통을 참석자들이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은 대화의 부재와 그로 인한 연결감의 손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마고 치료를 통한 부부 대화는 부부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상담사들의 경험을 통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부부의 관계 패턴을 이해하는데 '미해결과제의 치유', '이마고 짝', '축소자와 확대자' 개념을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해결된 과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인이 바로 자신의 배우자라는 것을 부부 상담의 현장에서 경험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마고부부치료의 근간이 되는 관계중심의 핵심 이론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고, 부부가 서로의 성장과 치유를 자극하는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가치와 치료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이마고 상담자는 공감적 수용자가 되어 내담자 부부에게 공감하는 자세를 갖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상담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는 상담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공감능력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권형진, 2020). 이는 엄영숙(2020)의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공감적 수용자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이마고 커플 상담자는 효능감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마고 커플 상담은 매우 효과적인 부부 치료 상담 기법일 뿐만 아니라 상담사 자신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셋째, 이마고부부치료가 이처럼 매우 강력한 부부 상담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부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일부 한계가 따르는 것을 이마고 상담사들은 경험하고 있었다. 상담사들은 이마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마고 대화 프로세스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종종 경험했고, 특성 남성 내담자가 이마고 상담에 합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 대화에 있어서 낯선 표현 방식의 어색함을 내담자들이 토로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남성 내담자들 중에는 가부장적인 태도에 과도하게 고착되어 고정적으로 인식된 남편 역할의 패턴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마고 부부 상담에 소극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담사들은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편 남성들이 이마고부부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전히 한국 남성들에게 많이 남아 있는 '정서 표현에 있어서의 미숙함'을 상담사들은 경험을 통해 지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이마고부부치료가 효과적인 상담 기법이지만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은 한국 내담자들에게 이마고부부치료가 새로운 접근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마고 치료 적용에 있어 공통적으로 이야기 된 어려운 점으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정서 표현의 미숙함이다. 한국 사회는 정서 표현에 있어서 억압되어 있는 문화에 속한다. 특히 상담에 참여하는 아내보다 남편들이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보편적인 한국 남성들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남성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하며,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체면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서를 느끼지만 표현할 수 없는 이중 구속 상태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정혜정, 2018). 이러한 요인 때문에 한국적 문화 배경을 가진 남편들을 이마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마고 상담에 참여한 남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결혼생활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존중이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박우철, 김수지, 2015). 하지만 이렇게 이마고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상담사가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상담을 이끌어 갔을 때, 치료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권형진, 2020; 김창호 2020). 본 연구에서도 새로운 대화방식을 통해 낯선 정서와 마주하면서 비로소 억압된 정서를 만나고 이를 표출해보는 전환적이고 교정적인 경험이 상담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의 이마고부부치료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와 부부관계 만족도 그리고 배우자 만족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이마고부부치료가 한국인들의 결혼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송정아, 2006), 부부 갈등 대처방식에 효과가 있다(김보겸, 2005)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한국 내담자들이 다소 이마고 대화법을 낯설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새롭고 효과가 분명한 이마고 대화법을 통해서 높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마고 대화가 가진 '동등한 입장에서 귀 기울여주는 대화', '한을 풀어주는 부모-자녀 대화' 독특한 대화 특성이 한국 내담자 부부에게 새로운 대화방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희, 임성문(2011)의 주장과 같이 한국 부부의 특징은 가장이 직장 일에 몰두되어 있고 가정에서 소외되며 무엇보다 부부간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관계 연결을 중요시하며 대화를 강조하는 이마고 치료는 더욱 한국의 부부에게 필요한 관계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랫동안 인식하는 것을 거부했던 감정과 정서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부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와 너의 상처와 취약성을 안쓰럽게 여기게' 되었고, 갈등의 요인으로 내재되어 있던 '화가 비로소 이해'가 되었으며, 자신의 욕구에 대한 표현을 격려 받을 수 있는 경험을 부부가 하게 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대화의 방식 경험과 외면했던 정서와의 접촉은 이마고 치료 기법이 한국 내담자들에게 새로운 의미에서 효과와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마고 상담사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먼저 이마고 상담의 효용성을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이마고 상담의 효과와 이를 통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이마고 상담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은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삶과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대부분 진술했다. 특히 이마고 치료법 중에서 대화법의 효과를 개인적으로도 자주 경험하는 것을 나타났고, 세계관과 삶의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변화를 경험한다고 했다. 또한 이마고 상담사로서 자부심을 경험하는데 '이마고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효능감 확장', '이마고 치료를 통해 의미와 보람 발견', '이마고 치료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프리카 이마고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이마고 치료사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탐색한 연구(Gerrand, 2010)에서 상담사의 역할은 그들의 정체성 및 인생철학의 한 부분과 연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이마고 상담사들은 상담과 자신의 삶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고 연결지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이마고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형성(Isomorphism)을 경험하는 과정과도 연결 지어 그 의미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형성(Isomorphism)은 상담자 자신의 치유와 성장이 내담자와의 성장과 치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리로, 상담사인 나의 치유와 성장이 내담자를 위한 최고의 치료적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한다(오제은, 김혜진, 2018). 연구에 참여한 이마고 상담사들은 이마고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자기 부부의 치료와 성장을 경험하고, 그러한 성장과 치료의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상담하는 내담자 부부의 성장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이야기 하고있는 것처럼 상담과 자신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이마고부부치료를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마고 상담사들이 추구하는 상장의 영역은 '전문가로서의 성장', '개인으로서의 성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고, 이 또한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관계의 추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외부의 지원 체계가 더욱 확고히 확립되길 기대하는 바람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련과 공부에 대한 필요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밖에 동료 치료사들과의 긴밀한 교류, 협회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의 경험과 그것이 가진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부부들에게 아직까지 낯선 면이 존재하는 부부 상담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는 부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확신을 이마고 상담사들은 실증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부부/커플 상담에서 이마고부부치료가 가진 타당성과 적용 및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개인 삶과 전문가로서의 활동의 일치성, 개인 및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대한 욕구들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 또한 논의될 수 있다. 지지 체계가 견고한 가운데 상담자는 효능감과 성장 경험을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노미화, 2017)에서도 말하고 있듯, 상담자의 성장은 곧 상담의 효과와도 연결되므로 이마고부부치료 상담사들을 위한 전문적 지지 체계가 견고히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반으로 이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주제와 방향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이마고부부치료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 상담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경험을 실증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런 이유에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 경험의 배경들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험으로 초점화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마고부부치료의 적용하고 있는 경험의 범위를 그 년 수나 사례 수, 그리고 상담사가 만난 커플/ 부부 사례의 특성 등에 따라 초점화하여 현장 경험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한국 상담 현장에서 적용하는 이마고 이론과 개념, 치료적 기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인 탐색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어떤 역동과 작용을 가진 과정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담사가 이론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은 이론의 풍부함을 이끌고 이는 다시 현장의 치료를 촉진한다(Gerrand, 2010)는 점을 기억할

때, 이론의 적용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권형진 (2020). 부부 갈등을 거리 두기로 표현해 온 40 대 부부의 이마고부부상담 사례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1**(2), 49-64.

김경희, 김영미, 이진희, 이윤주(2019). 초심상담자들의 상담전공 입문 전 자기 치유 경험에 관한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4**(2), 1-26.

김덕수 (2009). **이마고부부관계치료 참가후 목회자의 목회사역과 하나님 이미지 재구성에 관한 현상학적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도희, 김혁진 (2021).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동향: K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4**(2), 17-48.

김명주 (2009). **이마고와 대상관계 부부치료 통합모델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문정, 유성경 (2022). 마음챙김과 상담회기평가간의 자기효능감과 작업동맹의 다중매개효과: 상담자 조사 중심으로. **명상심리상담, 27**, 95-104.

김보겸 (2005). **심수명의 이마고 부부치료 프로그램이 부부 갈등 대처 방식에 미치는 효과.** 국제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 정선영 (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가정과 삶의질연구, 25**(5), 65-82.

김예슬 (2016).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병행한 가족미술치료가 불안정애착아 가족의 가족관계 질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인영 (2012). **사티어와 이마고 이론의 통합적 결혼예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선, 정남운 (2017).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이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능력과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603-621.

김창호 (2020). **목회자 부부의 목회관계 패러다임과 이마고 치료.**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미, 오인수 (2016). 숙련상담자의 좌절경험 및 극복과정의 구조 분석. **상담학연구, 17**(5), 159-180.

김효람 (2009). **역기능가정에서 성장한 성인아이-부부 이마고 부부치료.**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미화 (2017). **가족상담사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매거진 한경 (2021.3. 20). **이혼, 풀어야 할 '쩐의 공식' 있다**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 2022. 1. 18. 인출

민경숙, 이승현, 윤숙재, 임주리, 김사라 (2022).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사의 비대면 화상 이마고 부부상담 경험연구 -포커스그룹활용-. **부부가족상담연구, 3**(1), 43-69.

박우철, 김수지 (2015). 가족치료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문헌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3**(4), 687-710.

박은희 (2022). **상담자가 지각한 내담자의 호소문제 명확성이 상담자의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창용 (2015). **상처받은 내면아이에 대한 가족관계 이론적 접근.**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운영 (2012).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경험을 통한 부부관계 기대감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복수 (2010).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를 통한 어**

린시절 상처 인식의 변화와 배우자 이미지 재구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미아, 김지선 (2021). 부부 상담자의 외도 상담 경험 및 교육 요구. **가족과 가족치료, 29**(3), 553-583.

송정아 (2004). 대상관계가 인간의 하나님 형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8**(1), 1-14.

송정아 (2006). 이마고 부부치료 모델 내용의 타당성과 적용 효과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87-99.

신영호 (2012). **이마고 부부치료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엄영숙 (2020). **가족상담사의 역전이 경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소정 (2016). **중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제은, 김혜진 (2018). **IPCST Workbook**. ICFR.

윤아롬, 변시영, 조민경, 이겨라 (2020). 기관별 상담자 필요 역량에 대한 인식차: 상담자의 현장 경험 탐색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41**(1), 23-48. 서강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이명희 (2007). **부부치료에 관한 Imago 와 Gottman 모형 통합적 접근 모델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영 (2021). 이마고 관계치료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부부가족상담연구, 2**(1), 29-40.

이선희, 임성문 (2011). **통합적 행동 부부치료에 기초한기혼여성의 결혼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효과 검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옥선 (2011). **크리스챤 기혼여성들의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 (2017).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기독상담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기 (2017).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상담사례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대 (2012). **이마고 부부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홍숙 (2015). **부부 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효경 (2009). **이마고 부부치료를 활용한 통합적 미술치료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성숙 (2006). 한국문화에서의 부부상담: 현실역동 상담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117-131.

전소원 (2013). **이마고 기법을 이용한 음악심리치료가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교영, 신희천 (2007). 부부치료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30.

정정화 (2015).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통한 이혼위기부부의 심리적 치유과정.**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정화, 윤가현 (2018). 이혼 위기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마고 관계치료. **복지상담교육연구, 7**(2), 25-48.

정혜정 (2018).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EFT) 의 임상적 사례개념화를 위한 문화적 요인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6**(4), 591-625.

최상진 (200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재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최인재 (1999). **정(情)·우리성·체면(體面)이 문제**

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심리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2022. 8. 27). https://www.kostat.go.kr.

한국부부상담연구소(2022). https://www.couplekorea.org:4448/course/cit.html?pm=4.2.1에서 2022. 1. 18. 인출

한지수, 오서현, 최연실 (2022). 부부·가족치료에서의 공통요인(common factors)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한국과 미국의 가족치료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30**(1), 119-150.

허재경, 신영주 (2015). 여성상담자의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발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0**(4), 615-639.

홍예영, 장은진 (2019). 상담심리전공 대학생의 대인외상 경험과 상담자로서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9**(5), 147-157.

황현정, 권경인. (2021). 장기집단상담에 집단원으로 참여한 상담자의 성장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간이해, 42**(1), 1-24. 서강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Brown, R.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 *[Imago relationship therapy: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practice].*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9년 출판).

Creswell, J. W., & Poth, C. N. (2021).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Qualitative Among Five Approaches]*.(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8년 출판).

Erikson, E. H. (1950). *Eight Stages of Man.* I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Fitzpatrick, M. A.(ed)(1988). Between husbands and wives: *Communication in marriage.* New-bury Park, CA : Sage.

Gerrand, M. (2010). *Therapists' Perceptions of Their Roles and Functions in Imago Relationship* Therapy. The master's thesis of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사회과학현상 탐구의 실질적 접근-***[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2년 출판).

Hendrix, H. (2005). *The evolution of imago relationship therapy*: A personal and professional journey. In H. Hendrix, H. Hunt, M. T. Hannah, & W. Luquet (Eds.), Imago relationship therapy: Perspective on theory (p. 1334). New York: Jossey-Bass.

Hendrix, H., & Hunt, H. (1999). Imago relationship therapy: Creating a conscious marriage or relationship. *Preventive Approaches in Couples Therapy*, 169-195.

Hendrix, H., & Hunt, H. (2006). *Getting the love you want workbook.* New York: Atria Books.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Lee, M. (2022). *Development of Therapy Factors for Imago Relational Therapy.* The doctor's thesis of Daybreak University.

Luquet, W., & Hannah, M. T. (2011). **부부관계 패러다임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임상사례연구집** *[Healing in the Relational Paradigm: The imago relationship therapy casebook].*

(오제은, 이현숙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8년 출판).

Matsumoto, D. (2000). *Ca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the world* (2nd. Ed.), Belomont, CA: Wadsworth.

Stanley, S., Markman, H., Jenkins, N., & Blumberg, S. (2009). *The Prevention &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Leader manual (Version 7.0b).* Greenwood Village, Colorado: Prep Educational Products, Inc.

원 고 접 수 일 : 2022년 09월 18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2년 10월 05일
게 재 확 정 일 : 2022년 10월 20일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43-73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on the Experience of Korean Counselors Applying Imago Couple Relationship Therapy

Kim, Suk Kyung	Jeong, Hae Eun	Kim, Sin Young	Lee, Ju An	Lee, Ji Young	Jeong, Eun Young	Ha, Young Yoon
Kim Suk Kyung love Laboratory	Starshine Family Counseling Center	Korea Family Counseling Laboratory	Go-yang City Family Center	Acquire Couple Family Relationship Laboratory	Seo-Chogu Family Center	California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counselors applying Imago Couple Relationship Therapy (IRT) at the Korean counseling field. Twelve counselors who completed the Imago Couple Relationship Therapy Specialist Course and applied IRT in the field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ven domains were derived: Starting process as an IRT Counselor; Role experience of IRT counselor; Concepts and Techniques of IRT Used Importantly in the Field; The Usefulness of IRT for Korean Clients; Experience that is difficult to apply to Korean clients; The effect of the IRT counselor's activities on their own's lives; Requirements for further growth as IRT counselor. Also, categories and meanings were structured according to these domain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tudy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Imago couple relationship therapy, counselor experienc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d application in the Korean counseling field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75-8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부모 교육 연구동향 분석 : 최근 10년간 RISS에 등록된 등재(후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이 경 주* 조 영 애** 엄 형 준***

한국가족상담센터 동명대학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부모 교육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2021년에 발표된 부모 교육과 관련된 KCI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 452편 중에서 교육정책 관련 논문과 중복 기재된 연구 26편을 제외한 총 426편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키워드 827개를 추출했다. Textom과 UCINET 6을 활용하여 단어 출현 빈도를 분석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분석과 매개 중심성을 바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분석된 키워드들은 프로그램, 어머니, 부모, 개발 등이 상위에 있었으며,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부모 교육과 연구 변인들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위한 CONCOR 분석 결과 관심 대상, 대상자의 경험 요인,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변인, 관련 변인으로 4개의 하위집단으로 형성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부모 교육, 연구동향, CONCOR

* 제1저자 : 이경주, 한국가족상담센터 팀장
** 제2저자 : 조영애, 한국가족상담센터 팀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엄형준 /동명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미래융합대학
Tel : 051-629-3420 / E-mail : 328jun@hanmail.net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적 접촉을 하는 장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핵심적인 공간이다(박옥임, 2006). 이렇듯 중요한 가정에서 부모 역할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와 동시에 부모역할은 부모 당사자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성인이 수행하는 수많은 역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역할 또한 부모 역할이라는 사실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성장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모 역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여성 취업률의 증가로 인한 주양육자 부재 현상은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 부모에게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뿐만아니라, 가족 내 인간관계 중 부모 자녀관계는 더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지시하고 교육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교류 관계로서 넓은 범위의 책임과 경험을 함께하는 밀접한 관계다(김오남, 김경신, 1994). 부모 자녀의 관계는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적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아동이 앞으로 사회에서 관계들을 형성해나가는 첫 시작이 된다. 부모 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이며 자녀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인간관계이다(정수자, 1988). 부모와의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동의 정서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과 부모가 형성한 안정된 관계를 토대로 성장 과정에서 타인이나 또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신뢰와 믿음에 기반한 개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해 온 아동은 타인이나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일관하는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되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73). 이렇듯, 부모에게 전달되어 배우고 습득한 대인 상호작용 기술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리 잡은 신념과 태도, 부모로부터 느꼈던 감정 양식 등이 아동이 또래와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는 대인관계의 초석이 된다.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 역할은 출산과 함께 성인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역할로서 자녀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로서 기대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현미숙(2004)의 연구는 Holden과 Ritchie(1988)에 의해 분류된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인 부모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역할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모가 자녀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단기 욕구에 맞게 어떻게 시의적절한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한 양육역할(caregiving role)이다. 둘째, 부모가 일관적이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자녀의 하루를 조직화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역할을 인정하는 관리역할(management role)이다. 끝으로, 앞의 두 가지 기본 역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장 후 유능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아동 발달의 촉진을 위한 발달 자극역할(nurturing role)이다.

이렇듯 중요한 부모 역할에 비해,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인해 부모로서 역할 수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혼 가정 등 다양한 부모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가족의 특성에 따라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르므로 각 부모 상황에 따른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의 예방 차원에서도 부모의 바람직한 자녀 가치관 및 양육 능력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부모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이재연, 윤선화 2004).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부모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이와 맞물린 부모로서의 부담이 증가 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때 부모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그로 인해 부모자녀 간 대화가 단절되거나 심지어는 아동학대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부모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각자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교육사전(한국유아교육학회, 1997)에서는 '성인 또는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성인교육'이라고 하였고, 장대운(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 교육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부모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부모 교육자와 부모, 예비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교육문제와 자녀교육문제를 내용으로 포함한 다양한 교육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활동'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반면, 김재은과 그 동료들(1988)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모 자질을 갖추어서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효과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라 하였고, 김진영, 김정원과 전선옥(2009)은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 가능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부모 교육에 대해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부모 교육 형태 또한 부모 상담, 수업참관, 가정통신문, 행사 참여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김수희, 최윤정, 2014).

더불어, 이러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모든 성장과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은 일생동안에 걸쳐 지속되므로(정계숙 외, 2012), 생애 초기인 영유아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자질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이 생애 초기에 습득한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며, 생애 초기 아동의 경험 습득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모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가 적절한 양육태도와 가치관을 교육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둘째, 가족이 축소되어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 되어지면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대가족이 대부분이었던 가족 구조에서 핵가족이 대부분인 사회 구조로 변화하면서, 기존에는 부모 또는 대가족 안에서 습득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연히 줄어들었다(이순형 외, 2010). 또한, 인터넷, 육아서적, 대중매체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나 다양화되었지만,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김수희, 최윤정, 2014), 부모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셋째, 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도 외국의 많은 국가와 비슷한 다양한 가족 형태와 부모 자녀 사이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각기 다른 상황과 입장의 부모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필요하고 적합한 양육 지식 및 부모 자녀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족과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 양육자의 부재, 이혼으로 인한 재혼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구조의 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고(정계숙 외, 2012), 다양한 가족 유형에 필요하고 적합한 부모 교육의 요구를 수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에 대해 부모들이 이해하고 협조하여 원활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교육기관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여 가정에서도 가치에 대한 가정교육을 병행할 때, 교육의 효과가 크다(이순형 외, 2010).

끝으로, 자녀가 올바른 양육을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 성장 과정에서나 성장 후 자녀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예방 차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있다(Weissberg, Kumpfer, & Seligman, 2003).

서두에 기술한 부모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게재된 부모교육에 대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부모교육 연구가 주제별로 어떠한 상호 연관성과 지식구조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전통적인 문헌연구방법을 보완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윤진아, 김수진, 서혜애,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 후 분석하여 새로운 관점 및 방향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이다(최진혁, 박재국, 김민영, 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파악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특정 키워드와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들의 관계를 분석한다(최영출, 박수정, 2011).

또한 키워드들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노드들 사이의 연결된 정도나 한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른 노드 들 간의 매개 역할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분석지표를 제시함으로써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연구주제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조남옥, 조규락, 2017). 키워트 네트워크는 특정한 개념들의 빈도만을 고려하여 의미를 찾고자 했던 기존의 내용분석과는 다르게 특정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고 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키워드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덕호, 이준기, 김선은, 박경진, 2013).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인하여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혼율의 증가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사업 구조 변화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화가 가속화된 시기이며, 문화 가족정책뿐만 아니라 학부모지원센터,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양적으로 확장한 시기이다(이순형 외 2011).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부모 교육 연구의 지식구조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부모교육 후속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시대적 요구는 급변하고, 다문화 가족,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정계숙 외 2012).

지난 2016년 3월, 관계부처 협동으로 진행 중인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연장선으로 여성가족부는 2017년을 '부모 교육 정착의 원년'으로 정하여 맞춤형 부모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조치는 과거의 부모역할과 아동의 양육방법으로는 지금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족 환경의 변화, 청소년 문제, 청년 실업 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확인된다(김영주, 2011; 박선주, 2015; 이사라, 권정임, 이혜린, 2009; 한경님, 2012).

관계부처 합동(2016)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하의 330여 개의 기관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연구소,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간기관에서도 부모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 중이다. 하지만 부모 교육의 인식과 체감도가 높지 않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부모 교육 연구는 부모코칭, 부모역량 등을 연구주제로 확장하여(이명숙, 2011; 이명순, 고여훈, 2016; 정대현, 신원애, 2012) 계속하여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부모 교육에 관한 접근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부모 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과 함께 기초적 동향분석을 실시하면 부모교육 연구의 주요 키워드를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용이하고, 키워드간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은 부모교육 연구에서 다른 키워드에 영향력이 큰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데 유용하여 부모 교육 관련으로 선행된 동향분석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김영환, 정주훈, 강두봉, 박경민, 김상미, 2015; 이수상,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426편의 부모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교육 연구에서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고, 그러한 주제별 키워드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논문별 출현 키워드의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부모 교육의 연구 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의 시대별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부모교육 관련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 다가오는 시대에 적합한 부모 교육 관련 연구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최근 10년 사이에 부모 교육에 관한 논문의 기초적 출판경향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둘째, 최근 10년 사이 부모 교육에 관한 논문에서 출현하는 주요 주제어 빈도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방 법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부모 교육과 관련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RISS의 학술논문 검색기에서 '부모 교육'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둘째, 첫 번째 RISS의 검색 결과를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제목, 저자, 학술지명 등의 상세정보와 APA 참고문헌 양식을 Excel 파일로 저장하였다. 셋째, 두 가지 Excel 파일에서 논문 제목과 국문 초록에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위의 수집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부모교육과 관련된 KCI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452편 중에서 교육정책관련 논문과 중복 기재된 연구 26편을 제외한 총 426편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처리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에 선정된 426편의 논문에서 제목과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에서 코딩 작업을 통하여 추출된 키워드 수는 총 827개이고, 추출된 키워드는 정제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

표 1. 정제작업의 예시

정제 단계	정제 내용	예	
		처리 전	처리 후
교정작업	띄어쓰기	부모 교육	부모 교육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진단명 표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통제작업	유사어 통제	향상, 증가, 상승	향상
	협의어 통제	부모훈련, 부모상담, 부모 교육	부모 교육
제거작업	일반어 제거	효과	제거
		연구	제거

의 정제작업은 이수상(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정작업, 통제작업, 제거작업의 세 단계로 실시되었다. 첫째, 교정작업은 관사와 접속사, 복수형 등을 제거하고 명사를 선택하였고, 띄어쓰기 등을 교정하였다. 둘째, 통제작업에서는 유사어, 협의어, 광의어 등을 통제하여 적절한 단어를 채택하였다. 단어 채택 시, 상담학 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적절한 일반성과 포괄성이 높은 단어로 통일하였다. 셋째, 제거작업은 분석결과의 타당성 향상을 위해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이지만,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적 의미 이거나 너무 협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정제작업의 예시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종으로 선정된 분석대상 논문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Textom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UNICET6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고품질의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며, 텍스트 자료의 구조화를 통해 패턴 도출 및 결과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술이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4).

사회연결망 분석은 행위의 주체가 의미하는 개체(node) 및 링크(link)를 활용한 사회연결망 모델링(modeling)으로 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특징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Scott et al., 2007). 먼저 텍스톰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한 후, UCINET 6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인 중심성(Centrality) 및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의 경우 연결망 내에서 특정 개체가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Freeman. 2008), 그 중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CONCOR 분석은 노드(단어)들 간의 관계 패턴을 도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하위그룹 관계의 구조적 분석에 활용된다(손동원, 2002).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하여 키워드의 출현빈도, 노드와 노드의 연결 특성을 나타내는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출현빈도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분석 단어가 특정 문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TF-IDF, , 시각화는 키워드의 출현빈도, 출현빈도와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CONCOR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였다.

표 2. 시기별 논문 편수

시기			시기 1				시기 2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논문수	38	67	47	63	75	58	37	37	39	35
시기별 논문수			290					136		
비율			68.1%					31.9%		

결 과

기술적 분석 결과

분석대상인 426편의 부모 교육 연구논문의 시기별 게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부모 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은 37% 감소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부모 교육 논문은 10년 중 전반기인 시기1(2012년~2016년)에서는 총 290편(68.1%)이 게재되었고, 후반기인 시기2(2017년~2021년)에서는 154편이나 감소한 총 136편(31.9%)의 부모 교육 연구가 게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키워드 및 출현빈도

부모 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피기 위한 전체 빈도 네트워크에서 키워드 출현빈도 분석결과 부모 교육 370회(14.9%), 프로그램 199회(8.0%), 어머니 80(3.23%), 개발 67회(2.7%,), 부모 67회(2.7%), 자녀 31회 (1.252)로 나타났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출현빈도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표 3에서 제시하고, 전체 워드 크라우드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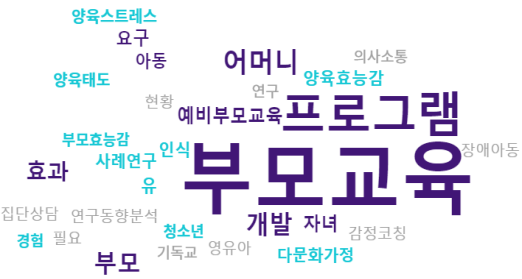

그림 1. 부모 교육 출현빈도 상위 30단어 워드 크라우드

표 3. 부모 교육 키워드 출현빈도

순번	키워드	출현빈도	순번	키워드	출현빈도	순번	키워드	출현빈도
1	부모 교육	370	11	인식	21	21	집단상담	12
2	프로그램	199	12	양육 효능감	19	22	기독교	12
3	어머니	80	13	양육 스트레스	15	23	현황	11
4	개발	67	14	다문화 가정	15	24	연구동향 분석	11
5	부모	67	15	사례연구	15	25	장애 아동	11
6	효과	52	16	양육 태도	14	26	감정코칭	10
7	자녀	31	17	청소년	14	27	영유아	10
8	예비부모 교육	28	18	부모 효능감	14	28	교류분석	9
9	요구	24	19	경험	13	29	유아	9
10	아동	22	20	의사소통	13	30	그림책	9

표 4. 전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및 TF-IDF

연결중심성 분석		매개중심성 분석		TF-IDF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부모 교육	2.972	프로그램	0.107	프로그램	151.4658
프로그램	1.877	어머니	0.049	어머니	137.8965
어머니	0.925	부모	0.038	부모	127.0023
부모	0.682	개발	0.024	개발	123.933
개발	0.617	효과	0.026	효과	109.3662
효과	0.474	자녀	0.018	자녀	81.23402
자녀	0.351	예비부모 교육	0.013	예비부모 교육	76.22258
양육효능감	0.256	요구	0.009	요구	69.03325
아동	0.238	아동	0.01	아동	65.19473
요구	0.233	인식	0.008	인식	63.20826

전체 네트워크 중심성 및 TF-IDF

부모 교육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Textom을 활용하여 전체 네트워크에서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TF-IDF를 파악하였고, Ucinet 6을 활용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중심성 분석 결과 중 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이는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는 노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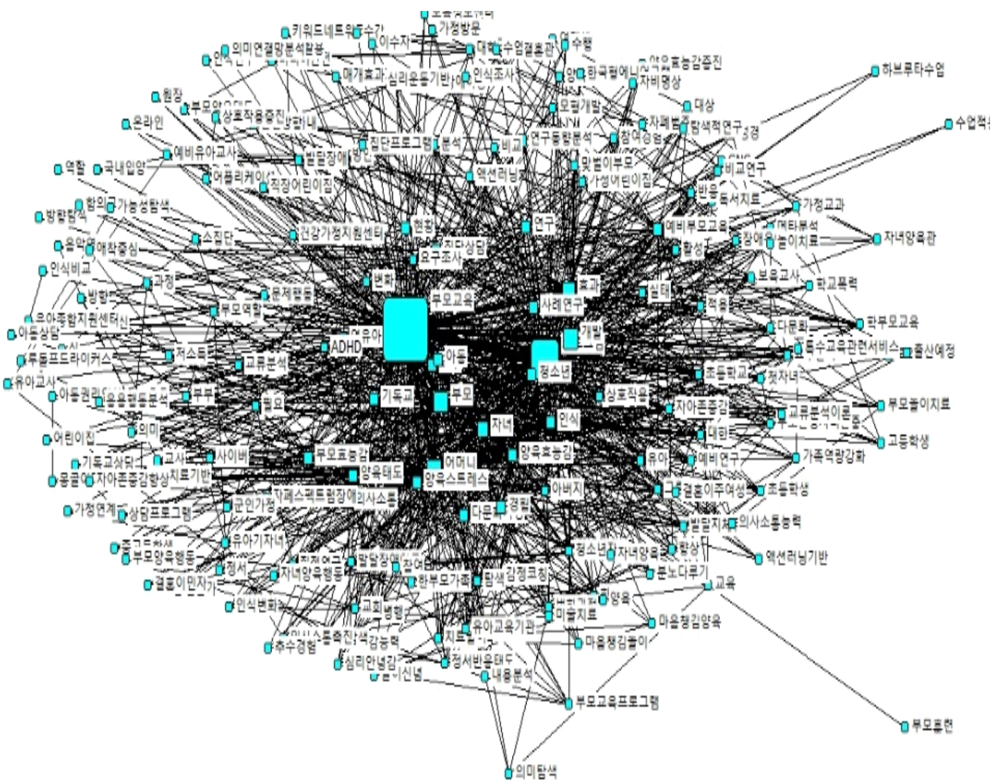

그림 2. 전체 네트워크 시각화

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부모 교육(2.972), 프로그램(1.877), 어머니(0.925), 부모(0.682), 개발(0.617)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단어들과 근접하여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안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다리 역할, 즉 매개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에 대한 분석은 프로그램(0.10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어머니(0.049), 부모(0.038), 개발(0.024), 자녀(0.0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여러 키워드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F-IDF는 출현빈도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역할을 하는지 나타내는 수치이다. 그 결과 프로그램(151.5)이 가장 높은 TF-IDF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머니(137.9), 부모(127.0), 개발(123.9), 효과(109.4), 자녀(81.2), 예비 부모 교육(76.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 10개 키워드에 관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과 TF-IDF의 결과치는 표 4로 제시하였다. 시각화 자료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전체 네트워크 CONCOR 분석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의 하위 네트워크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적 등위성 분석방법의 하나인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은 키워드 간의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통해 간접적인 연결패턴을 상관계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유사집단을 식별해 내는 분석기법이다. 연결망 내의 노드(node)들이 어느 정도 같은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조적 등위성을 분석하여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숨겨진 하위영역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유사성 집단을 확인하여 비슷한 영역들의 등위적 계층을 찾아내는 것이다(김용학, 2016).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이란 연결망 내의 노드들이 서로 어느 정도 같은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이 구조적 등위성을 보일 경우 비슷한 형태를 가질 확률이 높기때문에 구조적 등위성 분석은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특성이 비슷한 블록들의 등위적 계층을 찾아내는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숨겨진 하위블록들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등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사용하였다(김영학, 2016).

부모교육 키워드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4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첫째, 발달장애아동, 품행장애 청소년, 영유아, 한부모, 재혼가정, 교육기관, 발달장애, 어린이집 등의 단어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관심 대상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운영, 부모, 어려움, 노력, 요구, 원리 고찰, 합의적 질적연구, 경험 인식, 참여 경험, 역할 등의

표 5 . 전체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군집		키워드
1	관심 대상	발달장애아동, 품행장애 청소년, 영유아, 한부모, 재혼가정, 교육기관, 발달장애, 어린이집 등
2	대상자의 경험 요인	운영, 부모, 어려움, 노력, 요구, 원리 고찰, 합의적 질적연구, 경험 인식, 참여 경험, 역할 등
3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변인	프로그램, 개발, 문헌고찰, 효과, 적용과정, 방향 모색, 놀이 치료, 메타분석, 적용, 인지행동치료 등
4	관련 변인	보육과정, 양육스트레스, 힘의 고찰, 부모역할, 생활사건 스트레스 의사소통 상담 사례연구, 부모 양육태도, 부모 정체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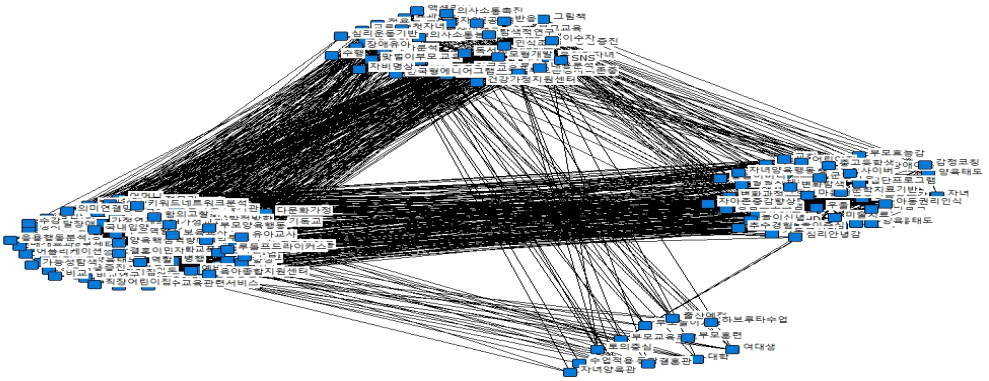

그림 3. 전체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단어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대상자의 경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 문헌고찰, 효과, 적용과정, 방향 모색, 놀이 치료, 메타분석, 적용, 인지행동치료 등의 단어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변인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보육과정, 양육 스트레스, 힘의 고찰, 부모역할, 생활사건 스트레스 의사소통 상담 사례연구, 부모 양육태도, 부모 정체성 등의 단어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관련 변인으로 명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의 군집 분류는 표 5와 같고, 시각화 자료는 그림 3에 지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부모 교육에 관한 논문의 연구시기별 게재 동향을 시기1(2012~2016년)과 시기2(2017~2021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부모 교육 연구에 나타나는 주요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중심성,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키워드 간의 관계와 구조의 분석을 통해 부모 교육 연구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 부모 교육에 관한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 간 부모 연구에 대한 논문의 전체 네트워크의 지식구조에서 주요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프로그램, 어머니, 개발, 자녀, 예비부모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10년간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게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교육에 관한 연구가 특정 발달 단계에 있거나 ADHD와 같은 특수한 특성을 가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자녀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특이한 점은 예비부모 교육이 28회로 출현 빈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로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지속적이고 충분한 양육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기에 예비부로는 위한 예비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은미(2017)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의 동향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값이 동시에 높게 나타

나는 주요 키워드는 출현 빈도와 유사하게 프로그램, 부모, 개발, 자녀, 예비부모,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부모 교육에 대한 연구들에서 하나의 독립된 주제인 동시에 다른 연구주제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모 교육을 실시 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인 부모나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보다는 집단상담과 같은 형식의 집단 교육의 형식의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가 실시됨에 있어서 특정 교육관이나 교육학 이론, 교육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지기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의 대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CONCOR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교육에 대한 연구의 하위 네트워크는 관심 대상,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험 요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변인, 관련 변인으로 4개의 군집으로 이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 대상 연구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성이 높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대상과 효과적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개별적인 연구에서는 부모 교육을 통해서 양육 효능감과 같은 변화 시키고자 하는 변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부모 교육 연구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의 전반의 지식 구조를 분석하고, 키워드 간의 구조와 관계를 밝힘으로써 향후 부모 교육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의 수집 과정에서 부모 교육에 관한 학위논문을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지은 이유는 학술지 논문은 학위논문에 비해 연구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가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서 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부모 교육 연구의 동향의 일반화하기 어렵다. 추후 부모 교육 관련 분야의 학위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한다면 더욱 심도 있는 지식구조 및 연구 동향 파악으로 일반화하기 유용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중심성 파악과 전체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구조적 특성만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하위 구조별 키워드 빈도와 중심성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이러한 한계점과 보완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일반적인 동향분석과 다양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관계부처 합동(2016).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886

김경신, 김오남 (1994).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와 역할갈등. **생활과학연구, 4,** 15-28.

김수희, 최윤정 (2014). **부모교육**. 경기: 공동체.

김영주 (2011).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모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KEDI] 한국교육, 38**(1), 0-0.

김영환, 정주훈, 강두봉, 박경민, 김상미 (2015). [평생학습사회] 의 연구주제 변화 동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평생학습사회, 11**(1), 291-315.

김영환, 정주훈, 강두봉, 박경민, 김상미 (2015). 『평생학습사회』의 연구주제 변화 동향 분석. **평생학습사회, 11**(1), 291-315.

김재은, 김갑주, 문영주 (1988). **취학전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용 VTR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진영, 김정원, 전선옥 (2009). **영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김진영, 김정원, 전선옥 (2016). **(영유아를 위한) 부모 교육**. 서울: 창지사.

박선주 (2015). 한부모 가족 부모의 부모교육 현황 및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여성연구논총, 17**, 99-127.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박옥임 (2006). 농촌 조손가족의 생활실태와 청소년의 행동특성.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 103-103.

윤진아, 김수진, 서혜애 (2016). 2010~2015년 사회네트워크분석 (SNA) 방법 활용 국내외 영재교육 연구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26**(2), 347-363.

이명숙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안. **한국가족복지학, 16**(3), 209-224.

이명순, 고여훈 (2016). 영아부모 양육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부모역량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435-456.

이사라, 권정임, 이혜린 (2009).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연구: 학령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보육학회지, 9**(4), 1-23.

이수상 (2012). 도서관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과 미국의 대학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347-372.

이순형, 민하영, 권혜진, 정윤주, 한유진, 최윤경, 권기남 (2010).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이재연, 윤선화 (200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탐색. **아동과 권리, 8**(2), 235-250.

장대운 (1997). **부모교육학의 본질. 한국부모교육학회(편)**. 부모교육학 (pp. 1-42). 서울: 교육

정계숙, 문혁준, 김명애, 김혜금, 심희옥, 안효진, ... 한세영 (2012).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정대현, 신원애 (2012). 부모코칭역량의 구성요인 탐색 및 검사도구 개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1), 181-208.

정덕호, 이준기, 김선은, 박경진 (2013).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교육과정 목표와 교과서 학습 목표와의 일치성 분석-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지구과학 I을 중심으로. **한국지구과학회지, 34**(7), 711-726.

정수자 (1988). **부모 - 자녀 간의 대인관계유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미 (201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부모교육연구, 14**(1), 5-19.

조남옥, 조규락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담학연구] 의 연구동향과 지식구조 탐색. **상담학연구, 18**(2), 1-19.

최영출, 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분석.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최진혁, 박재국, 김민영 (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자폐성장애 진단 관련 연구 동향 분석: 2011-2020 년까지 발행된 국내 전문학술지 중심으로. **행동분석 · 지원연구, 8**(1), 115-135.

한경님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71-190.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4). **2014 데이터베이스백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유아교육학회 (1997). **유아교육사전**. 경기: 한국사전연구사.

현미숙 (2004). 유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 (Pls) 의 개발. **아동학회지, 25**(6), 15-34.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Lawrence Erlbaum. New York: Psychology Press.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London: The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Freeman, L. C. (2008). Research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1st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128511.

Holden, G. W., & Ritchie, K. L. (1988). *Child Rearing and the Dialectics of Parental Intelligence*. In J. Valsiner(Ed), Parental Cognition and Adult-Child Interaction. 30-59. New Jersey: Ablex.

Scott, N., Baggio, R., & Cooper, C. (2007). *Network analysis and tourism from theory to practice.* Cromwell press.

Weissberg, R. P., Kumpfer, K. L., & Seligman, M. E. P. (2003). Prevention that works for children and youth: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8*(6-7), 425-432.

원 고 접 수 일 : 2022년 09월 15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2년 10월 07일
게 재 확 정 일 : 2022년 10월 20일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75-88

Analysis of Parent Education Research Trends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 Focusing on the thesis of the registered (candidate) academic journal registered in the RISS for the last 10 years -

Lee, Kyung-Joo, Cho, Young-Ae Um, Hyung-Jun

Korea Family Counseling Center Tongmy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parent education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using big data. To this end, a total of 426 articles in KCI-listed (candidate)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parental education published in 2012-2021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827 keywords were extracted. Using Textom and UCINET 6, the frequency of word appearance was analyzed and the network was visuali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Keyword Network Analysis, parent education, research trends, CONCOR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89-109

내면아이치료 중심의 통합적 단기상담 질적 사례연구: 불안을 주호소로 하는 애착외상 내담자를 중심으로

윤 상 용*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한 애착 외상의 영향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상담 경험을 탐색하고, 내면아이치료 중심의 통합적 상담 접근이 애착방식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애착 외상으로 불안을 호소하며 지역 센터에 방문한 중년 여성 내담자 두 명에게 내면아이치료 중심의 통합적 상담 기법을 적용하여 총 8회기 상담을 진행한 기록과 6개월 후 심층면접을 진행한 자료들을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질적 사례연구방식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내면아이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단기상담이 아동기 경험한 애착외상과 관련된 불안을 주호소로 하는 내담자들의 변화와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내면아이치료, 통합적 단기상담, 질적 사례연구, 불안, 애착외상,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윤상용 /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상담사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5층 / Tel : 070-4159-2031 / E-mail : sizipuse@naver.com

우리는 사회문화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확실성의 부재, 예측 불가능성의 확대로 오늘날 현대인 대부분은 사회가 통제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며, 과거보다 위험하고 혼란스럽다고 여기고 있다. Ernst-Dieter Lantermann(2019)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성의 약화로 발생한 개인화와 경제 인프라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직업적 불확실성이 불안한 심리 상태를 자극하고, 나아가 고질적인 만성 불안을 야기한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며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특히 생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양미라, 김혜숙, 2020),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내·외적 촉발요인으로 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에게 불안은 기본적이고 필연적인 감정이다. 철학의 한 사조인 실존주의는 세상 속으로 기투(企投)된 인간이 질병, 죽음, 사고 등의 유한성과 무력감을 경험할 때 실존적인 불안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철학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불안은 '세계-내-존재' 자체로서 나오기 때문에 실존하는 인간은 항상 불안에 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며, 불안이 현존재의 근본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다(문 선, 2019). 이렇듯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 중 하나인 불안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권석만, 2013). 정상적인 불안(normal anxiety)은 불쾌하고 위험한 느낌을 경험하게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험이나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안전함을 확보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위협한 상황이나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반응이 지속된다면 과도한 경계태세로 오는 긴장과 예측하여 방어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의 과활성화로 인해 삶의 질적인 하락이 동반되는 병적인 불안(pathological anxiety)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상범주를 넘어선 불안을 다루고,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 하락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다양한 치료적 개입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안 치료로는 항불안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노출치료(ERP) 및 체계적 둔감법을 사용하는 행동치료, 기존의 행동치료와 인지치료가 결합된 인지행동치료(CBT) 등이 있다. 그 중에 심리상담적 개입을 통해 불안을 다루고자 했던 최근 시도들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도구를 이용한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곽진영, 하은혜, 2015; 윤승주, 2009; 홍재형, 2019), 인지행동치료 및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인 마음챙김명상을 기반으로 한 수용-전념치료(ACT)가 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권성일, 정현희, 2014; 이선영, 안창일, 2012; 허신무, 이봉건, 2016). 또한 표현예술치료의 한 분야인 무용, 동작치료는 신체 움직임의 표현 수단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어서 효과성이 입증되어 마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김현진, 김나영, 2006; 류분순, 2000; 이주연, 박경, 2018).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놀이나 미술치료를 통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불안 변화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관계 속에서 성장과 성격발달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기보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국소적이며, 심리치료의 고유 기능인 통찰 및 의미 획득이라는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인간은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발달과정 중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을 고찰해야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적절한 치료개입 방안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 애착관계에서의 좌절이나 실패경험에서 발생하는 애착외상과 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불안에 주목

할 필요가 있는데, 아동기는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성격발달 및 사회성을 습득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불안의 원인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주 양육자와의 애착과 애착외상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이런 영향으로 발생한 불안의 치료적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애착은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불안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특별하고 중요한 타인에게 근접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따라서 성인기에서도 각 개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 갈등 상황에 처했을 경우 획득된 특정 애착 유형에 따라 대처하고, 이러한 대처방식이 대인불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은정, 원호택, 1997). 이처럼 생애 초기 부모와 상호작용하며 체득된 관계를 통해 자기가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한 신념과 기대라는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는데, 부모 및 양육자가 아이의 애착 반응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거나 방치, 방임, 학대와 같은 심각한 경험을 하게 되면 애착외상이 발생하게 된다.

Adam, Sheldon-Keller와 West(1996)는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린 시절 애착인물과의 관계에서 외상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애착외상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였다. 애착외상과 불안에 관한 선행연구(박은정, 2013; 하진의, 2013)에서는 아동기 때 경험한 애착외상이 성인 불안정애착으로 이어지며 스트레스 및 우울 및 대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 폭력이나 억압, 부모의 냉소적 양육 태도 등의 부적절한 양육환경 속에서 자란 성인들은 거짓된 자아 또는 상호 의존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상처받은 내면아이' 라고 부르며(김영신, 2008), 이러한 '상처입은 내면아이'에 주목하여 다루는 것은 애착외상에서 비롯된 불안을 다루는데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내면아이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아이의 상태를 말하는 것(김은아, 2016)으로 오제은(2005)은 내면아이를 마술적인 아이(magical child), 창조적인 아이(creative child), 흥겹게 노는 아이(playful child), 영적인 아이(spiritual child) 등의 다양한 내면아이 개념들을 소개하며, 내면아이치료가 내담자 개인의 치유와 성장을 이루며, 강력하고 결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타 심리치료와 차별화되어있다고 하였다. 또한 내면아이치료사인 Bradshaw(2004)는 어린 시절의 외상과 학대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할 수 없기에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지며, 어른으로서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내면아이상담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인, 부부, 집단(박영현, 박승민, 2005; 이진경, 황경애, 2020), 그리고 종교 및 영성(오제은, 2011; 최광현, 2013; 최금순, 2017)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면아이치료는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큰 영향을 받아 심리사회적 8단계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사용하고 있는 내면아이치료는 Bradshaw(2004)가 개발한 '상처받은 내면아이치료' 모델로서 에릭슨의 8단계를 활용, 도입하여 그 발달단계마다 그 당시 상처받았던 내면아이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이는 통찰적인 치료로 20회기 이상의 장기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최근 인형 및 만화·에니메이션과 같은 매체를 활용(박진수, 박광현, 2020; 박혜리, 2016; 최광현, 2014)한 연구를 보면 8회기에서 11회기라는 단회기에 진행된 통합적인 내면아이상담이 내담자들의 우울 및 불안해소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내면아이치료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상담의 단기 치료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불안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심리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심 또한 높아져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상담비용과 아울러 상담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여 단기상담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단기상담은 학교와 기업, 군, 개업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임향빈, 2018). 전요섭(2006)은 단기상담 기간에 대해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단기상담의 횟수에 대해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에 있어서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단기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통상 10회기를 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기상담은 치료효과, 상담비용, 치료기간 등을 절약할 수 있어서 내담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상담현장에서는 이러한 단기상담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상담의 방향도 과거 원인을 탐색하기보다는 문제해결 중심적인 개입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이 증가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애착외상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 즉 불안의 원인에 대한 깊은 탐색과 통찰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상담이 가진 제한점을 보완하여보다 근본적인 애착 및 미해결 과제(내면아이)를 다룰 수 있는 통찰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안을 경험할 때 정서적인 긴장 방출 및 이완을 위한 심신치료라는 부분까지 아우르는 치료모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상담현장에서의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를 고려할 때, 아동기 애착외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인애착과 관련된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이 지역사회 상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과 변화를 먼저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아이치료 기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단기 상담개입을 시행한 사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 상담센터에서 통찰 중심의 단기상담의 적용 가능성을 살핀다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세밀하게 탐색해보는 것이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하에 사례연구를 본 연구의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기에 경험한 애착외상과 성인기 불안 호소와의 관련성, 내면아이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단기상담 개입이 내담자의 애착 방식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상담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중심의 상담센터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개입방법을 개발, 제안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과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아이치료 중심의 통합적 단기 상담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호소한 불안의 내용과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참여자들은 통합적 단기상담을 통해 어떤 변화를 나타내었고, 관련된 치료적 요인 무엇인가?

방 법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중년 여성 2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호소하는 불안의 경험과 의미, 통합적 상담 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드러내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다양하게 복잡하게 일어나고 현상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관점을 견지한다(최지영, 2012). 이를 토대로 일상을 기록하고 행동의 의미를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을 바탕으로(조용환, 1999) 삶의 맥락 속에 나타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들을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지어진 체계'나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다(Creswell, 2015). 무엇보다도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부분들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안에서 방대하고 다양한 양의 정보를 통합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이 호소하는 불안의 증상 측면뿐만 아니라 원가족에서의 애착관계와 성장과정 그리고 치료적 개입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

참여자 1

참여자 1은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며, 상담대학원에서 심리 상담을 전공 중이다. 현재 가족은 남편과 자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가족에서는 1남 1녀 중 장녀이다. 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도박중독으로 인해 교도소 복역까지 하였다. 10년 전 심장질환으로 수술도중 사망하셨는데, 참여자 1은 부에 대한 죄책감으로 회한이 많다고 회고하였다. 모는 부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가장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부부관계 불화에서 나타나는 분노, 원망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투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아이'로 자라며, 외가의 사촌오빠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오히려 부모님은 참여자 1의 처신을 탓하며 외면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심화되었다. 최근 들어 첫째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걱정에 호흡곤란, 심장항진 등의 불안감이 발생,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여 2021년 3월 초부터 통합적 상담을 시작하였다. 초기 상담에서 호소하는 불안의 증상과 원인을 탐색하던 중 어렸을 때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인지하여 가계도 및 Beck, Epstein, Brown, Steer(1988)가 고안한 BAI(Beck Anxiety Inventory)를 육성필과 김중술(1997)이 한국판으로 수정한 척도와 Fraley, Waller 및 Brennan(1988)이 문항반응 이론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을 김수정(2010)이 번안한 성인애착유형검사(PCR-R)를 실시하였는데, 나타난 결과는 표 1에서 보듯 심한 불안 및 불안정애착유형 중 혼란형애착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2

참여자 2는 현재 40대 초반의 전업주부로 자녀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치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평소에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며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불안이 엄습하면 손발에서 땀이 나고 심장이 과도하게 뛰며 숨을 쉬기가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고 매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해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 잦았다. 원가족구성은 부모 및 3녀 중 막내이다. 부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자신의 말이 '법' 이라고 여겨 모와 잦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다. 평소에 말수나 감정표현도 무척 적지만 술만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사항 및 사전 심리검사결과

사례번호	성 별	혼인여부	나이	이전상담경험	BAI(사전)	ECR-R(사전)
1	여	기혼	40대 초반	있음	29점(심한 불안)	혼란형애착
2	여	기혼	40대 초반	없음	28점(심한 불안)	혼란형애착

먹으면 잔소리도 많아지고 집안의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언행이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안사정으로 돌이 지나 7세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모 집에 기거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말썽부리지 않고 잘 지내야한다는 '눈치 보는 아이'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이모 집에 기거하며 모르는 어른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 이후로 충격과 공포심, 불안으로 자주 얼어붙었으며(부동화), '자책하고 위축되는 아이'의 감정으로까지 압도되어 기억과 감정을 분산, 억압(해리)하는 생존기제가 작동되어 고통스러워하였다. 21년 4월초 상담 신청 당시 접수상담에서 참여자는 가슴이 조여 오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극심한 불안 증상이 나타나 직접 센터로 방문하여 고통을 호소하였다. 참여자 1과 동일하게 초기 상담에서 호소하는 불안의 원인 및 증상을 살펴보기 위해 Beck, Epstein, Brown와 Steer(1988)가 고안한 BAI(Beck Anxiety Inventory)와 Fraley, Waller 및 Brennan(1988)이 문항반응 이론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을 김수정(2010)이 번안한 성인애착유형검사(PCR-R)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에서 보듯 극심한 불안과 혼란형애착유형으로 나타나 가계도 탐색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살펴보았다.

통합적 단기상담

통합적 단기상담 구성을 위한 주요 개념

애착외상치료

애착이론의 선구자인 Bowlby(1969)는 '애착'이 생애 초기에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 했다. 미숙하고 취약한 영아는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배고픔이나 배설, 신체적인 고통 등을 느낄 때처럼 불안함을 경험할 때 자동적으로 애착대상(보호자)를 찾아 안정감을 획득하려고 한다(김수정, 2010). 하지만 양육자의 적절한 보호 및 돌봄이 아닌 학대나 방임 등이 지속된다면 불안은 가중되고 이는 삶 자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압도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릴 적 양육자와의 관계에서의 학대경험은 정서 조절의 어려움 및 혼란스러운 정체성,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Allen(2010)은 이를 가리켜 '애착외상'이라 불렀으며 외상 중 개인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yons-Ruth, Dutra, Schuder와 Bianchi(2006)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이루고, 오랜 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심각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 아동기 애착외상을 '감춰진 외상'(hidden trauma)이라고 하였으며, 신체적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보다는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적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정신적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애착외상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안에 대해 Fonagy(2006)는 '정신화(Mentalization)'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정신화(Mentalization)'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중재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깨닫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성찰적 기능과 그에 따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통찰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Wallin, 2010)에 성찰적 기능 활성화로 인해 과거 자신의 애착에 문제와 현재를 분리하고 개별화할 수 있어 수용력이 향상된다(박찬란,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정신화(Mentalization)' 향상을 위해 성인애착유형검사(PCR-R) 실시와 해석, 가계도를 통한 원가족 탐색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외상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촉진하였다.

내면아이치료

'내면아이'는 우리의 인격 중에서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으로, 감정을 우선시하는 직감적

인 본능을 말하며, 핵심자아, 타고난 인격이다(Erika, Chopich, & Margaret Paul, 2013). 내면아이의 개념은 인류의 역사상 오랜기간 동안 존속해 왔는데, 고대 수도원에서 영성수련을 할 때 상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도록 가르쳤다는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어린 시절 누구나 양육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양육 및 돌봄, 정서적 지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역기능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발달과정에 따른 욕구가 미충족되었거나, 감정을 수용 받지 못했을 때 이로 인해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가슴에 품고 자란 성인은 상호의존증, 공격적 행동, 자기애성 성격장애, 신뢰의 문제, 마술적 믿음, 애착장애, 중독적, 강박적 행동, 사고의 왜곡, 공허감 등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Bradshaw, 2004) 본 연구에서는 개인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Bradshaw(2004)의 '상처받은 내면아이' 기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Erikson(1902/1988)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를 지도(map)삼아 각 발달단계를 되돌아보면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그 단계에서 '미해결과제'들을 끝내는 과정을 통해 '경이로운 아이'(the wonderful child)가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원가족 탐색과정 속에서 참여자들 스스로 내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어린 시절 고통과 상처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는 노출과정(uncovery process)이라 할 수 있다.

내면가족체계치료

내면가족체계이론(IFS)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주장하였다(Richard C. Schwartz, & Martha Sweezy, 2010). 첫 번째는 "마음의 다양성(Multiplicity of Mind)"으로 인간의 내면은 단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감정, 생각, 기억, 신념, 의지, 동기들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그런 다양한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을 '부분'(part)라고 부르며,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조망할 수 있는 '참자기'(Self)가 우리 내면의 중심자리에 존재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체계사고(Systems Thinking)"로서 각 구성원은 가족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여 하위체계를 이루고 체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으로 기능하듯이 인간의 내면 또한 각각의 '부분들(Parts)'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기능하는 내면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양성진, 2016). 이러한 내면의 '부분들'(Parts)의 기능과 역할, 상호작용을 병리적인 입장이 아니라 '참자기'를 중심으로 친절한(연민적인)관계 태도를 견지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통찰, 수용 및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면가족체계의 치료적 목적이다(Frank,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만나기 전 내담자의 '부분들'(Parts)을 알아가고 이해를 돕는 내면체계에 대한 설명과 내면작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표 2. 내면가족체계 치료과정

순서	과정
1	센터링(명상): 심장 호흡을 통해 참자기(Self) 체험
2	관리자 부분들 찾기(find): 염려하는 부분, 불안한 부분, 분노하는 부분 등
3	집중하기(포커싱): 호흡을 하며 신체감각에 집중하고 색깔, 모양, 촉감 등에 대한 포커싱으로 관리자 부분들을 명료화 및 분리화
4	구체화하기(flesh out): 라벨링하기, 역할 및 두려움 탐색
5	친해지기(befriend): 관리자부분의 역할에서 긍정적인 의도에 대해 적극적인 경청 및 공감으로 신뢰 형성

또한 분리하는 작업과정인 여섯 가지 'F'-찾기(find), 집중하기(focus), 구체화하기(flesh out), 친해지기(befriend), 두려움 탐색하기(explore fears) 중 '찾기', '집중하기', '구체화하기', '친해지기' 네 가지 단계에 중점을 두고 부분들과 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착외상으로부터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 및 신념, 트라우마인 '짐' 내려놓기 과정(unburdening process)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재양육하는 교정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 과정은 표 2와 같다.

바디스캔명상

1979년도에 메사추세츠의대 메디칼센터의 존 카밧진 교수는 만성질환자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감소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호흡명상, 바디스캔명상, 정좌명상, 먹기 명상, 걷기 명사, 요가 명상으로 이루어진 공식 명상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명상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 바디스캔은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대표적인 명상법이다(박준아, 2015). 바디스캔명상은 내면의 눈으로 마치 스캐너같이 체내감각을 살피고 소통하는 명상법이며, 이러한 명상을 통해 분리된 몸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고 의미 없는 생각을 저절로 내려놓게 한다(정 목, 2013). 또한 외부의 대상과 조건 및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겪는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를 몸 밖이 아닌, 몸 안으로 가져와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허용하고 수용하도록 하여 불안 및 우울, 신체 통증 등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존 카밧진의 MBSR(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중 바디스캔 명상을 통해 참여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불편한 증상과 느낌에 대해 비판단적인 의도를 활성화시켜 내수용성 자각(interoceptive awarenness)을 증대를 시키고자 하였다. 내면의 초점두기와 관련이 있는 내수용성 자각증대는 각종 트라우마에 관련이 있는 뇌 영역인 뇌간, 변연계, 후측 대상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가져와 인간의 행복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스캔 명상은 심호흡으로 형성된 심신의 이완을 통해 신체를 내면의 시선으로 스캔하듯이 훑어 내려가면서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판단하지 않고 허용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느낌으로 지각되는 '부분들'로부터 탈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대처기술(coping skill)이다.

통합적 단기상담 회기별 목표 및 내용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적용된 통합적 단기 상담의 회기별 목표와 내용 및 기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연구자는 애착외상으로 인해 불안을 주호소로 하는 중년 여성 참여자인 1, 2를 대상으로 내면아이 치료 중심의 통합적 단기상담을 시행하였다. 먼저 상담초기에는 연구자와 참여자들 간의 안전하고 원활한 상담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불안완화를 상담목표로 합의하였으며, 호소하는 불안의 원인, 측정을 위해 가계도 작업, Beck(1988)의 불안 척도, 성인애착유형검사(PCR-R)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불안 정도와 원가족 관계 경험에서 발생한 애착 외상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다. 중기에는 이러한 애착외상으로부터 발생한 불안을 다루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 중 하나인 바디스캔 및 심상화 등의 상향식 접근으로 안정화(그라운딩)을 시도하였으며, 내면가족체계치료에서 사용하는 내면 작업(Inner Work)방법으로 참여자들의 내면의 부분들(Parts)을 탐색하고 이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면 작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애착외상을 극복하기 위해 발생한 자기의 보호자들을 회피하고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거나

표 3. 참여자 1, 2의 통합적 상담의 회기별 내용 및 기법

단계	회기	상담목표	상담 내용 및 기법	상담 이론
초기	1	참여자의 주 호소 문제 확인 상담 목표 협의	* 상담동의서, 상담신청서, 상담 사전검사지 작성	① 내면아이치료 (Inner Child Therapy) (by J. Bradshaw)
	2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성인애착유형검사(PCR-R) 및 불안척도(BAI) 실시	
	3	원가족 탐색을 통한 생활사건 탐색	* 가계도 그리기	
중기	4	내면 작업(inner work)을 통한 애착외상 사건 탐색	* 아동기 위기: 방임, 성(sex)트라우마/바디스캔명상, 내면가족체계치료(IFS)	②내면가족체계치료 (IFS) (by Schwartz, C.)
	5	내면가족체계 탐색 및 '부분'의 이야기 경청 및 공감	* 보호자와의 라포 형성: 바디스캔명상, 내면가족체계치료(IFS)	
	6	내면 작업(inner work)을 통한 상처받은 내면아이 다루기	* 무거운 짐 내려놓기: 상처받은 내면아이의 감정과 욕구 경청, 재돌봄/바디스캔명상, 내면가족체계치료(IFS)	
	7	내면 작업(inner work)을 통한 긍정적인 내적자원 탐색 및 통합	* 불안 해소 및 애착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으로 전환: 대인 및 신앙관계의 회복/심상화, 바디스캔명상, 내면가족체계치료(IFS)	③바디스캔명상 (by Kabat-Zinn)
말기	8	일상생활에서 불안 다루기	* 상담에서 다루었던 기법을 활용	

동일시하는 태도에서 '참나'의 속성인 호기심, 연민으로 대하도록 하여 보호자의 감정과 생각에서 탈융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참여자들 각자 내면의 부분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것을 바탕으로 결국 '추방자' 또는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만나고 다루는 과정이 중후반부에 이루어졌다. 애착 트라우마의 뿌리 깊고 강렬한 역동을 다루기 전에 앞선 회기과정 중에 경험한 심호흡, 바디스캔 명상, 심상화 기법을 사용하여 그라운딩을 실시하여 먼저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하였으며, '추방자 부분 즉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참여자들이 아동기 에 경험한 애착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애도하는 노출과정(uncovery process)을 통해 불안을 완화하고 외상 경험들을 수용하며 통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상담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8회기의 통합적 단기상담을 받은 연구참여자 2명이며, 연구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6개월이 지난 2022년 1월경 연구를 위한 상담 자료사용과 면담의 목적 및 진행 내용에 대해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과정에서의 녹음, 메모, 노트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인의 슈퍼바이저에게 연구 슈퍼비전을 받으며 연구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 탐구를 넘어 성장과정을 반영하고(김수진, 고하늘, 김보영, 2015), 참여자의 직접 경험으로

부터 전개되어 심층적인 탐구에 적합하며, 연구결과가 임상현장에 쉽게 연결되고 작용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박은영, 김삼섭, 조광순, 2005)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미, 깊은 변화를 보고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네트워크와 메트릭스 방법을 제안한 Miles와 Huberman(1994)의 이론을 활용하여 초기 접수면접 기록,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면담 축어록, 연구자의 면담필사, 매회기 내용을 기록한 면담일지 및 메모, 개월 후 진행된 심층면담 축어록, 상담 일지 및 메모 등을 반복하여 읽고 분석하여 연구 질문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을 파악하고 개념들을 범주화 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2021년 12월 경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원의 연구심의위원회(IRB)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 등이 담긴 내용을 서식화하는 절차를 밟고 심사를 통과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의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및 신분이 노출될 내용 등은 모두 삭제하고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첫 면담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방법, 녹음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인터뷰 시작 전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로 인해 기여하는 점,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어떤 위험도 따르지 않는다는 점, 연구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며 연구 참여 도중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 연구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담긴 연구 참여 동의서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예상 소요시간, 익명성과 비밀 보장, 그리고 연구 종료 후 모든 자료의 폐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 후 참여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상담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확증편향으로 인한 독단적인 판단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2인의 슈퍼바이저(가족상담전문가 수련 감독)의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임상심리사 2급(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공인 이마고부부치료사(한국부부상담연구소), 국제공인 EFT 프렉티셔너(EFT & Matrix Reimprinting Academy) 등의 자격증 소지자로 가족상담학과 석사 졸업 후 부부 및 가족치료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지역 센터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고통을 호소하는 개인, 부부, 가족 영역에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다.

결 과

참여자들이 호소한 불안의 내용과 배경

참여자들은 아동기에 부부관계 불화, 방임, 폭력, 성추행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불안감, 정서적 억압, 충동성, 공포, 해리 등의 뿌리 깊고 고통스러운 정서로 나타났으며 호흡곤란, 심장항진, 가슴 조여옴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고 자책감, 자기 비난, 충동성, 공격성 등의 부적응적인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적응적인 패턴은 '눈치 보는 아이', '환영받지 못한 아이', '소외되는 아이' 등으로 지속적이고 영속화되고 있었는데, 방임으로 인한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형성의 좌절, 실패 및 부모의 안전기기(Secure Base)역할 부재로 인해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가장 원시적인 자기보호 시스템인 '부동화(Immobilization)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관찰되었다.

참여자들이 감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 인식 등은 아동기에 경험한 방임, 성추행 등의

애착외상경험에서 비롯되었고 삶의 적응과정에서 생존전략인 불안정애착유형(혼란형애착)이 형성, 부적응적인 패턴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불안이 더욱 증폭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참여자들이 애착외상으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게 된 배경의 구체적인 배경은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참여자 1이 불안을 호소하게 된 배경

참여자	구분	분석	회기	참여자의 표현
참여자 1	뿌리 깊고 고통스러운 정서	절망감 좌절감	2회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아예 이제 좀 거의 안 들어주셨고, 제가 힘들 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어린 시절에..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3회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는 아니구나! 라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정서적 억압	3회기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되게 상처도 잘 받고 그래서 이제 아예 딱히 다가가기가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누르고 참고....”
		분노 원망감 억울함	3회기	“너무 많죠. 억울하게 너무 억울한 거는..” “엄마가 제가 되게 어려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도 크게 대처하지 않았어요.”
			4회기	“제일 화가 났던 것은 이제 친척보다 엄마한테 제일 화가 났다고...”
			5회기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대처해주지 못한 어른들이 어른들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에요”
			6회기	“그전에 레파토리처럼 억울한 상황..힘든 상황이거든요.”
		트라우마 (성추행) 공포 악몽 해리 부동화	2회기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거를 힘들어요..힘들어해요.” “되게 혼란한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거죠.”
			3회기	“친척 오빠들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이제 악몽을 꾸고 이제 밤에 오줌을 싼다던지 그러니까 그런 그런 비슷한 애기가 막들을 때는 이제 가슴이 뛰고...” “그거는 저한테는 좀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5회기	“내가 어렸을 때 내 사촌오빠한테 성추행당했던 그 일이 너무나 압도당하고, 너무 힘들고, 트라우마이다.” “계속 눌러서 그런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방임 폭력	1회기	“그런데 엄마가 너무 욕을 많이 하시니까. 저한테”
			3회기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 그 친척 집에...친척 집에 옆에 살았는데, 그 때 이제 거의 저희가 잘 못 사니까 그 얹혀 살다시피 했던 거 같아요.”
			5회기	“아주 너무 어린 아이였고 돌아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 얘기를 엄마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때 나를 때렸어요.”

신체적 증상	심장 항진 호흡곤란 가슴이 조여옴	1회기	“약간 호흡 곤란이 있거든요.” “잘 때나 이럴 때도 호흡이 조금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 심장이 뛰고 긴장되고...”
부적응적인 패턴	자책감 자기비난	2회기	“막상 저한테는 굉장히 칼 같이 잣대를 드러냈고, 그리고 또 남들을 이해해주는 척 한 거예요.”
		4회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책하는 게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 결핍감 배신감	1회기	“약간 성격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해결을 하고 풀어야하는 성격인거예요” “뿌리 깊은 어떤 이제 결핍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2회기	“완벽히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애한테는 결핍되지 않게 이제 완벽하게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3회기	“그게 너무 약간 습관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서도 뭔가 계속해야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면 늘 우수사원 같은 거예요.”
	충동성 공격성	1회기	“짜증나는 주로 간다든지 좀 신경질적으로 간다든지” “불안이나 약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딱 바로 전화하게 되는 그런게 있으니까...”
		3회기	“이제 싫은데도 참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폭발해버리고...”
부정적인 자아상	눈치 보는 아이	1회기	“막 대신 엄마 대신 아빠한테 화내고 막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은 내가 할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환영받지 못한 아이	2회기	“그런데, 이제 또 엄마가 제가 생겨서 결혼을 한 케이스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그 때마다 이제 너 때문에 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희생양이 되는 아이	1회기	“이제 늘 싸우면 화풀이가 엄마의 화풀이는 이제 제가 된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너 때문에 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표 5. 참여자 2가 불안을 호소하게 된 배경

참여자	구분	분석	회기	참여자의 표현
참여자 2	뿌리 깊고 고통스러운 정서	불안감 위축감	2회기	“손이 떨리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발이 땀 차고 좀 차가워져요.”
			3회기	“약간 이게 내 마음이 불안해서...” “자꾸 언니에 기에 눌리다보니까...”
			5회기	“왜냐면 그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위축되잖아요.”
		정서적 억압 부동화	1회기	“뭔가 감정을 막 제가 억누른 상태였나봐요.”
			4회기	“지금 너무 답답함이 느껴져요.”
			5회기	“거기에 앉아서 안 움직였어요.”
		분노 억울함	1회기	“큰 소리가 나오면 약간 제가 폭발하더라구요.”
			2회기	“막 화가 많이 나더라구요.” “이제 그거로 화 많이 냈었거든요.”
			4회기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억울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성추행) 공포 해리	1회기	“그 때는 진짜 공포스럽고 막막 가기가 너무 힘들고 막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이모가 혼내는 건 그렇게 무섭더라구요.”
		2회기	”제가 어렸을 때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제 바지를 벗기고..“ “그 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아요.”
		5회기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거나..좀 약간 멍한 것 같아요.”
		6회기	“기억이 잘 안 나게 하는 거래요”
	방임	1회기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두 분 다 하시니까 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5회기	“이모가 일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맡겨지는 거예요.”
신체적 증상	손발에 땀이 남 가슴이 조여옴 이명 호흡곤란	2회기	“심장이 또 벌렁벌렁 하더라구요.” “손발에 땀나는 거는 있는 거 같아요.” “여기가 꽉 막혀있는 것 같아요.”
		3회기	“숨이 쉬어지고...” “손발이 지금도 계속 땀이 나는 것 같아요.
		4회기	“이명이 자주와요”
부적응적인 패턴	자책감 후회	1회기	“어느 순간 저를 자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바보 같다는 등” “그 때 자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존감 하락 자기비난	1회기	“그 언니랑 이러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3회기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5회기	“저보고 멍청하대요.”
	알코올 의존	1회기	“술만 먹으면 옛날에는 주사가 되게 심했거든요.” “술을 거의 거의 매일 마셨거든요.”
		3회기	“술 먹었을 때 제 성격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였구요.”
	충동성 공격성	1회기	“소리도 많이 지르고....싸움도 좀 많이 붙고..되게 과격해진다고 그러더라구요.” “막 말도 좀 과격하게...”
부정적인 자아상	눈치 보는 아이	1회기	“저도 왜 눈칫밥을 먹으면서 거기 그렇게 가고 싶었을까?”
		2회기	“하고는 싶은데 잘 모르니까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3회기	“너무 남의 눈에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5회기	“눈치보고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 할머니한테도 엄청 눈치를 많이 봤구요.”
		6회기	“이모 눈치를 보고 말을 못했어요.”
		8회기	“눈치도 많이 보고...”
	겁에 질려 있는 아이	1회기	“어렸을 때 자꾸 혼나니까..” “아빠가 술 먹고 화를 내는 날이면 무척 무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8회기	“무서워요..” “무릎 꿇고 웅크리고 있어요.” “놀랬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소외되고 있는 아이	6회기	“외롭고 무섭고 기대고 싶은 마음..” “너무 외로워서 대성통곡했어요.”

참여자들이 나타낸 변화와 관련 치료요인

통합적 상담을 통한 참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6와 표 7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담사와의 신뢰로운 라포 형성을 바탕으로 각자 경험하고 있는 불안의 원인 및 증상이 아동기 때 경험한 애착외상이라는 것을 이해, 자각하였으며 내면아이치료 중심의 통합적 상담 기법들을 통해 자신들의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내면 체계의 다양한 부분들과 접촉하며 통찰, 수용력이 함양되었다. 또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깊은 공감과 연민으로 재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거부적 · 회피적으로 고통을 대하는 참여자들의 태도가 애도하고 위로하는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하였음이

표 6. 통합적 상담을 통한 참여자 1의 변화

주제	변화	회기	참여자 진술
자신의 문제 인식 개선	불안 완화 및 문제의 탈융합	3회기	"이렇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과 그래서 되게 좋은 감정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다.
		4회기	"불안 8점에서 3점 정도로.."
			"이게 되게 큰일인가? 그 정말 굉장히 지장이 있는 일인가? 괜찮네.."
		사전 사후검사 (불안척도)	·사전: 29점(극심한 불안) ·사후: 7점
자신에 대한 연민감 확장	내면 아이 재양육	3회기	"너무 해맑게 웃는 어린 시절에 제가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4회기	"어린 시절로 돌아갔을 때 그 편안함..아주 편안하고 좋더라구요." "(오열하며) 00가 너무 속상하고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으니 괜찮아." "그냥 위로해주고 싶어요."
	기억 재조정	4회기	"좋았어요.. 하하하... 신기하게 기억이 바뀌어요!"
		8회기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좀 억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이.. 제가 지금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게 편안해 보이네요." "그 때는 바로 데리고 나와야 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심리적 안정감 및 관계 변화	정서 조절	6회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제가 되게 좀 짜증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랬는데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유연화		"아들한테 짜증을 좀 덜 냈구요.. 그럴 수 있으니까...."
	경청 및 공감능력 향상		"여유가 생기니까 이게 왜 가기 싫을까.. 그러기도 하고 아이의 마음을 좀 들으려고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신앙회복		"이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은 신앙의 회복인 것 같아요."
	정신화 획득 및 자신감 향상	심층 면담	"지금은 그런 사건을 접할 때 이렇게 위축되거나 얼어붙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보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내면 아이 치유 작업한 이후에 친구나 교회 사람들에게도 하고 이 얘기를 정말 술술술 꺼내더라구요.. 하하하"
	애착유형의 변화	사전 (혼란형 애착) ⇩ 사후 (안정형 애착)	"상담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안전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고 이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내면아이치유작업을 하고나서...크게 상처가 되는 부분이나 크게 위축되는 부분이 이제 없으니까.."
	진솔함	심층 면담	"자연스러워지고 좀 진솔해지고요."

표 7. 통합적 상담을 통한 참여자 2의 변화

주제	변화	회기	참여자 진술
자신의 문제 개선	불안 및 신체적 증상 완화	2회기	“선생님... 손에 땀이 안나요.”
		4회기	“네.. 처음이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 때 처음 전화했을 때(접수상담)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5회기	“2, 3점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7회기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이유 없이 그러니까 사건이 있어서 그러긴 했지만... 공부도 아예 안되고 그랬는데 답답하고 이러지 않아요.”
		8회기	“한 4회차 때 그때 그거 힘든 거 얘기했을 때는 좀 그 때가 제일 돌이켜보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지나니 발에 땀 차고 가슴 답답한 거는 없어요.”
		사전 사후검사 (불안척도)	·사전: 28점(극심한 불안) ·사후: 3점
	문제에서의 탈융합	심층 면담	“그러니까 그 나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에만 집중 했었어요....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괜찮다.. 괜찮다.. 하고 나니까 속이 풀리면서 이제 그건 좀 접어두고 또 이제 이제 앞으로 미래, 현재..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지난일이니까...”
자신에 대한 연민감 확장	내면 아이 재양육 위로, 지지	4회기	“처음에는 울컥했어요. 좀 짠하고 불쌍하고...” “아까보다 표정 더 밝아졌어요.”
		6회기	“행복해 보여요... 편안해요.”
		8회기	“짠하고 안쓰러워요. 그리고 거기서 빼내주고 싶어요..”
		심층 면담	“저의 내면아이를 그걸 막 꺼내서....위로...그거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 괜찮다.라고 얘기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정정화	4회기	“기분이 좋고 속이 후련하대요.” “저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6회기	“마음은 좋은데...자꾸.. 눈물이 나와요.” “속이 좀 시원했거든요. 말하고 나니까 별 것도 아니고...”
		8회기	“아니 저기 뭐지? 속이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말을 해도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상대방은 엄마 아빠 얼굴은 오히려 좀 놀랐지만 풀어진 느낌이고...”
심리적 안정감 및 관계 변화	관계 조율 능력 향상	8회기	“엄마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어린00이가 슬퍼보였는데 다시 이제 제가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더니.....어린 00이가 표정이 좋아졌어요.”
	정신화 획득 및 자신감 향상 및 회피기제 완화	4회기	“저 기분 나쁜 건 짚고 넘어가고 싶더라구요. 쌓아놓지 말고 되도록 빨리 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상담도 하고,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이렇게 가다보면 되는구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생길 것 같구요.”
		5회기	“제일 중요한 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말 안하면 안 될 거 같아요..”
		6회기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걸 꽁꽁 껴안고 살았을까?”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좀 꺼렸는데 선생님에게 얘기 하니까..내가 부끄러워 할 일은 아니구나..”
		7회기	“그 때 전에 밥 먹을 때는 제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저 혼자...이번에는 밥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왔거든요. 안 불편하더라구요.. 하하하..”

나타났다. 이런 과정 중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동반되어온 불안이 완화되었는데, 내면아이치료의 통찰적 접근과 아울러 실제 생활에서 발현되는 불안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긴장들을 이완하고 방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노출치료적 접근이 적합했음이 사후 심리검사(불안척도) 및 심층면담내용 등에서 지지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 각자의 애착유형의 변화도 가져왔는데,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회피적인 태도에서 허용적이고 진솔한 태도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대인관계에서도 자책감, 완벽주의, 자기 비난, 충동성 등의 부적응적인 패턴에서 유연하고 적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애착외상 중 하나인 부모의 방임으로부터 발생한 만성적인 분노, 자책감, 위축감 등인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탈융합 되어 부모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과 아울러 신앙의 회복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안정감 및 자존감 향상 등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 또한 심층면담 내용과 사후 성인애착유형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한 통합적 상담에서의 치료적 요인으로는 첫째, '내면아이 치료'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내면아이 치료가 강한 인상을 주었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자 1은 "내면아이 치료 작업하기 전에는 그 때(성추행, 방임)를 기억을 하면 항상 울고 있는 제가 보였었는데, 내면아이 치료 작업을 한 이후에는 뭔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라고 하였고, 참여자 2는 "저의 내면아이를...괜찮아! 그럴 수 있어!...그거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도 참여자 1은 "불안이 많이 내려왔고.. 성추행관련 각종 기사들을 접하면 피하고(회피), 얼어붙고(부동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그게 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하였으며, 참여자 2는 이에 대해 "그러니까 그 나쁜 일(성추행, 방임)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에만 집중을 했었어요.....근데 상담하고 나서 많이 울어서 속이 시원하고(감정정화)...그거(내면아이치유)를 해서 달래주고 위로해주고...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지난 일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자..."라고 자신들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만나고 위로하는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이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청·공감적인 태도를 또 다른 치료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심층면담에서 참여자 1은 "잘 들어주셔서..", "잘 편안하게 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분들 비교할 수 없지만 전문성이 느껴지고...도움이 많이 돼서 이렇게 풀어놨던 것 같아요." 라고 하였고, 참여자 2의 또한 "이제 이상하게 내편이라는 느낌이 있더라구요.", "내 말을 되게 잘 들어주시고...", "그걸(내면아이)끄집어내준 게 너무 감사했고.."라고 하며 공통적인 치료요인 중 하나로 연구자의 비지시적이며 공감적인 태도와 아울러 전문성 등이 신뢰감 및 안전감을 주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어린 시절 좌절된 애착이 회복되고 복원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에 경험한 애착 외상의 영향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의 상담 경험을 탐색하여 아동기 형성된 애착외상이 현재 느끼는 불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내면아이치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통합적 단기상담이 애착방식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수행된 질적 사

례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참여자들은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방임 및 성추행으로 발생한 애착외상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불안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런 증상은 뿌리 깊고 격렬한 정서를 불러일으켜 부적응적인 패턴과 그로 인한 충동성, 공격적인 행동 및 알코올 의존문제 등으로 자신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자신을 '눈치 보는', '소외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위축되고 희생양이 되는 아이'로 스스로 평가하며 자기 비난과 자책이 내면화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모습은 아동기 때 경험한 애착외상이 성인 불안정애착으로 이어지며 스트레스 및 우울 및 대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 나타남을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지된다(박은정, 2013; 하진의, 2013).

둘째, 참여자들은 통합적 단기상담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동안 무의식속에 억압해놓았던 외상경험에 대해 의식화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신에 대한 자책과 비난적인 태도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서 위로하고 지지하는 재양육과정을 통해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변화되었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모의 방임으로 여기는 적대적인 태도에서 연민과 이해의 태도로 변화시켜 나갔다.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변화와 성장은 내면아이치료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인 미해결된 감정에 대한 표현과 수용 속에서 획득된 '정신화(Mentalization)'이다. 정신화(Mentalization)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는 능력을 말하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화(Mentalization)' 과정은 통찰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Wallin, 2010)에 성찰적 기능 활성화로 인해 과거 자신의 애착 문제와 현재를 분리하고 개별화할 수 있어 수용력이 향상된다(박찬란, 2014)는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내면아이 치유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단기상담 과정을 통해 나타난 치료적 공통요인에 대해 '내면아이치료' 와 연구자의 비판단적, 공감적 태도 및 전문성을 들었다. 상담에서 얻어진 자료들과 이후 진행된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난 바, 참여자들은 상담자의 공감성과 전문성으로 신뢰감과 안정감이 경험하고 상담 과정 전체에 집중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포와 수치심으로 억압해온 애착외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아동기 때 경험한 애착외상으로 형성된 불안전 애착으로 경계심, 불신감, 고립감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에 참여하였지만 상담자가 강렬한 정서를 편안하게 받아내고, 인내하며, 개방적이고, 비판단적인 태도를 보이며 안전기지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내담자들과 안전 애착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이런 치료적 관계 및 동맹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비판단적, 비지시적인 태도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 지지가 되면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자의 변화는 결국 참여자들의 내면 부분들과의 관계 회복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떠안은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참여자들의 '참자기'가 활성화되고 강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논의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이 단기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아동기 애착 경험으로 인한 불안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불안 치료에 있어 기존의 노출치료의 한계를 넘어서 통찰 및 실제 생활에서 지속적이며 입체적인 상담기법을 통합하여 적용 가능한 치료 방법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방임 및 성추행 등 애착외상에 기인한 불안은 부정적 정서 행동, 대인관계 문제와 자기 비난, 자책 등으

로 더욱 내면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처와 결핍에 대해 상담자는 허용적 태도로 접근해야 하며, 전문성을 지닌 안정적이고 공감적 태도로 상담관계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도 치료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별, 연령, 결혼유무, 직업 등으로 다양한 참여자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내담자 사례를 확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지역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단기상담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내면 아이 치유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단기상담이 아동기 때 경험한 애착외상으로부터 파생된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 대인관계 회복까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기상담을 지향하고 실시하는 지역사회기반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임상연구자들에게 본 연구의 내면 아이 치유 중심의 통합적 상담기법의 사용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곽진영, 하은혜 (2015). 불안한 아동의 불안감소와 애착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Winnicott의 촉진적 환경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2**(5), 1341-1370.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권성일, 정현희 (2014).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우울, 부적응적 인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145-164.

김수정 (2010). **애착장애와 치료놀이**. 고양: 공동체.

김수진, 고하늘, 김보영 (2015). 자살시도 청소년의 이야기치료 적용 질적 사례연구. **질적탐구**, 1(2), 123-146.

김영신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면아이의 상관관계성 및 치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아 (2016). **수치감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의 통합적 상담 사례 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원호택 (1997). 대인불안의 모델들. **심리과학, 6**(2), 109-130

김현진, 김나영 (2006). 무용/동작치료가 여고생들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Blanche Evan의 중재 기법을 중심으로.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6**(1), 99-115.

류분순 (2000). 무용/동작치료가 만성정신질환자의 불안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논문집. 1**(1), 17-45.

문 선 (2019). **하이데거 현존재의 자기이해 연구 : 불안개념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현, 박승민 (2015). 어린 시절 상처 치유 경험과 부부관계 변화와 연구 - 내면아이치유. 집단상담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1), 239-271.

박은영, 김삼섭, 조광순 (2005). 우리나라 단일대상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학 연구, 40**(1), 65-89.

박은정 (2013). **불안정 애착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아 (2015). **바디스캔명상이 성인여성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수, 최광현 (2020). 상처 입은 내면아이 인형치료를 적용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31**(1), 97-124..

박찬란 (2014). **불안정 애착유형 성인남성에 대한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리 (2016). **만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내면아 이치료 집단 상담이 고교생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미라, 김혜숙 (2020). 팬데믹 상황(COVID-19)에서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사회 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1), 309-319.

양성진 (2016). 내면 인식(Internal Awareness)을 위한 교육의 가능성 연구 - 내면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를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0**(52), 601-626.

오제은 (2009). 커플관계 치료에 있어서 '어린시절의 상처' 치료의 중요성: 이마고 커플관계 치료와 내면아이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상담 학연구, 6**(3), 1055-1070.

오제은 (2011). 내면아이치료와 목회상담. **한국실천 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4-45.

육성필, 김중술 (1996).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의 임상적 연구: 환자군과 비환자군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6**(1), 185-197.

윤승주 (2009). 불안-우울아동의 비지시적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1), 87-102..

이선영, 안창일 (2012). 불안에 대한 수용-전념 치료의 치료과정 변인과 치료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23-254.

이문희, 이수림 (2013).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의 이해와 치료적 함의. **청소년상담연구, 21**(2), 413-448.

이주연, 박경 (2018). 경증치매노인의 우울 및 불안, 정서표현과 무용/동작심리치료의 이론적 고찰.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8**(1), 82-96.

이진경, 황경애 (2020).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자기비난을 호소하는 여대생의 내면아이상담 사례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1**(1), 33-48.

임향빈 (2018). **단기상담의 이해와 실제**. 서울: 북랩.

전요섭 (2006). 단기상담의 이해와 기독교 상담적 응용 가능성. **복음과 상담, 6,** 284-310.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최광현 (2013). 영산의 4차원의 영성과 내면아이 심 리학과의 만남에 관한 연구. **영산신학저널, 29**, 233-258.

최광현 (2014). 청소년 내담자를 위한 인형치료에서 '내면아이'의 중요성과 치료적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2**(4), 211-223.

최금순 (2017). 내면대화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평가와 활용. **복음과 상담, 22**(1), 255-294..

최지영 (2012). **근거이론의 개념과 연구방법.**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진의 (2013). **성인 애착 불안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비와 반추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선무, 이봉건 (2016). 사회불안에 대한 수용전념치료(ACT)치료변인의 효과. **인지행동치료, 16**(4), 445-467.

홍재형 (2019). 분리불안 아동의 인지행동놀이치료 사례연구. **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 1**(1), 43-66.

황경애 (2020). 내면아이상처로 대인관계의 위축감을 갖는 50대 주부를 위한 통합적 상담사례 연구. **코칭연구, 13**(1), 91-112.

Adam, K. S., Sheldon-Keller, A. E., & West, M. (1996). Attachment organization and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in clinic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64-272

Allen (2010). **트라우마의 치유**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권정혜, 김정범, 조용래, 최혜경, 최윤경, 권호인 역). 서울: 학지사.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93 - 897.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London: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Bradshaw. J. (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치유** *[Home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0년 출판).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2013년 출판).

Wallin, D. J. (2010). **애착과 심리치료***[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옮김).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7년 출간).

Erika J., Chopich, & Margaret. P. (2011). **내 안의 어린아이-잃어버린 내면아이를 만나는 자기치유심리학***[Healing Your Aloneness]* (이세진 역). 서울: 교양인.

Erikson, E. H. (1988).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윤진, 김인경 역). 서울: 중앙적 성출판사(원전은 1902년 출판)

Ernst-Dieter Lantermann (2019). **불안사회** *[Die radikalisierte Gesellschaft: Von der Logik des Fanatismus]* (이덕임 옮김). 서울: 책세상.

Frank. G. Anderson. MD, Martha Sweezy. PhD, Richard. C. Schwartz. PhD. (2020). **내면가족체계치료모델***[Internal Family Systems Skills Training Manual]*(서광, 신인수, 효림, 김현진 공역), 서울: 학지사.

Lyons-Ruth, K., Dutra, L, Schuder, M. R., & Bianchi, I. (2006). From infant attachment disorganization to adult dissociation: relational adaptations or traumatic experiences? *Psychiatric Clinics of Norht America,* 29(1), 1-18.

Fonagy, p., & Target, M. (2006). The mentalization focused approach to self 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0*(6), 544-576

Fraley, R. C., & Waller, N. G. (1988). 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47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77-114. New York: Guilford Press.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Richard C. Schwartz, Martha Sweezy (2010). **내면가족체계치료***[Internafamily systems therapy].* (김춘경, 변외진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5년 출판).

원 고 접 수 일 : 2022년 09월 16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2년 10월 02일
게 재 확 정 일 : 2022년 10월 17일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89-109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grated Short-Term Counseling Centered on Inner Child Therapy: Focusing on Attachment Trauma Clients

Yoon, Sang-Yong

Guri Healthy Famil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ounseling experience of clients who complain of anxiety due to the influence of childhood attachment trauma and to understand how an integrated counseling approach centered on inner child therapy affects changes in attachment styles. To this end, two middle-aged female clients who visited a regional center complaining of anxiety due to attachment trauma applied an integrated counseling technique centered on inner child therapy for a total of 8 counseling sessions and data from an in-depth interview six months later.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cipants, the qualitative case study was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the results, this study confirms through actual cases that integrated short-term counseling centered on inner child therapy can positively affect the change and growth of clients whose main complaint is anxiety related to attachment trauma experienced in childhood. there wa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ds: anxiety, attachment trauma, integrated short-term counseling, qualitative case study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111-128

가족상담사의 상담스트레스 및 대처방안과 성장에 관한 현상학 연구

최 미 용* **이 영 주**** **김 영 은***** **김 현 주******

행복채움 심리상담센터 **한국 토지주택공사** **캘리포니아 개혁신학 대학원** **서울 가양초등학교**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의 상담 스트레스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상담 경력 5년 이상인 가족상담사 6명에게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구성요소 5개, 하위구성요소 17개, 의미 단위 89개로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는 가족상담사의 상담 스트레스 경험의 5개 구성요소 즉, '가족상담으로 구조화하는 어려움', '가족상담사로서 전문적 자질에 대한 자신감 저하와 한계 경험', '심신의 안정화를 위한 의식적 노력', '상담 중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내적 성장과 관계 회복을 가져다 준 가족상담'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의 상담 스트레스 경험과 극복 과정에서 자기이해와 성장 그리고 자신의 부부, 자녀관계 및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의 유익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가족상담사, 상담스트레스, 대처방안, 가족상담사의 성장, 현상학적 연구

* 제1저자: 최미용 / (청주) 행복채움심리상담센터, 센터장 / 은여울중고등학교 전문상담사
** 제2저자: 이영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음쉼터 상담사
*** 제3저자: 김영은 / 캘리포니아 개혁신학 대학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현주 / 서울가양초등학교 / hyunjoo1@daybreak.edu

COVID-19는 최근 인류가 함께 겪은 사건으로 지난 4년간 신체적 질병과 아울러 심리적으로 많은 결핍과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최근 우울증 진료 인원이 COVID-19 이전과 비교해 63.2% 증가하였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양수민, 2022)와 COVID-19 이후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들이(임세희, 송아영, 2021; 진미정 외, 2020)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심리상담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법 제정과 함께 상담의 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양수민, 2022).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상담의 효과와 전문상담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상담 관련 연구에서는 상담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상담사 자신'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Critis-Christoph & Mintz, 1991; Huppert et al., 2001; Kim, Wampold, & Bolt, 2006). Corey와 Corey(2003)는 상담사 자신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상담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요인들로부터 자신을 잘 보살피는 것이 상담사의 자질과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다수 연구에서도 내담자와의 관계나 상담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상담사의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로 드러났다(김혜미, 오인수, 2016; 배순진, 2014; 소혜정, 2005; 이 셈,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상담사가 영향력 있는 치료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담사의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사들은 내담자의 심리와 상황에 대해 일방적 배려와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비해 심리적 소진에 매우 취약하며(최윤미, 2003), 또한 상담 과정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강다연, 2011; 박성숙, 2013; 안재순, 2021; 조경숙 외, 2017). 그러나 지금까지 상담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반상담 영역에서 진행되어왔으며, 가족상담 영역에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가족상담은 1950년대 초, 내담자가 치료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가족의 역동이 변화될 때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밝혀지며 발전하였다(송성자, 2002). 이에 따라 가족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닌 가족 전체로 보는 관점으로 확대되었고, 문제의 원인을 가족체계 내에서 역기능적인 가족 상호작용으로 보았다(이희세 외, 2017; Wordden, 2012). 이것은 가족상담이 일반상담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으며 또한 상담을 접근하는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상담은 일반상담과 달리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며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 개입하게 되므로 상담사의 스트레스 또한 일반상담사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상담사의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배순진, 2014)에서 상담사들은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련에 비해 상담자로서의 성취감 부족 등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 지속적인 역량개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보고하였으며, 정용선(2018)은 일반상담사가 상담현장에서 소진하는 영역으로 성격특성, 신체증상, 지지부족, 업무과다, 상담사로서의 자질의심, 상담경험 부족,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노미화와 최연실(2015)은 상담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에서 가족상담사가 2인 이상의 가족상담을 진행할 경우 가족 구성원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상담사가 자기편을 들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상담 중 가족구성원들끼리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힐 때 상담사의 개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가족상담사는 일반상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복잡한 상황과 그에 따른 두려움과

분노를 경험하고, 상담 장면에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Rober, 2011)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가족상담사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노미화, 최연실, 2018)에서는 가족상담사가 일반상담사와 차별화되는 전문직으로서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가족상담은 상담과정에서도 일반상담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상담사의 특성에 따른 상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상담사의 소진과 스트레스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문제의 양상 뿐 아니라 대처와 그 결과들도 함께 보고되었다. 일반상담사의 소진과 자기돌봄을 연구한 최희아(2017)는 그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여가시간, 타인의 정서적인 돌봄, 교육분석을 통한 통찰과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돌봄을 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상담사들의 소진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회복요인으로 명상, 자기탐색, 여가시간, 가족 및 동료 같은 주변인들의 지지와 교류, 자기성찰, 슈퍼비전을 하는 것이 나타났다(박성숙, 2013; 이미영, 2016; 정용선, 2018).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상담사들이 소진과 스트레스 경험에 머물지 않고,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상담사의 스트레스와 소진은 전문가로서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담사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조경숙 외, 2017; 최희아, 2017). 이와 관련된 가족상담사의 연구를 살펴보면, 엄영숙과 정연득(2021)은 가족상담사의 역전이를 조절하는 중재적 조건으로 슈퍼비전, 상담자의 개인분석, 상담자의 발달수준, 가족과 동료들의 지지를 보고하였으며, 또한 감정을 성찰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인식확장, 상담자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상담 수련생의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대한 황선민(2013)의 연구에서 가족상담 수련 중 겪는 어려움이 중요한 타인의 지지, 자신에 대한 이해, 편안해진 대인관계,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함, 성취감, 전문가로서 발돋움의 과정을 통해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족상담사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다양한 대처방법으로 회복을 도모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적 영역과 함께 개인적 영역에서의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족상담사들은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가 가족이며(김수지, 정문자, 2010; 노미화, 최연실, 2018), 가족상담사 수련과정이 원가족 대처능력, 가족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수지, 정문자, 2010). 또한 이미정(2014)의 부부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상담 수련과정에서 어린시절의 경험이 현재 상담사의 부부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았으며, 상담사 개인과 부부관계의 성장이 내담자를 상담할 때 자신감을 부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상담사에게 미치는 가족의 영향이 일반상담보다 매우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개입하는 치료과정에서 가족상담사 개인의 성찰과 성장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 대처에 따라 어떠한 성장을 이루는지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상담사의 스트레스 요인이 주로 상담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김은주, 오화철, 2020; 김정민, 강다연, 2011; 박성숙, 2013; 안재순, 2021; 조경숙 외, 2017) 상담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 있는 그대로의 중심의미를 통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상학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들을 위한 상담 스트레스와 대처, 성장 과정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가족상담사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발전과 지역적 협력, 정부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상담사는 어떠한 상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 둘째, 가족상담사는 상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셋째, 가족상담사로서의 경험은 상담사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표집 방법 및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 참여자는 심리상담 및 가족치료 관련 전공, 석사 이상의 학력과 상담현장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험 있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목적표집 중에 전형적 표집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논문의 취지와 연구 참여 중단의 권리, 자료 사용범위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가족상담사를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여성 5명, 남성 1명으로, 평균 연령 51세, 경력 평균 11년, 평균 결혼기간 24.8년, 자녀 2.3명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료수집

본 조사에 앞서 공동 연구자 3명이 서로 면담하며 용어 수정 및 질문의 순서와 항목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였다. 연구는 인터뷰 방식으로 반구조화 질문을 사용하였고, 연구자 3명이 2명씩 면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시간은 평균 1회,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와 의논하여 면접 장소를 정하거나, 화상 면접(줌)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은 2022년 2월 내에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 질문과 비언어적 특성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그 본질을 표현을 찾기 위해(최영희, 1993)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녹취 후 이를 그대로 전사하여 Giorgi(1985/2004)가 제시한 4단계의 분석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연구 참여자의 전

표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번호	성별	나이 (세)	거주지	소속기관	학력	상담 경력(년)	가족형태 (결혼기간, 년)	자녀 수
1	여	57	서울	초등학교	석사	10	기혼(32)	1녀
2	여	51	경기	사설센터	박사수료	10	기혼(21)	2녀
3	여	61	경기	사설센터	박사	12	기혼(30)	1남 1녀
4	여	50	서울	사설센터	박사과정	13	기혼(30)	3남 1녀
5	여	44	경기	사설센터	박사과정	18	기혼(18)	1남 2녀
6	남	43	경기	사설센터	박사과정	5	기혼(18)	1남 1녀

사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잡았으며. 2단계는 중요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경험이 드러났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그 후, 원자료가 변형되지 않도록 요약하고, 고유번호를 붙여서 원자료와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도출된 결과 중에서 중복 또는 맥락에서 벗어난 것들을 제외한 자료를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를 함축한 학문적 용어로 변형 및 재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단계는 전환된 의미 단위를 기초로 경험의 본질을 구조화하여 구성요소와 하위구성요소를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이 일반적인 기술 속에 내포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어 연구 참여자의 사적인 부분이 노출되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시작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여부를 알아보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략적으로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 인터뷰를 시작하기 직전에 논문의 목적 대해 설명한 후, 비밀보장과 자료가 익명으로 처리됨을 고지하였다. 아울러 언제든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와 연구자의 질문 중 답변하기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이러한 내용의 동의서에 승인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연구의 평가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해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1985)의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이라는 네 가지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사 자료를 공유하여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으며, 연구 참여자와 동질 집단이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상담사 3명에게 그들의 경험과 유사한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일관성은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 2명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검수 및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3인의 공동 연구자들이 7회에 걸쳐 협의하여 각 연구자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확인하며 주의를 기울였고 기존 문헌들의 결과를 근거로 사용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가 가족(커플) 상담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현상학적 연구로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Giorgi(1985/2004)의 연구절차에 따라 인터뷰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참여자의 경험이 나타나는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경험의 구성요소

연구자가 6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로부터 도출한 의미 단위 381개를 도출했고, 반복되거나 공통되지 않은 의미, 맥락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의미를 제외한 89개의 의미 단위를 최종 구조 분석으로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공통되는 의미와 연관된 의미를 통합하여 17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주제화하고, 최종적으로 5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표2. 가족상담사의 상담 스트레스 경험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 단위 개념화
가족상담으로 구조화하는 어려움	2인 이상 가족상담 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	2인 이상 가족상담을 많이 안 해 본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2인 이상 가족 역동의 균형을 잡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2인 이상 가족들이 싸우는 경우 가장 스트레스가 높음
		2인 이상 가족치료시 시간 맞추는 것에 대한 어려움
		2인 이상 가족상담시 다른 가족구성원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어려움
		많은 스케줄로 인한 2인 이상 가족상담에서 많은 시간 소요와 많은 에너지가 드는 어려움
	커플상담시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소통과 연결의 어려움	부부치료 시 내담자들의 싸움에 대한 스트레스
		상담 중에 커플이 서로 딴소리하며 서로 비난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
		노부부 커플이 자기얘기를 절대 끊지 않아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외도상담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배우자 외도로 아파하는 내담자와 동행해주는 것으로 정서적 어려움 경험
		동거커플의 애매한 관계로 상담과 대처의 어려움
		커플 서로가 소통할 말을 상담사가 대신 해주길 원함
	신체적, 심리적 소진과 피로감 경험	상담이 잘 되지 않을 때의 불안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남
		상담과정의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자신의 가정에 소홀해짐
		상담할 때의 긴장과 피로감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민해짐
		상담일의 소진으로 몸이 아픈 신체화 증상이 나타남
		내담자의 괴롭고 힘든 감정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에 대한 정서적 소진
		많은 상담과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는 가족상담으로 인한 체력적 피로감
가족상담사로서 전문적 자질에 대한 자신감 저하와 한계 경험	상담성과에 대한 부담감과 드랍에 대한 자책	상담사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가족상담사로서 자격에 대한 의구심과 자신감이 떨어짐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잘못하는 경우 상담사의 무능력으로 느낄 때
		문제해결 전 상담을 중단하고 유지되지 않을 때 오는 걱정
		전문적 가족상담사로서 많은 스킬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하는 민감함
		상담료만큼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상담사의 압박감
		드랍으로 인해 상담사 능력으로 자책하고 자질을 탓하게 됨
		드랍으로 상담에 대한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안타까움
	상담사의 역전이 반응으로 인한 상담 중 어려움	상담사 자신과 비슷한 내담자에 대한 싫은 심리적 반응
		상담사가 해결되지 않은 자기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내담자의 배우자와 상담자 배우자가 비슷할 때 일어나는 역전이
		상담사 자녀 관계의 문제로 상담에 감정이입이 어렵고 상담 역전이로 상담 안 되는 경우
		상담사 부부 싸움으로 상담사의 에너지가 나누어지고,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상담사 가족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으며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가족상담 (2인 이상)중 중립유지에 대한 어려움	2인 이상 가족치료 시 상담자의 중립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상담 중에 상담사가 자기편이 되어 주기 원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중립을 지키는 어려움
		가족상담 중 이성 내담자 호소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적절한 경계가 불분명할 때의 어려움
		부부상담 시 자기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며 배우자만 잘못이 있다고 상담 해달라고 요청받는 경우

내적지향	심신의 안정화와 자기 위로	상담과 개인생활에 대해 의식적인 분리
		상담사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한 혼자만의 의식을 치름
		자기케어: 내담자에게 도움을 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 함
		상담의 전·중·후에 마인드플리스를 통해 마음 분리하기(명상, 호흡 등)
		상담시, 자기만의 위안이 되는 물건을 챙기기 (달달한 커피)
		스스로 통찰 및 상담을 하거나, 교육분석을 통해 도움을 받음
	의도적인 인식과 관점의 변환	상담사 돌봄의 중요성과 해석 관점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깨달음
		상담사로서 자책감이 느껴질 때 긍정적인 또는 다양한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함
		상담 시 상담자의 초점을, 상담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현재 내담자의 마음으로 전환함
		상담 이론 및 치료의 효과와 회복에 대한 확신으로 인내함
		상담자의 예상과 다른 상황에 대해 그 한계를 수용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인식을 전환함
		힘든 상담이라도 내방한 부부(가족)가 서로 연결되고 싶은 무의식적인 소망이 있음을 붙잡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음
외적지향	슈퍼비젼 및 동료상담을 진행함	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때 슈퍼비젼을 받음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때 상담윤리에 관한 슈퍼비젼을 받음
		유능한 상담사에게 필요한 기술과 도움을 받아 적용함
		동료 상담을 통해 내담자와의 상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생겨 놓쳤던 것을 알게 됨
	상담 관련 공부와 관련 세미나에 참여함.	상담자 자신의 문제나 내담자 문제해결을 위해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 참여함
		이마고 부부치료, 가트만 부부치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함
		내담자를 돕기 위한 관련 논문이나 정보를 공부함
		혼자 여러 사례를 찾아보며 사례연구를 함
	여가활동을 통해 즐거움 찾기	친구들과 만나 얘기하며 스트레스 풀기
		기도하거나 찬양 듣기 같은 종교적 의식을 하기
		신앙생활의 소그룹모임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피곤하고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경우에 기도, 책을 봄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여행도 다님
내적 성장과 관계회복을 가져다 준 가족상담	가족상담은 자기이해와 자기성장을 이루게 함	상담공부와 상담일을 한 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함
		상담을 통해 자기 탐색을 하면서 성장이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됨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극이 되어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한 것을 성장으로 이끌게 됨
		상담일을 하며 가족관계의 중요성과 내 가족의 건강성을 깨닫게됨
		상담이 능숙해지면서 가정에서도 편안해짐
	자신의 현재 가족관계(부부 부모-자녀)의 개선과 회복을 도모함	부부상담에서 스킬을 가르치며 상담사 부부관계의 소통 방법 변화
		남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 드러냄으로 깊은 연결감을 느낌
		상담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부부관계에 적용하고 좋아진 경험으로 상담관계에서 더 자신감 생김
		상담일을 하며 자신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깨어있게 됨
		상담일을 하며 상담사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부부가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생각하게 됨
		상담사 자신의 부부변화로 자녀의 방황하던 시절을 극복함

자신의 원가족 관계가 회복 됨	가족치료를 하면서 원가족이 이해되고 나를 돌보는 쪽으로 가며 독립심과 친밀감이 어우러진 자아분화를 하게 됨
	가족치료를 하며 자신의 원가족 관계가 회복되어짐
	상담사 원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더 힘이 생겨 어려웠던 점이나 오해를 풀었음
	가족치료를 하며 부모님을 원망하던 마음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통합됨
	가족치료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상담사 자신의 가계도를 그리며 자신과 가족관계를 파악함
	상담사 가족의 가계도를 및 패턴을 남편과 공유, 함께 대화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함
	시댁 관계의 고부갈등 원인이 문화충돌로 이해되어서 대화를 하여 관계 개선이 되었고 어려움이 없어짐
가족상담을 하면서 유연한 관점과 대처능력이 향상됨	가족상담에서 만나는 문제는 보편적이라는 생각과 안도감이듦
	내담자의 수요를 걱정하지 않고 유능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편안해지고자 함
	가족상담은 개개인을 따로 보지 않고 가족관계의 역동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개인 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바라보는 다른 시야, 치유적인 안경이 생김
	부부상담을 하면서 계속 쌓이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다양한 적응력을 기르게 됨
가족상담을 통해 직업 이상의 이타적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함.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반성장하는 가치가 있음을 알게됨
	내담자를 돕는 것에 가치를 발견함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좋아지면 부담이 큰 보람으로 느껴짐
	내담자의 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로 효과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자부심이 차오름
	가족치료의 도움과 회복에 대한 확신으로 인내하게 됨
	상담사가 내담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커서 포기하지 않음

가족상담으로 구조화하는 어려움

2인이상 가족상담 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자 중 일부는 2인 이상 가족상담 경험이 부족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례를 만나는 경우 당혹스럽고, 가족들이 싸울 때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 외 가족상담을 할 때 많은 상담시간 소요, 상담사의 많은 에너지 소모, 가족 구성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가족상담으로 구조화하는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구성원마다 가족의 갈등적 상황과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가족상담에 참여한다는 일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내담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상황들이 상담실에서 또 일어났을 때 싸우거나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그때 가장 이제 가장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분들이 싸우고 그냥 가버리실까, 이번 회기 상담이 망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참여자(1)

"제가 받는 가장 큰 (이제) 스트레스는 두 사람이 너무 너무 너무 적대적일 때 힘들어요. 너무(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요."-참여자(3)

커플 상담시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소통과 연결의 어려움

참여자의 일부 중에는 커플 상담을 하면서 커플이 서로 자기주장을 하며, 서로 비난하고 자기 얘

기만 하는 경우 가족상담사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도 상담의 경우 내담자를 쉽게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 부부의 외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완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다. 동거커플의 경우는 법적 부부가 아니다보니 갈등에 대해 이별이라는 선택을 하면 문제 종료가 되고, 상담과 대처의 한계를 경험하며 커플상담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부부가 서로 대화가 잘 되는 부부가 있나 하면 어떤 부부는 막 딴소리를 하고 서로 사실 비난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마고 대화를 하라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부부가 개성이 강하시고 그리고 이 남편분도 무조건 자기 틀이 너무 강하고 이 아내도 자기 틀이 너무 강한."-참여자(6)

"외도 상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그 내담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동행하는게 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금방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PTSD더라고요."-참여자(5)

신체적, 심리적 소진과 피로감 경험

참여자들 중 일부는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이 상대만 문제라는 의식을 내포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사의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이 느껴지는 상담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체력적 피로감과 신체화·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주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원형탈모가 왔었거든. 그래서 제가 진짜 스트레스 요즘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몸에 실질적으로 탈모가 생기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참여자(1)

"이렇게 그냥 손님 받는 여자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내가 감당을 못하겠고 이제 사람들이 쏟아놓고 가잖아요."-참여자(6)

가족상담사로서 전문적 자질에 대한 자신감 저하와 한계 경험

상담성과에 대한 부담감과 드랍에 대한 자책

가족상담사 연구 참여자 일부 중에는 기대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상담사로서의 한계를 경험한다. 가족상담사는 타인의 삶의 어려움을 돕고 타인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안내하는 촉진자로 내담자를 도울 수 없을 때, 치유할 수 없을 때 전문가로서 자격에 대한 의심과 자질, 능력 부족으로 민감해지고 무능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뭐 실수는 많은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무능감,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되는 직업인데 도와주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잖아. 내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되게 무능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도 참 힘든 거다. 그러면 이게 막 내가 제대로 못한다. 저는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참가자(6)

상담사의 역전이 반응으로 인한 상담 중 어려움

연구 참여자 일부는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 안에서 다양한 감정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자 상담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비슷할 때 역전이를 많이 경험하였고,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과제로 역전이를 경험하며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여 상담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상태로 딱 갔는데 예를 들어 내담자 부부의 남편이 저희 남편과 비슷한 스타일이다. 이러면 역전이가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참여자(3)

가족상담(2인이상)중 중립유지에 대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족·커플 상담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원할 때, 상담사의 역전이나 정서적 불안, 에너지의 소진 등으로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문제로 상처입은 가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사가 해결해주길 원하고 의존하고 싶어 하는데, 상담사의 불균형적 태도는 가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을 대하는 전문상담사로서 균형 있는 태도와 객관적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아내 편에 더 가깝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어쩔 때는 또 남편 편에 더 마음이 이렇게 가깝게 갈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참여자(5)

내적지향

심신의 안정화와 자기 위로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 중에 스트레스 경험이 상담사 개인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상담사의 개인 생활의 스트레스가 상담에 영향을 주기도 하여 상담이 안되는 악순환의 경험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상담사는 가족 내담자들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운 갈등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누적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정적 정서나 신체적 반응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상담사 자신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방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나는 상담사 역할을 벗어납니다.'라고 의식을 치르고 네 또 이제 '나는 지금부터 지금 이 아이들의 엄마이고 여기는 나의 집이고 나는 자연인 ***로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이제 혼자만의 의식을 치르는 거죠."-참여자(4)*

"내담자가 오기 전에 네 잠깐 앉아서 이렇게 마인드 플리스 호흡을 해요."- *참여자(5)*

의도적인 인식과 관점의 변환

연구 참여자들 중에 일부는 부정적 경험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의식하여 비합리적 사고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객관적 통찰을 통해 균형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 관점의 차이를 깨닫고, 지금의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마음을 전환하여 한계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긍정적 자세로 전환한다고 한다.

"제가 체력이 저하되면 역할을 축소해서 하게 되고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신체가 저하되기 때문에 짜증을 내게 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차단하기는 하죠."-참여자(2)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저희가 갖잖아요. 그러니깐 내담자에게도 굉장히 많은 안경을 줄 수 있죠. 상처가 희석되거나 축소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보는 또 다른 안경이 생기는 거잖아요."-참여자(3)

외적지향

슈퍼비젼 및 동료상담을 진행함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상담 진행에 대한 점검과 상담이 안되는 원인을 탐색하고 분석하기 위해 슈퍼비전을 받아 새로운 상담기술과 상담윤리를

이해하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동료 상담을 통해 내담자와 상담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넓히게 되며 상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상담사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게 하고, 상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개인적인 성찰과정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갖게 하고 성장을 통한 안정감을 갖게 한다.

"슈퍼비전도 받고 동료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푸는 것 같아요."-참여자(1)

"슈퍼비전을 받기도 하고 다른 관련된 참고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거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넘어갈 때는 그런 네 것들이 좀 훨씬 안정감을 주잖아요."-참여자(4)

상담 관련 공부와 관련 세미나에 참여함.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상담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족감과 무능감을 느낄 때, 전문성을 의심하고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사들도 지속적인 상담을 받거나 관련 자격 공부를 하고 여러 세미나를 참여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명상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 세우기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좋다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저는 다 쫓아가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참여자(4)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가트만 워크숍이 우연찮게 열려가지고 제가 일단 것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럼 어떤 관점에서 봐야되는지 알게 됐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5)

여가활동을 통해 즐거움 찾기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 스트레스와 소진을 다양한 여가활동과 친구나 상담 선후배, 동료들과 정기적 만남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유대감을 유지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는다고 한다. 특히 비밀 유지를 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개방의 어려움을 갖는 경우는 신앙생활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회복 촉진 요인으로 책을 보거나 여행 그리고 명상(마인드 플리스)을 한다고 하였다.

"저는 상담하기 전 늘 듣는 찬양이 있어 찬양을 듣고 제 마음을 충분히 또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좀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생각될 때 좀 이렇게 마음이 놓여요." -참여자(5)

"개인적으로는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사례에 대해서 얘기도 좀하고 질문도 하고 사례 관련해서 상담도 받고, 집에 가서는 남편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6)

"동료 관계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해서, 정기적으로 동료들하고 방학 때는 몇 박 며칠 같이 여행도 가고"-참여자(6)

내적 성장과 관계회복을 가져다 준 가족상담

가족상담은 자기이해와 자기성장을 이루게 함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내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내담자들의 가족상담 과정과 내담자와의 관계가 자극이 되어 상담사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어린시절 성장과정과 원가족의 영향 탐색, 가족관계, 가족내에서 자신이 역할을 돌아보고 자기점검과 자기성찰을 촉진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서 제가 되게 편안해지고 있고, 지금도 편안해져 가고 있는 중이고, 나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담자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참여자(2)

"상담사 일을 하면서 제가 이걸 적절히 잘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외향이 필요할 때 외향을 쓰고 내향이 필요할 때는 내향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적절히 조화롭게 쓰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없어요. 크게"-참여자(2)

자신의 현재 가족관계(부부, 부모-자녀)의 개선과 회복을 도모함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부부치료 상담공부를 통해 배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킬을 상담하면서 내담자에게 가르치고 상담사 자기 부부관계에도 적용하면서 깊은 대화로, 깊은 연결감, 안정감을 경험하면서 자기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도 좋은 변화를 보여주는 경험을 하였다.

"가족상담을 하면서 가족의 패러다임을 관계를 보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 본 만큼 나의 아내의 관계에 이것들을 기존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니까 좀 더 관계가 더 기능적으로 되고 서로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서"-참여자(1)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로서의 입장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반추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가족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고 더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3)

자신의 원가족 관계가 회복 됨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가족상담을 하면서 가족 내담자들의 문제와 고민을 통해 상담사 자신의 가족관계, 결혼생활, 원가족의 영향과 관계가 투사되고 반영되며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탐색하고 가족상담, 가족치료를 통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상담과정은 가족상담사 자신의 원가족을 더욱 더 잘 이해하게 성찰하고, 원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상담은 자신을 돌보며 독립심과 친밀감이 어우러지며 정체성 회복, 자존감 회복을 통해 대인관계 기능이 더욱 발전하여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통합되어 회복을 경험하고, 남편과 자녀들과 열린 공유를 통해 자신을 더 드러냄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친정문화 시댁의 문화와 지방의 문화끼리의 충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상담을 공부하기 전이기도 했고, 지금은 친정문화 시댁문화의 충돌이었구나 약간 이런 이해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참여자(2)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원망만 했다면 비난만 했다면 이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나를 돌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참여자(3)

가족상담을 통한 유연한 관점과 대처능력이 향상됨

참여자들 대부분은 가족상담에서 만나는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상담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기 성찰, 자기 통합을 이루며 유연한 관점과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 문제로 인식하던 것을 가족 관계성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하고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며 치유적인 안경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는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나는 내가 받지 못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돌보는 쪽으로 가니까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이 관계에 있어서도 원망만 있으면 단

절하거나 안 보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지만 그 안에서 또 친밀감도 있고 독립심도 있고 자아분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오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3)

가족상담을 통해 직업 이상의 이타적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함

본 연구 참여자는 상담 일과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반 성장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담사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 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로 성장하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 보람을 느끼며 자부심이 차오른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의 참여자는 가족상담으로 내담자를 돕고,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상담이라는 직업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것, 내가 안하면 안되는 것,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내담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면 상담사의 일은 사명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나도 그들 그 가족 안에 있는 나의 문제들을 같이 보면서 나도 성장하고 우리 가족도 성장하고 동반성장인 것 같습니다."-참여자(2)

"제가 상담자다 보니까 상담은 정말 아무한테 받으면 안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담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겠죠. 제가 어려운 과정을 겪었음에도 저는 제가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내담자)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도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사의 일은 사명 같아요. 그냥 직업이 아니고 사명 같아"-참여자(5)

논 의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의 상담 스트레스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질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상담 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가족상담사 6명에게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상담사의 상담 스트레스 경험의 5개 구성요소 즉, '가족상담으로 구조화하는 어려움', '가족상담사로서 전문적 자질에 대한 자신감 저하와 한계 경험', '심신의 안정화를 위한 의식적 노력', '상담 중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내적 성장과 관계 회복을 가져다 준 가족상담'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위구성요소의 의미 단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상담사가 가족상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크게 '가족상담으로 구조화하는 어려움'과 '전문적 자질에 대한 자신감 저하와 한계 경험'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구성 요인으로는 2인 이상 가족상담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 커플상담시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소통과 연결의 어려움, 신체적-심리적 소진과 피로감 경험, 상담 성과에 대한 부담감과 드랍에 대한 자책, 상담사의 역전이 반응으로 인한 상담 중 어려움, 가족상담 중 중립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상담자 스트레스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밝힌 여러 가지 상담사의 업무 중 상담관련 어려움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최혜윤, 이동혁(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가족상담사들의 상담스트레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 중에서 '2인 이상 가족상담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 '커플상담시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소통과 연결의 어려움', '가족상담 중 중립 유지에 대한 어려움'은 가족상담사가 경험하는 독특한 스트

레스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가족상담사들이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영역으로 가족상담사가 일반상담사와 차별화되는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노미화, 최연실, 2018). 또한 가족상담사들은 '2인 이상 가족상담이나 커플상담 시 비난하며 싸울 때'에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언급했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어려움'과 '가족상담 중에 상담사가 자기편이 되어주기 원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상담 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상담사들의 상담경험을 연구한 노미화, 최연실(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상담사들이 가족상담으로 구조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전문적 자질에 대한 자신감 저하와 한계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가족상담사들은 내담자에 따라 가족이나 커플상담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1인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을 경우 '2인 이상 가족상담을 많이 안 해 본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이나 '가족 역동의 균형 잡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상담사의 상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에서 내적으로는 '심신의 안정화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과 외적으로는 '상담 중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의 하위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심신의 안정화와 자기 위로', '의도적인 인식과 관점의 변환'과 '슈퍼비전 및 동료 상담을 진행함', '상담 관련 공부와 (관련) 세미나에 참여함', '여가활동을 통해 즐거움 찾기'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가족상담사들이 가족상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생존을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하위 구성요소 중 '심신의 안정화와 자기위로', '의도적인 인식과 관점의 변환'은 최희아(2017)의 연구와 유사하며 '통찰과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돌봄'을 제시하였다. 또한 '슈퍼비전 및 동료상담을 진행' 하거나 '상담관련 공부와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이미영(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문상담사들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슈퍼비젼, 주기적인 사례회의 참여, 동료상담사 모임 참여 등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가족상담사들의 상담 중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던 '상담 성과에 대한 부담감과 드랍에 대한 자책', '상담사의 역적이 반응으로 인한 상담 중 어려움'등이 '전문적 자질에 대한 자신감 저하와 한계경험'을 가져올 때 상담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극복하며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자기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한 원가족,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이 상담에서 투사되기도 하고, 역전이를 경험하기도 하며, 또한 내담자를 통해 배우기도 하면서 상담사로서의 전문성과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상담사의 성장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내적 성장과 관계 회복을 가져다 준 가족상담'으로 명명하였다. 하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자기 이해와 자기 성장을 이루게 함', '자신의 현재 가족관계(부부, 부모-자녀)의 개선과 회복을 도모함', '자신의 원가족 관계가 회복 됨', '가족상담을 하면서 유연한 관점과 대처능력이 향상됨', '가족상담을 통해 직업 이상의 이타적 가치를 발견'한 경험이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상담사의 업무와 가족관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며(Polson, Piercy, & Nida, 1998; Racusin, Abramowitz, & Herrera, 1981), 가족상담사들은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가

가족이라고 보고한 연구(김수지, 정문자, 2010; 노미화, 최연실, 2018)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가족상담이 상담사에게 주는 영향으로 자신의 현재 가족관계(부부, 부모-자녀)의 개선과 회복을 도모하고, 자신의 원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족상담사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전문성 신장에 영향을 끼치는 상담과정을 통해 얻는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상담사는 상담 중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거나 가족체계를 구조화하면서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나 상처에 대한 역전이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를 슈퍼비젼이나 교육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 자기 성장을 경험한다는 연구(엄영숙, 정연득, 2021)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상담사들의 성장을 포함하는 유익은 가족상담사가 효과적인 상담개입과 안정적인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상담현장에서 선순환 작용을 하여 상담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연구대상자가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나타냈으나 보편적이지 않은 반응들도 의미 단위 개념화에 포함되어 이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수집과 공통적인 의미도출을 통해 더욱 보편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들의 상담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성장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나 보다 질적인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양적 연구와 병행되어질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가족상담사들은 상담현장에서 내담자 구성이나 상담목표가 일반상담과 다르게 구조화 되므로 가족상담사들을 위한 스트레스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커플상담 스트레스와 가족상담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분류를 적용한 것이 한계로 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상담 영역을 커플상담과 가족상담, 그 밖의 관계로 세분화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경력이 5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하였으나 상담 경력으로 인한 상담자의 발달 수준과 스트레스를 자각하고 관리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상담사의 경력에 따른 발달 수준과 숙련도를 구분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상담 기관별 특성 즉, (공공)기관 소속과 사설 상담소의 환경적 차이로 인한 가족상담사의 스트레스 정도, 대처방안의 실효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와 직장으로 소속된 상담소로 구분하여 가족상담사의 스트레스 정도와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의 실제 상담 스트레스 경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그것을 통한 성장과 유익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상담 중 상담 스트레스에 대해 자각을 하며 심신의 안정화를 위해 의도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을 간구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가족상담사 개인의 성숙과 관계의 회복을 가져왔다.

참 고 문 헌

김수지, 정문자 (2010). 가족상담: 가족상담자의 상담 관련 전문성이 부부관계와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1**(3), 1289-1304.

김은주, 오화철 (2020). 상담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영성에 미치는 영향: 소명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3), 75-97.

김정민, 강다연 (2011). 정서경험특성,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 연구 , 29**(5), 19-32.

김혜미, 오인수 (2016). 숙련상담자의 좌절경험 및 극복과정의 구조 분석. **상담학연구, 17**(5), 159-180.

노미화, 최연실 (2015). 가족상담사들의 상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117-141.

노미화, 최연실 (2018).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6**(3), 45-61.

박성숙 (2013). **직장인 스트레스 분석: 위기상담사와 일반상담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순진 (2014). **상담자의 직업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소혜정 (2005).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성자 (2002). **가족과 가족상담(제2판)**. 서울: 성문사.

안재순 (2021). 상담사의 직무만족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인문사회 21, 12**(3), 357-370.

양수민 (2022. 04. 07.) 코로나 시대 심리상담 떴지만 품질 딜레마, 학계도 공방 중.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732#home에서 2022. 6. 30 인출.

엄영숙, 정연득 (2021). 가족상담사의 역전이 경험 연구: 근거이론 접근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9**(2), 281-319.

이미영 (2016). **Wee 프로젝트 전문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정 (2014).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2**(1), 81-99.

이 셈 (2011).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 능력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희세, 백선아, 임은희 (2017). **가족치료 및 상담.** 경기도: 공동체.

임세희, 송아영 (2021). 코로나 이후 주거생활의 변화가 가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525-538).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용선 (2018). **전문 상담사 소진회복 경험**.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경숙, 서윤경, 유춘화, 이보배, 김예정 (2017). 상담자의 상담과정 내 스트레스의 회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 21, 8**(2), 365-386.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최영희 (1993). **질적간호연구** (pp. 269-341). 서울: 수문사

최윤미 (2003). **한국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직무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혜윤, 이동혁 (2013). 한국판 상담자 스트레스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5), 3217-3236.

최희아 (2017). **심리치료사의 소진과 자기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선민 (2013). **가족치료수련생의 전문가 되어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orey, M. S., & Corey, G. (2003).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

Critis-Christoph, P., & Mintz, J. (1991). Implications of therapist effects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comparative studies of psychotherap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20-26.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Phenomenology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장연집, 박은숙, 김미영, 정승은 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85년에 출판)

Huppert, F. D., Bufka, L. F., Barlow, D. H., Gorman, J. M., Shear, M. K., & Woods, S. W. (2001). Therapists, therapist variables,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outcomes in a multicenter trial for panic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747-755.

Kim, D. M., Wampold, B. E., & Bolt, D. M. (2006). Therapist effects in psychotherapy: *A random effects modeling of NIMH TDCRP data. Psychotherapy Research, 16*(2), 161-172.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olson, M., Piercy, F., & Nida, R. (1998). Program and trainee lifestyle stress. A survey of AAMFT student membe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1), 95-112.

Rober, P. (2011). The therapist's experiencing in family therapy practice. *Journal of Family Therapy, 33*(3), 233-255.

Racusin, G. R., Abramowitz, S. I., &Herrera, H. R. (1981). Competing role demands of therapists'professional and marital liv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 1* (1), 103-117.

Wordden, M. (2012). **가족상담 단계별 접근(제3판)***[Family Therapy Basics 3rd Edition.]*. (신혜종, 정수경 역). 서울: CENGAGE Learning Korea(주)(원전은 2003에 출판).

원 고 접 수 일 : 2022년 09월 18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2년 10월 03일
게 재 확 정 일 : 2022년 10월 19일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111-128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ress and Response and Growth of Family Counselors

Choi, Mi Yong
Happiness Filled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Lee, Youn Gju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Kim, Young Eun
California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Kim, Hyun Joo
Kayang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examine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counseling stress experience of family counselors, six family counselors with more than 5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were interviewed in-depth and analyz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5 components, 17 sub-components, and 89 semantic units were derived. The components are five components of the family counselor's counseling stress experience, that is, 'difficulty in structuring through family counseling', 'decreased confidence and limitations in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s a family counselor', 'conscious efforts to stabilize the mind and body', It was categorized into 'active efforts to resolve difficulties during counseling' and 'family counseling that brought about internal growth and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As a resul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e benefits of self-understanding and growth in the counseling stress experience and overcoming process of family counselor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children, and their family of origin. Finall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ds: family counselor, counseling stress, countermeasures, growth of family counselors, phenomenological research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129-146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의 매개효과: 상담센터(온라인)에 방문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최 윤 진*	윤 영 남**	김 민 하***	이 재 선****	안 종 화*****	구 경 희******
마인드웰상담 센터	국방부 상담센터	위밍쌤심리 상담소	마인드웰상담 센터	희망부부가족 상담센터	GNC상담소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성생활 만족 및 부부적응의 관계를 탐색하고,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가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상담센터를 방문한 기혼남녀 총 121명을 대상으로 가족 의사소통 수준과 성생활 만족도 및 부부적응 수준에 대해 설문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t 검증,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의 성생활 만족,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부부의 성생활 만족과 부부적응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며, 부부의 성생활 만족이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성생활 만족도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가족 구성원들 간에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 기혼남녀는 부부의 성생활에서도 더 높은 만족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의 적응 및 만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부적응을 높이기 위한 가족의 의사소통수준과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제안을 논의에 제시하였다.

주요어: 기혼남녀, 가족 의사소통, 부부적응, 성생활 만족, 매개효과

* 제1저자: 최윤진, 마인드웰상담센터
** 제2저자: 윤영남, 국방부 상담센터
*** 제3저자: 김민하, 위밍쌤심리상담소
**** 제4저자: 이재선, 마인드웰상담센터
***** 제5저자: 안종화, 희망부부가족상담센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구경희, GNC상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46-11
(E-mail: gyunghee@daybreak.edu)

결혼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인생의 관문이며 생애주기의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온 두 남녀는 결혼함과 동시에 부부가 되고 함께 공유된 일상에서 실질적인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부부간의 기대와 욕구가 불일치되고 대립과 충돌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며, 결혼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결혼생활의 만족 정도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자녀, 주변의 가족 및 사회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위해 가족 의사소통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정희, 2019).

가족 의사소통은 가족구성원 사이에 정보, 지식, 신념, 감정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장해순, 이만제, 2012). 핵가족 시대의 가족 의사소통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부부 의사소통과 부모, 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최은진, 정혜정, 2020).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은 낮아지고(조유리, 2000).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정서적이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이지민, 2013). 바람직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행복한 가족의 원동력이 되므로 효과적인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박미경, 정혜정, 황미진, 2022).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 만족은 서로 영향을 주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으로, 부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함께 서로의 역할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사랑과 존경을 나타냄으로 자녀들에게 의사소통의 산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황경애, 하은영, 2007).

특히 부모와 자녀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경험과 감정 및 신념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공통적인 이해를 이루게 되며(권미경, 1993),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부모, 자녀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기도하고 감정의 고립을 가져오기도 하며(오혜림, 이주영 2018), 자녀의 스트레스 인식이나 이에 대한 대처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포함된 의미나 삶의 양식을 내면화하므로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은 자녀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한소리, 2015).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부모, 자녀 사이에 많이 하게 되면 가족 기능인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하용길, 함경애, 천성문, 2018). 이와 같이 부부와 자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는 부모의 지지를 받고 수용됨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므로 가족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김양숙, 1995). 진신남, 신혜진, 송은정과 염화숙(2021)은 원가족에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부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부부적응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 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하위개념으로 결혼만족도나 행복도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강은령, 1988; Spanier & Lewis, 1980). Spanier(1976)는 부부적응을 일컬어 결혼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일치로 인한 곤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개인적인 불안, 결혼 만족, 부부간의 응집성,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일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부부적응에 어려움이 생겨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좋은 부부관계

란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가는 관계이며(송동림, 2009), 부부갈등과 긍정감정을 변화시킴으로써 부부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다(서미아, 2014). 김시업(1999)은 부부적응을 상호 역할과 성실한 수행의 의지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부역할의 측면, 서로 독립된 인격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부관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성격적 측면, 신체적 결합만이 아니라 부부의 감정과 사고와 같은 심리적, 정신적 결합도 포함된 성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족 관련 변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변인의 순으로 이동되어왔다. 다시 말하면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더불어 개인 내적 변인, 가족 변인이나 부부간의 상호작용 변인으로 확장되었다(곽민하, 전혜성, 2016).

부부적응과 관련된 초기 연구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차이, 연령, 결혼기간,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 성생활 등의 연구가 많았다. 주요 연구의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부부적응이 높은 것(노익상, 2002; 윤애란, 이인수, 2013)으로 보고된 반면, Kamo(1993)는 미국사회의 부부적응은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부의 교육수준도 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최주희, 2000), 최근 곽민하와 전혜성(2016)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제공은 배우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교환이 이루어져 부부관계 적응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수지, 2010).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고정애, 2004; 곽민하, 전혜성, 2016), 부모 세대의 부부관계가 자녀 세대의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 부분으로 세대 전이가 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정윤경, 최지현, 2010). 자녀와의 유대감에 따라 높은 결혼만족도를 유발하며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으면 결혼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가 결혼 만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희진, 2004; 조지은, 2005).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부간 요인 연구의 흐름을 보면 개인 내적 변인으로 애착 손상, 용서, 자기효능감, 자기 자비, 삶의 질 등이 연구되었으며(구혜진, 서미아, 2017; 김주희, 박한종, 신혜숙, 한수경, 2018), 가족 변인이나 부부간 상호작용 변인으로 부부의사소통, 갈등대처방식, 원 가족 건강성, 가족 탄력성, 가족지지, 부부갈등, 탈중심화, 원 가족 규칙(곽민하, 전혜성, 2016; 김영기, 한성열, 한민, 2011; 김인아, 2017; 김주희, 외 2018; 박미화, 홍지영, 2019; 현인순, 박용순 송진영, 2015), 부부의 성역할 태도, 부부간의 성생활 만족도(손보영, 김수정, 2020; 이주안, 2022; 전혜성, 서미아, 2012),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으로 의사소통(모의희, 김재환, 2002; 박미향, 2012; 배윤경, 2019)등과 같은 주제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혼자들에게 결혼생활의 만족은 성생활의 만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Marokoff & Gilliland, 1997).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은 성생활이 활발하여 성생활 만족도가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신숙, 1997). 부부의 성생활 만족은 의사소통 문제의 불만족이 감소되며(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의 가족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부의 성생활 만족 요인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안용주, 2017). 부부는 결혼생활에 있어 성생활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특히 상호교환적이고 개방적인 성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부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일치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를 높

일 수 있다(김진영, 2005). 안창현과 김진이(2008)는 부부의 갈등대처방식 중에서 감정 및 회피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부 의사소통을 제시하였고, 김요완(2000)은 부부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며 언어가 개방적이고 감정표현이 잘 이루어지는 부부가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와 성생활 만족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정애(2004)는 긍정적인 부부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성 만족이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 만족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김혜정(2020)은 성생활 인식 및 주관적 행복감은 부부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부간의 이해수준과 만족을 촉진 시켜 부부적응을 높였고(권정혜, 임승락, 1998), 부부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 부부 의사소통은 부부적응의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이인정, 2011). 또한 부부 의사소통은 독립적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쳤고(모의희, 김재환, 2002), 부부 의사소통의 변화로 성생활 만족이 향상되었으며(강말숙, 2003),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성생활 적응과 부부적응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권정혜, 채규만, 2000).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부부의 성생활 만족은 부부의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적 만족의 여부에 따라 부부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성생활이 결혼이나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부부관계의 만족도나 성공적인 결혼과 중요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므로, 다른 역할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감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서선영, 2006).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을 매개변수로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해 가족 의사소통과 성생활 만족의 독립변수 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변수로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 선정은 연구의 용이성을 위해 상담센터(온라인)에 접속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기혼남녀의 결혼 만족을 높이거나 삶의 질을 증진 시키는 과정에서 부부문제와 관련된 상담 분야에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이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에서 성생활 만족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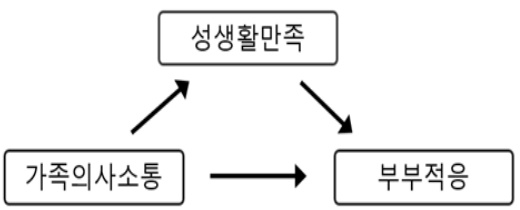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D대학교 부설 상담센터에 개인 또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라인으로 방문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D대학교 내 부설 상담센터는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내에 많은 홍보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료수집과정에서 통계법 33조에 의해 개인의 비밀보장을 명시했으며 연구자료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설문 실시 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021년 9월 19일이며, 최종 성인남녀 설문지는 163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사귀는 중, 동거, 사별,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적응 비교

변수		빈도, 명(%)	부부적응	
			평균(*SD*)	*F*
성별	남자	32(26.4)	41.66(8.20)	1.100*
	여자	89(73.6)	37.57(10.33)	
나이	40세 미만	40(33.1)	39.20(10.99)	
	40~49세	47(38.8)	38.11(10.51)	.132
	50세 이상	34(28.1)	38.7(7.86)	
거주지	한국	70(57.9)	39.84(9.42)	
	미국	43(35.5)	37.30(10.66)	1.307
	그 외 국가	8(6.6)	35.50(10.09)	
종교	불교	5(4.1)	32.40(11.97)	
	기독교	71(58.7)	39.73(10.15)	1.517
	카톨릭	14(11.6)	35.21(7.84)	
	없음	31(25.6)	38.74(9.72)	
관계형태	결혼	115(95.0)	38.67(9.70)	1.144
	재혼	6(5.0)	38.33(15.10)	
교육수준	고졸	8(6.6)	35.88(8.51)	
	대졸	78(64.5)	37.44(10.88)	2.975
	대학원 이상	35(28.9)	42.00(7.00)	
연간수입	~2639만 원	17(14.0)	40.82(10.24)	
	~4528만 원	32(26.4)	38.34(12.10)	.533
	~9931만 원	47(38.8)	38.98(6.95)	
	9931만 원 이상	25(20.7)	36.96±11.64	
자녀	0명	18(14.7)	43.28±10.14	2.240
	1명	19(15.7)	37.11±9.30	
	2명	58(47.9)	37.03±9.79	
	3명 이상	26(21.5)	40.20±9.89	

주. *p<.05

이혼, 별거 형태를 제외하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 121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기혼남녀 121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 종교, 결혼 관계형태 및 자녀 수, 연간수입 등으로 조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과에 제시한 표 1과 같다. 먼저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32명(26.4%), 여자 89명(73.6%)으로 남자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았고, 전체 평균 나이는 43.7세±8.8세로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49세 사이로 47명(38.8%), 다음으로 40세 미만은 40명(33.1%), 50세 이상은 34명(28.1%)의 구성비를 보였다. 거주지는 한국이 70(57.9)%로 가장 많고, 미국이 43(35.5)%로 많으며 그 외 국가가 8(6.6)%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은 71(58.7)%를 차지하고, 무교가 31(25.6)%, 카톨릭 14(11.6)%, 불교 5(4.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자가 78(64.5)%로 많았고, 대학원 이상자는 석사, 박사 졸업 및 수료자가 35(28.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자는 8(6.6.)%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로서 초혼이 115(95.0)%, 재혼이 6(5.0)%이며, 자녀 수는 1명이 19(15.7)%, 2명이 28(47.9)%, 3명이 26(21.5)%, 자녀가 없는 대상자는 18(14.7)%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수입은 연 4528만원~9931만원의 소득 가정이 47(38.8)%, 연 2639만원~4528만원 수입을 보인 가정이 32(26.4)%, 연 9931만원 이상의 소득 가정이 25(20.7)%의 순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연 2689만원의 소득 가정이 17(1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측정 도구

부부적응척도

부부적응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DAS(부부/커플 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R-DAS(부부/커플 적응척도)는 Spanier(1976)가 제작한 DAS(Dyadic Adjustment Scale)를 최성일(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했고,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부부적응척도는 총 32개 문항에는 결혼생활에서 겪는 불일치로 인한 곤란, 결혼만족도, 부부간의 응집도 등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차원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조 현, 최승미, 오현주, 권정혜, 2011). 가중치가 다른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에 따라 1에서 6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32개 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14개 문항은 Busby 등(1995)이 DAS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RDAS)로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DAS와 비교 시 더 높은 구성개념 타당도와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지니고 있다. 각 문항은 '항상 불일치', '거의 대부분 불일치', '자주 불일치', '가끔 불일치', '거의 대부분 일치', '항상 일치'까지 문항에 따라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최성일, 2004). DAS에서 산출되는 점수는 더 낮은 점수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결혼적응도 점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일치도(Dyadic Consensus), 응집도(Dyadic Cohesion), 만족도(Dyadic Satisfaction) 3개의 하위척도로 점수들로 구성하였다.

가족 의사소통

가족 의사소통척도는 Barnes와 Olson(1985)이 개발한 FCS(Family Communication Scale)를 사용하였으며, Kim(2014)은 연구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ts Relationship With Family Functioning in South Koreans에서 부부, 부모-청소년 의사소통에 기초한 10개 문항으로 한국어판으로 번안해서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10개 문항에는 가족구성원의 의사소통방법, 경청자, 애정표현, 신념과 생각을 서로 함께 의논, 서로에게 진실한 감정표현 등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음', '모르겠음', '어느 정도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의사소통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erogatis와 Melisaratos(1979)가 개발한 DSFI(Derogatis Sexual Functioning Inventory), 원문항 254문항을, 이를 장순복(1988)이 번안, 타당화한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121문항 중 성생활 만족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DSFI 원본에서는 Yes 혹은 No의 2점 척도의 설문이었지만 김요완(2000)이 연구의 세밀성을 기하기 위해 Likert type의 5점 척도를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생활 만족도 10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63이었다.

분석방법

기혼남녀 12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제시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통해 백분율, 평균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일원 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Scheffe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기혼남녀들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부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또는 경향성을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들인 가족 의사소통, 부부적응 및 성생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접근 모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3단계 접근 모형 중 [모형1]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모형2]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3]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섯째,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사이에서 성생활 만족도의 정확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적응의 차이

본 연구의 보다 깊이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 독립변수인 가족 의사소통과 매개변수인 성생활 만족도 이외에 인구학적 특성의 어떠한 부분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t-검정과 일원 배치분산분석 및 Scheffe 방법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서 부부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F=1.100, p<.05), 남자가 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남자 41.66 ± 8.20, 여자 37.57 ± 10.33, p=.046). 교육수준에 따른 세 집단은

F=2.975, p=.055의 값을 보였으며, 자녀의 수에 따른 네 집단 간은 F=2.240, p=.087로 나타나 부부적응의 차이에 각각 경향성만 보였다. 그 외 나이, 거주지, 종교, 관계형태 및 연간수입에 따른 각 집단 간에는 부부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보다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 부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나 경향성을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더미(dummy)변수로 변경하였으며, 성별에서는 남자집단, 교육수준에서는 고졸 집단, 자녀의 수에서는 자녀 없음 집단을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였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 및 분산팽창계수(VIF)를 적용하여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2단계는 가족 의사소통을, 3단계는 성생활 만족도를 순차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모형 적합성을 알아본 결과, 모든 단계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2.653, p=.019, F=8.643, p<.001, F=10.514, p<.001).

단계별 회기모형에서 1단계 모형은 12.3%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기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자녀가 없는 집단 대비 자녀가 1명인 집단(β=-.243, p=.040)과 자녀가 2명인 집단(β=-.312, p=.019)은 부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 3명인 집단은 자녀가 없는 집단 대비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β=-.104, p>.05), 남자집단 대비 여자집단, 고졸 집단 대비 대졸 집단 및 대학원 이상 집단도 각각 β=-.128, p>.05, β=-.127, p>.05, β=.294, 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즉,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 자녀가 없는 집단 대비 자녀가 1명인 집단보다 2명인 집단이 부부적응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3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변수들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2. 가족 의사소통및 성생활 만족도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tol	vif	B	β	tol	vif	B	β	tol	vif
인구사회학적 요인	(상수)	41.752				24.347				11.150			
	성별(여)[a]	2.880	.128	.886	.129	-2.183	-.097	.883	1.133	-.582	-.026	.836	1.196
	대졸[b]	2.637	.127	.258	.880	2.494	.121	.258	3.880	4.476	.216	.250	3.995
	대졸이상[b]	6.422	.294	.251	3.991	4.068	.186	.247	4.042	5.364	.246	.245	4.086
	자녀1[c]	6.604	.243*	.566	.768	-9.046	.332**	.555	1.803	-10.542	-.387***	.543	1.841
	자녀2[c]	6.181	.312*	.452	2.214	-8.292	-.418***	.442	2.264	-9.069	-.458***	.438	2.283
	자녀3[c]	2.506	-.104	.515	.942	-7.186	-.298**	.474	2.109	-8.415	-.349**	.467	2.141
가족 의사소통						.611	.507***	.880	1.136	.469	.389***	.763	1.310
성생활 만족도										.762	.332***	.730	1.371
R^2(Adj.R^2)		.123(.076)				.349(.308)				.429(.388)			
F(p)		2.653*(.019)				8.643***(.000)				10.514***(.000)			

주. *p<.05, **p<.01, ***p<.001 / 주. a, b, c의 reference 값은 각각 남자, 고졸, 자녀 없음

가족 의사소통(β=.507, p=.000), 자녀 3명(β=-.298, p<.01), 자녀 1명(β=-.332, p<.01), 자녀 2명(β=-.418,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부부적응에 대해 가족 의사소통은 정적 영향을, 자녀의 수는 부적 영향을 보임으로써, 가족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높게 나타나고,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자녀의 수가 3명인 집단보다 1명인 집단에서, 그리고 1명인 집단보다 2명인 집단에서 부부적응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은 4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부부적응이 높은 정도는 가족 의사소통(β=.389, p<.001), 성생활 만족도(β=.332, p<.001), 자녀 3명(β=-.349, p<.01), 자녀 1명(β=-.387, p<.001), 자녀 2명(β=-.458,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의사소통및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자녀가 없는 집단 대비 자녀의 수가 3명, 1명, 2명 순으로 부부적응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 부부적응 및 성생활 만족도 간의 상관분석

연구의 주요변수들인 가족 의사소통, 부부적응 및 성생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 3과 같이 확인한 결과, 가족 의사소통은 부부적응척도(r=.49, p<.01) 및 성생활 만족도(r=.42, p<.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생활 만족도 역시 부부적응척도(r=.45,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3. 가족 의사소통, 부부적응 및 성생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N=121)

	가족 의사소통	성생활 만족도	부부 적응척도
가족 의사소통	1		
성생활 만족도	.421**	1	
부부적응척도	.487**	.446**	1

주. **p<.01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접근 모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표 4와 같다. 독립변수인 가족의 의사소통이 매개변수인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모형1]의 회귀분석 결과, 가족 의사소통이 성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56, p<.001). 독립변수인 가족 의사소통이 종속변수인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모형2]의 결과에서도 가족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07, p<.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가족 의사소통과 성생활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한 회귀분석[모형3]에서도 가족 의사소통(β=.389, p<.001)과 성생활 만족도(β=.332, p<.001)가 부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2]와 [모형3]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가족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모형2]보다 [모형3]에서 감소되었으므로(β=.507, p<.001 → β=.389, p<.001), 매개변수인 성생활 만족도는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Sobel test를 사용하여 성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도가 유의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z=2.857, p=.004). 즉, 가족 의사소통은 부부적응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성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다시 부부적응 수준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표 4.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 성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다변량 회귀분석 (N=121)

변수 \ 모형		모형1 (독립변수→매개변수)			모형2 (독립변수→종속변수)			모형3 (독립/매개변수→종속변수)		
		B(SE)	b	t(p)	B(SE)	b	t(p)	B(SE)	b	t(p)
인구사회학적 요인	상수	17.325 (2.102)		8.242	24.347 (4.563)		5.336	11.150 (5.431)		2.053
	성별(여)[a]	-2.101 (.836)	-.215	-2.514*	-2.183 (.814)	-.097	-1.203	-.582 (1.753)	-.026	-.332
	대졸[b]	-2.603 (1.425)	-.289	-1.827	2.494 (3.093)	.121	.806	4.476 (2.952)	.216	1.516
	대졸이상[b]	-1.701 (1.535)	.179	-1.108	4.068 (3.333)	.186	1.221	5.364 (3.152)	.246	1.702
	자녀1[c]	1.965 (1.278)	.166	1.538	-9.046 (2.774)	.332	-3.261**	-10.542 (2.637)	-.387	-3.999***
	자녀2[c]	1.020 (1.043)	.118	.978	-8.292 (2.264)	.418	-3.663***	-9.069 (2.138)	-.458	-4.241***
	자녀3[c]	1.613 (1.224)	.154	1.317	-7.186 (2.657)	.298	-2.704**	-8.415 (2.519)	-.349	-3.341**
가족 의사소통		.187 (.045)	.356	4.155***	.611 (.098)	.507	6.264***	.469 (.099)	.389	4.759***
성생활 만족도								.762 (.192)	.332	3.966***
R^2(adj.R^2)		.270(.225)			.349(.308)			.429(.388)		
F(p)		5.982***			8.643***			10.514***		

주. *p<.05, **p<.01, ***p<.001 / 주. a, b, c의 reference 값은 각각 남자, 고졸, 자녀 없음이다.

표 5. 성생활 만족도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121)

변수 경로	*z*	*p*
가족 의사소통→ 성생활 만족도→ 부부적응	2.857	.044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 자녀 수에 따른 부부적응도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이선주, 1988; 이정은, 이영호, 2000; 정병완, 2004)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또는 작을수록 높다고 하여 다른 견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수에 가족 의사소통을 더하여 비교했을 때에는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자녀 수가 2명이나 3명인 집단보다 부부적응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자녀 수, 가족 의사소통에 더하여 성생활 만족도를 같이 고려했을 때, 자녀 수가 3명인 경우의 부부적응도가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자녀 수와 가족 의사소통을 고려했을 때는 자녀 수가 적은 것이 부부적응도를 높이지만 성생활 만족도를 반영할 경우는 자녀 수가 많은 것이 부부적응도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미순(2014)의 연구에서 총 자녀 수는 친밀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의사소통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본 연구

결과와 그 흐름을 같이한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의사소통 정도가 가장 높고 중년기 여성의 경우 성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김혜정(202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반면 자녀 수와 성생활 만족도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김진영(2005)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며, 정서적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정병완(2004)의 연구는 자녀 수가 적은 것이 부부적응도를 높이지만 성생활 만족도를 반영할 경우 자녀 수가 많은 것이 부부적응도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된다. 이런 상이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향후 자녀 수와 성만족도, 그리고 자녀 수와 부부적응 간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관계에서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이 성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성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Mac Neil & Byes, 1997), 부부 대화법 프로그램에 성 의사소통을 첨가했을 때 성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김요완, 2000), 그리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사용할수록 성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김영기 외, 2011)와 맥을 같이 하며, 목회자들의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을 연구한 김미순(2014)의 연구에서도 부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정서적, 인지적, 성적친밀감이 높다는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결혼한 지 6년 이상 된 부부에게 의사소통만족도와 성 만족도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유 옥, 2017)와도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가족 구성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부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성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성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생활에서의 보다 큰 만족도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세 번째, 본 연구결과는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관계에서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가족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족 의사소통이 가족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문승리, 정준우, 이원석, 2021)와 일맥상통하며,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공격, 비난이 포함된 의사소통은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를 낮췄다(박영화, 고재흥, 2005)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기존의 연구들(김영선, 이경재, 2015; 김은정, 2007; 김정희, 2019)을 보면 주로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와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리얼미터(2022)의 조사와 진미정 등(2020)의 연구에서는 COVID 19시대에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가족 간 갈등이나 다툼을 겪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졌는데, 이는 부부 의사소통 못지않게 가족 의사소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원가족 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부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신남 외, 2021). 아직까지는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네 번째, 본 연구결과는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도가 부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성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는 원영옥와 곽종형(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생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은 높아졌다는

이주안(202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 이슈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적 상황에서 성생활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기란 쉽지는 않다. 따라서 성생활이란 주제로 보다 활발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성생활 만족도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진(2004)은 총 210편의 연구논문들을 빈도분석 하여 결혼 만족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의사소통을 꼽았으며, 여섯요인들 중 부부의 성이 포함되었는데, 이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 결혼 만족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데, 성 만족도와 결합했을 때는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고정애와 박 경(2003)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성적친밀감이 높고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혼 만족도의 수준이 높다는 손강숙와 주영아(2015)의 연구 그리고 부부 의사소통은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부친밀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정희(2019)의 연구결과 역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해보자면, 기혼남녀의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성생활 만족도가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에서의 적응 수준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관계에서 가족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부부적응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매개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연구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비율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연구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보여진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비율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요구되며,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센터의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생활 만족과 부부적응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응답 수준을 측정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가지며, 또한 설문지를 통해 개인 내적인 사생활영역을 표현하는 데 한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를 병행해 나간다면 연구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관계에서 성생활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 부부적응을 향상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부부적응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데, 특히 의사소통과 성생활 부분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에 사용했을 경우 부부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볼 것을 제안한다. 남편과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자신 및 아내의 결혼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문선희, 2014), 교류분석적 집단 프로그램이 부부 의사소통 및 친밀감 증진과(백경미, 최외선, 2011), 부모-자녀 관계 및 의사소통에 미친다는 연구(김윤주, 2008)를 감안할 때, 부모-자녀 소통 프로그램 또는 가족 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

관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면, 부부의 성생활 만족과 효율적인 부부적응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가족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관계에서 가족 의사소통을 통한 성 만족도와 부부적응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 복지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지역사회 청소년·가족서비스 연계 시범사업에서의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단절된 부모 대화를 재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서정아(2016)의 연구결과를 발판삼아, 시, 구 단위별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그 접근성을 용이하게 구축해나간다면 장기적 차원에서 부부적응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센터(온라인) 방문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상담의 욕구가 없거나 상담적 도움이 필요치 않은 일반 기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강말숙 (2003). **성 상담 프로그램이 신혼기 여성의 성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은령 (1988).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취업 주부/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정애, 박 경 (2003). 기혼 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 관련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다재학적 접근, 3**(2), 75-91.

고정애 (2004). **기혼 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 관련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민하, 전혜성 (2016). 부부갈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탈중심화 및 용서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4**(3), 339-359.

구혜진, 서미아 (2017). 중년기 여성의 애착손상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401-418.

권미경 (1993).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기표현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정혜, 임승락 (1998). 우울증상이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2), 17-31.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19**(2), 207-218.

김미순 (2014). **목회자 부부의 의사소통능력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시업 (1999). **결혼과 가정.** 서울:학지사.

김양숙 (199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기, 한성열, 한 민 (2011).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 성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2), 199-218.

김영선, 이경재 (2015).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실천학회지, 6**(2), 184-237.

김요완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수준의 성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원우론집, 33**, 170-210. 연세대학교 대학원원우회.

김윤주 (2011). **교류분석을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2007). **정서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인아 (201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부모 교육연구, 9**(3), 53-74.

김정희 (2019). 기혼남녀의 부부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4), 57-73.

김주희, 박한종, 신혜숙, 한수경 (2018). 자기효능감, 부부적응도 및 가족지지가 난임 부부의 양생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동서간호학연구지, 24**(1), 44-51.

김진영 (2005). **기혼여성의 성행동 및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정 (2020). **중년여성이 지각하는 성생활 인식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부부의사소통 매개효과.**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진 (2004). 한국 부부의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5**(3), 839-853.

노익상 (2002). **한국도시 기혼남녀의 배우자와 다중 만족도 연구-개인적, 환경적, 상호작용 요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리얼미터 (2022). **개인의 '코로나 블루' 경험: YTN 박병석 국회의장실 공동 신년 여론조사** [온라인 기사]. 2022. 08. 05. https://realmeter.net/리얼미터-코로나19우울감경험54.6가족간갈등30.2ytn.

모의희, 김재환 (2002).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87-900.

문선희 (2014). 중년기 부부의 가족관계와 결혼만족: 커플자료를 이용한 자기(Actor)-상대방효과(Partner) 모델(APIM).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0), 209-210.

문승리, 정준우, 이원석 (2021). 주의회복과 농촌관광 체험만족이 가족 의사소통과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관광연구저널, 35**(5), 97-112.

박미경, 정혜정, 황미진 (2022). 중년기 기혼남녀의 체면 민감성과 행복의 관계에서 가족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30**(1), 37-67.

박미화, 홍지영 (2019).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9**(14), 659-689.

박미향, 홍달아기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와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라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98-398.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백경미, 최외선 (2011). 부부 의사소통 및 친밀감 증진을 위한 교류분석적 부부미술치료 사례. **미술치료연구, 19**(5), 1113-1133.

배윤경 (2019). **보조생식술을 받은 부부의 부부적응, 부부의사소통, 정신건강이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미아 (2014). 애착손상을 경험한 유방암 여성의 부부친밀감 및 정신건강에 대한 용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361-384.

서선영 (2006). **한국 부부들의 성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정아 (2016). 지역사회 청소년·가족서비스 연계 시

범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91-716.

손강숙, 주영아 (2015). 기혼 중년남녀의 성적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간 의사소통의 듣기와 말하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697-718.

손보영, 김수정 (2020).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역할 경험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1), 326-333.

송동림 (2009). 부부갈등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 2009**(164), 143-171. 광주카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안용주 (2017). **부부의 성 만족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창현, 김진이 (2008).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가족 응집성·적응성과 갈등대처방식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16**(2), 95-114.

오혜림, 이주영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23-46.

유옥 (2017). 결혼생활 5년 이하와 6년 이상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목회 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29**, 110-132.

윤애란, 이인수 (2013). 부부갈등과 결혼적응과의 관계에서 지혜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4**(3), 1739-1754.

원영옥, 곽종형 (2014). 노인의 성생활 인식이 성생활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1**(1), 109-130.

이선주 (1988). **기혼여성의 결혼관과 그에 관련된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신숙 (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70-85.

이인정 (2011).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부부의사소통의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2), 179-205.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이주안 (2022).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성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3**(2), 2727-2742.

이지민 (2013). 20~30대 기혼여성의 원가족분화 경험, 부부의사소통 및 부부친밀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23-38.

장수지 (2010). 긍정적-부정적 성역할정체감과 부부관계 적응의 관계: 사회적지지 제공 및 부부관계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23.

장순복 (1998). 기혼 여성의 성 만족. **대한간호학회지, 28**(1), 201-209.

장해순, 이만제 (2012). 가족과의 대화방식에 따른 중학생의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성향. **화법연구, 21**, 287-318.

전혜성, 서미아 (2012).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4), 349-357.

정병완 (2004). **부부관계 요인이 목회자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윤경, 최지현 (2010).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세대의 부부적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331-353.

조유리 (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 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지은 (2005). **기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현, 최승미, 오현주, 권정혜 (2011). 부부적응척도: 단축형: 신뢰도: 타당도: 부부적응척도: 축약형: 신뢰도: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55-670.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가족환경연구, 58**(3), 447-461.

진신남, 신혜진, 송은정, 염화숙 (2021). 성인애착과 부부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원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가족상담센터 방문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부부가족상담연구, 2**(2), 123-137.

최성일 (2004).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고황논집, 35,** 97-114.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논문집.

최은진, 정혜정(2020), 중년 남성의 자기분화와 체면 민감성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8**(1), 1-24.

최주희 (2000).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결혼적응연구: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용길, 함경애, 천성문 (2018). 부모자녀의 자아탄력성이 의사소통을 매개로 부모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 연구, 19**(2), 259-289.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한소리 (201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수준을 매개변인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인순, 박용순, 송진영 (2015). 기능적 관점의 원가족 규칙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8**(12), 430-468.

황경애, 하은영 (2007). 기혼 여성의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 생활만족도 연구. **산업과학기술연구소보, 14**, 345-356. 전주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 연구소.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usby, Dean M., Crane, D. Russell, & Christensen, Clark. (1995). A revision of the H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3), 289-308.

Kim, H. (2014).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ts relationship with family functioning in South Korean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hy, 42,* 257-265.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 244-281.

Marokoff, P., & Gilliland, R. (1997).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0,* 43-53.

Mac Neil, S., & Byers, E. S. (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problems,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6*(4), 277-283.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namic adjustment: New scale of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6.

Spanier, G. B., & Lewis, R. A. (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825-839.

Kamo, Y. (1993).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SAGE, London, Newbury Park and New Delhi, 10, 551-568.

원 고 접 수 일 : 2022년 04월 10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2년 10월 03일
게 재 확 정 일 : 2022년 10월 01일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129-146

The Effect of Married Men and Women's Family Communication on Marita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xual Satisfaction

Choi, Yoon Jin	Yun, Young Nam	Kim, Min Ha	Lee, Jae Sun	Ahn, Jong Hwa	Goo, Gyung Hee
Mindwell Counseling Center	Military Counseling Center	Wimingsaem Counseling Center	Mindwell Counseling Center	Hope Couple/Family Counseling Center	GNC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adjustment of married men and women, and to identify the role of sexual satisfaction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A total of 121 married men and women were surveyed. A t-test, one-way ANOV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a Sobel test were performed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and between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xual satisfaction was found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dicating that married men and women who communicate satisfactorily with family members form a higher level of sexual satisfaction, ultimately improving the adjustment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marital relationship.

Key words: married men and women, family communication, marital adjustment, sexu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147-164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김 지 수** 박 은 아***

부경대학교

본 연구는 고령자인 연구참여자의 삶 속에서 경험된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의 이야기를 개별 인간 경험의 이해를 목적으로 탐색하고 전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Clandinin과 Connelly(2007)의 내러티브 연구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된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는 어린시절 원가족의 특징과 결혼 후 삶, 그리고 현재 고령자가 된 삶의 이야기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연구참여자마다 3가지의 이야기 단락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락에서 나타나는 해당 시기에 이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체 이야기와 연관되는지와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연결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의 의미는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 〈소속에 대한 욕구〉, 〈삶의 새로운 활력〉으로 도출되었다. 경험의 의미를 통해 확인된 연구참여자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은 그로 인한 부작용보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얻는 만족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은 청소년이나 중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과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고령자, 스마트폰 과의존, 내러티브 탐구

---

* 본 논문은 김지수(2021년)의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김지수,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학과 석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은아 / 부경대학교 교수 / (48513)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405호
Tel : 051-629-5905 /E-mail :jangha98@hanmail.net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는 '고령화'와 '정보화'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시기로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들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고령층에게 하나의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인구는 정보 취약계층, 정보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고령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정도이며 과의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의 저하, 사회적 역할 상실과 사회관계망의 약화 등으로 고령자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그들에게 건강, 사회관계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양승민, 임진섭,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20)이 발표한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 노년층 3,121명 중 약 14.9%가 스마트폰 사용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의미는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정의는 스마트폰 중독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20)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동, 청소년에 비해 연구가 다양하지 않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교육 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김수경, 신혜리, 김영선, 2020), 노인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양승민, 임진섭, 2019),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배성만, 고영삼, 2017), 노인의 스마트폰 게임 중독 경향에 따른 뇌파 비대칭(asymmetry)와 연결성(Coherehnce)의 정량화 뇌파(QEEG)를 비교 분석한 연구(원희욱, 2017)등이 있다. 고령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다른 연구들은 주로 노인의 스마트폰 활용과 노인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순기능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있으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고령자의 접근성에 집중한 기술적 연구가 대부분이다(김명용, 전혜정, 2017; 김성수, 최형임, 2019). 고령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적 측변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유는 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스마트폰 사용이 친숙하지 않아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중독적 사용이 힘들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다(원희욱, 2017).

스마트폰 과의존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고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특성상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내러티브 탐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의 의미를 순기능이나 역기능에 기준을 두지 않고 개별인간 경험의 이해를 목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삶의 맥락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석학적 내러티브 분석(interpretive narrative analysis)을 통해 이해하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삶의 맥락 속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하루의 일과 중 스마트폰과 관계하는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는

지 탐색하고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함으로써 경험하는 부작용이나 긍정적인 경험을 모두 시간적 · 사회적 · 공간적 흐름에 따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보이는 고령자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보이는 고령자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한가?

방 법

내러티브 탐구는 내러티브 접근을 통해 자신 삶의 이야기 안에서 사건을 말하고 다시 말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다시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참여자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법론이다(Clandinin & Connelly, 200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자아를 재형성할 힘을 얻는다. 주체적인 참여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고령자들이 이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므로 대상자를 삶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인 내러티브 접근은 스마트폰 과의존 심리영역에서 유용한 실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이한주, 200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고령자가 방문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안내를 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성이 나타난 지 1년 이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 안내문을 보고 직접 연락은 준 신청자들에게 대상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2021)가 개발한 성인 및 고령자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이용하였고 측정 결과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세 분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참여자 세 분(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임)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종만은 조절실패 요인이 83.33%, 현저성 요인이 58.33%, 문제적 결과 요인이 81.25%로 현저성은 보통에 가까우나 조절실패와 문제적 결과 점수가 높아서 총점 30점이고 고위험군이었다. 송영자는 조절실패 요인이 100%, 현저성 요인이 91.67%, 문제적 결과 요인이 62.50%로 총점 33점으로 고위험 사용 군이고 연구참여자 중에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기순은 조절실패 요인이 100%, 현저성 요인이 83.33%, 문제적 결과 요인이 43.75%로 혼자 살고있기 때문에, 문제적 결과가 가장 낮게 나왔고 조절실패 요인이 가장 높게 나왔다. 총점은 29점으로 세 명의 대상자 중에 가장 낮았지만 고위험군이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다. 간략하게 연구참여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배경정보

연구참여자 (가명)	성별	연령	학력	평균 사용 시간	스마트폰 집중사용 기능
박종만	남	66세	고졸	7 시간	SNS, 메신저, 정보검색
송영자	여	81세	고등학교 중퇴	10 시간	동영상, SNS, 정보검색
이기순	여	77세	고졸	8 시간	동영상, 정보검색, SNS

[박종만]은 바닷가마을에 아내와 살고있는 66세 어른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후 5년 정도 되었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한 후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SNS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직접 섭외한 고령자이다.

[송영자]는 도시에서 딸과 살고있는 81세 여성으로 현재 외출은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스마트폰을 주로 보며 지내고 있고 불면증이 있으며 이따금 목과 어깨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의지가 현재는 없어 보였다.

[이기순]은 도시에서 홀로 살고있는 77세 여성으로 낮에는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고 가끔 친구도 만나지만 집에 있는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을 의인화하여 애인처럼 표현하고 사용조절이 힘든 상태이다.

연구의 진행 과정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보이는 고령자의 경험을 온전하게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선택하여 그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보이는 고령자의 삶의 이야기를 타인의 시각이 아닌 그들만의 시선으로 듣기 위해서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인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간 15년의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를 간과하지 않고 그러한 특성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개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니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과의존 특성도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의 진행절차는 Clandinin과 Connelly(1988)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 절차를 3단계로 단축한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 텍스트와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부터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를 따라 진행하였다. 현장 면담을 통

표 2. 심층 면담 질문

이야기 주제		고령자의 삶과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
3차원적 탐구 공간	시간성	당신이 어렸을 때의 가족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재 스마트폰 사용으로 겪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관계성	어렸을 때의 가족과 친구 관계는 어떠했나요?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스마트폰 사용 시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스마트폰을 통한 대인관계는 어떠한가요?
	공간성	어렸을 때 생활했던 공간의 특징은 어떠했나요? 당신 삶에서 공간의 이동은 어떠했나요? 집과 주로 활동하는 공간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해 그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행동과 말과 느낌, 생각의 표현을 현장 노트로 기록하였다. 심층 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3차원적 탐구 주제의 줄기를 찾기 위해 시간, 관계, 공간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고 연구참여자는 주요 질문에 대하여 내용 및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구조화된 심층 면담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화로서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주요하게 이야기한 주제 및 질문의 줄기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이용 경험에 대한 이야기, 스마트폰을 통한 상호작용 등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시간, 관계, 공간에 따라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 동행자인 고령자 세 분과의 대화, 그들과의 관계, 연구 동행자로서 함께 하는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노인들의 '자기 노출'이다. 그러므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철저하게 윤리적인 면을 고려해야 했다. 특히 연구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알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지된 동의, 익명성, 비밀보장과 연구 참여로 인한 어려움 등에 대해서 연구윤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연구의 시작부터 끝맺음까지 지속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가 시작되기에 앞서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밝히고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알고 싶은지 참여자 각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면담 과정 중에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텍스트로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면담 중 즉시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자로서 사는 동안 자신의 삶과 연구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윤리성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안영미, 2008에서 재인용; Bogdan & Biklen, 1992), 세 분의 고령자가 자신의 실명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명 사용을 원하여서 동의하에 가명으로 이름을 수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에 대해 갖게 되는 책임을 고려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해 나가면서 내러티브 연구자로서 연구참여자에게 갖는 도의를 염두에 두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경험만을 다루지 않고 연구참여자의 삶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면담 내용 중에 연구참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이나 거주 지역, 직장 등을 삭제하거나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관련 인물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고, 다시 한번 연구참여자들에도 각개별 연구참여자의 연구 텍스트를 보여주고 수정할 부분들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및 삭제하여 연구참여자와 함께 진행하는 공동의 연구라는 관점을 유지하며 협력적인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 이야기

[박종만]의 이야기

바닷가마을에 아내와 살고있는 66세 어른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후 5년 정도 되었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한 후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고가 당연했던 아이의 좌절 경험

[박종만]의 부모는 어촌에서 소규모로 농업과 어업을 겸하여 일을 하였지만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에 크게 욕심을 부릴

수도 없었다. 이러한 가정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종만]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으로 주목받고 인정받으며 성장하였다. 중학교 입학할 때도 자신이 당연히 1등을 할거라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큰 상태였으나 1등을 하지 못한 것에 처음으로 강한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며 공부에 대한 의욕마저 잃게 되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위권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자신감이 한 번 크게 꺾이게 된 계기였다.

"제가 고등학교 3년간 반장하고 3학년때 학생회장 하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등으로 졸업하고 나왔죠 뭐... 근데 중학교 때는 공부 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 입학시험에 그때는 180명 뽑고 4개 학교에서 오는데...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일등할거로 기대를 했는데 1등을 못했어요... 중학교 시험에... 그래서 제가 실망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 충격이 좀 커가지고... (첫 번째 면담, 2021. 1. 18)".

퇴직 후 삶 : 스마트한 사람의 스마트 라이프

[박종만]의 조카 가족이 어촌마을의 특산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데 [박종만]이 SNS에 특산품 홍보 글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다. 또 하나 퇴직 전 준비했던 직업이 문화해설사이다. 보수는 적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교육을 받고 문화해설사로 일하게 되었다. 퇴직 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 홍보 명예 기자로 5년간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지역의 SNS 희망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박종만]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간편하지만 남다르게 보내기 위해 직접 만들어놓은 GIF 움직이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모티콘을 보낸다. 메시지를 입력하는 것보다 간편하면서 상대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데 보람을 느꼈고... 그러다보니 상도 탔어요... SNS 희망지역 최우수상 받기도 했는데... 그 전에 뭘했냐면... 한 5년간 한국지역진흥재단 전남지역 홍보 명예기자를 했어요~! 거기에서 작년, 제 작년에 제가 전국의 우수 기자를 선정하는데 다섯 명 안에 들어갔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도 제작하고 그런 사람인데... 또 뭐 GIF요! 움짤! 그걸 또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직접 만들어서...(두 번째 면담, 2021. 1. 22)".

[박종만]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워크온'앱을 본다. 보건소를 통해 '워크온'앱을 추천받아 스마트폰에 깔았는데 친구들이 몇 보 걸었는지도 볼 수 있어서 걷기 운동의 재미가 배가되었다. 얼마 전 2020년 11월부터는 노르딕워킹을 장려하고 있어서 스틱을 잡고 걷는 노르딕워킹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앱은 네이버 지도를 보고 날씨 앱을 이용한다. 취미로 서예를 하고 있어서 한자 사전 앱도 자주 보고 사진, 영상 편집 앱도 SNS에 사진을 올리기 전 꼭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이다. 유투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조금 사용하였으나 비슷한 연령대의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스토리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걷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워크온이 요즘 대세에요! [중략]'좋은 습관을 생활화한다'라고 해서 인제 작년 4월 21일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가지고 노르딕워킹이 작년에 도입이 됐어요.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고거를 이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제 생활속에서 이제 걷기를 하기 때문에 고걸 배워서 합니다. 노르딕워킹을... 11월 5일부터(세 번째 면담, 2021. 1. 27)".

스마트폰과 거리두기 : 부작용 인식

[박종만]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지금 삶에 변화를 주고 싶었고 그 중 신년 계획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로 하였다. 그가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계획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로 한 이유

는 스스로 부작용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주원인이 되었고 어깨와 목, 손과 팔의 통증과 안구 건조증까지 신체적인 부작용은 거의 다 경험하고 있었다.

"저가 1년 동안 블로그 작성 건수하고 뭐 한 일 년에 카카오스토리 글을 올린게 뭐 400건이 넘어요! 그리고 블로그는 음 작년에 보니까 일 년 동안 뭐 230건 정도 썼던가? 일 년에... 블로그는 일년 것만 통계를 내 봤고... 카카오스토리는 어... 2012년부터 9년동안 내가 통계를 빼 봤어! 총 몇 건을 내가 글을 썼나... 그러고 2021년부터는 좀 줄여야 되겠다. [중략] 침대에 누워서 들고... 이렇게 하면 팔은 더 아파! 인자 그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팔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눈이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중략] 글을 하루에 두 세건씩 썼으니까 봐야 되잖아... 봐야되고, 댓글도 달아야되고... 그러니 하루종일 그것만 봤지! 인제 글을 안 쓰는 게 상책이다! 줄이는게! 글을 안 쓸라하면 뭐? 사진을 안 찍어야 된다요(세 번째 면담, 2021. 1. 27)".

[박종만]은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가치관을 물었을 때 '스마트폰은 스마트한 사람이 스마트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도구'라고 표현하였다.

[송영자]의 이야기

도시에서 딸과 살고있는 81세 여성으로 현재 외출은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스마트폰을 주로 보며 지내고 있고 불면증이 있으며 이따금 목과 어깨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의지는 없다.

업어 키운 귀한 손녀딸

어린 시절 첫째 딸로 태어난 [송영자]는 젖 떼자마자 할머니 손에 넘겨져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로부터 '귀한 사람', '이쁜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 듬뿍 담긴 눈빛을 보며 자란 [송영자]는 누구보다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자라게 되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송영자]에게만 특별대우를 해주는 할머니가 부모님보다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고 가까이 살았기에 자주 드나들 수 있어서 부모님이 그립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할머니 시종들이 여럿 있었는데, 등굣길을 업어서 보내기도 하고 [송영자]가 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할머니와 시종들이 쫓아와 치료하고 보살펴주어서 공주 같은 삶을 살았다.

"어릴 때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할머니가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귀한 사람', '이쁜 사람', '혼자서도 조용히 잘 노네' 하면서 이뻐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동생을 임신하고 출산 준비한다고 저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째인 제가 태어나서 젖 떼자마자 그 작은 할머니가 맡아서 저를 키웠어요. 할머니 집에 시종들도 몇 명 있었는데 할머니처럼 다들 저를 보살펴줘서 놀다가 넘어지면 온 집안사람들이 달려와 보살펴주고 챙겨줘서 무슨 공주처럼 살았어요(첫 번째 면담, 2021. 2. 3)".

황혼기에 얻은 꿈과 자유

남편의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을 때, 지인을 통해 노인 일자리로 노인신문 시니어 기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작가를 꿈꾸었고 라디오방송에서도 글이 잘 선정되고 인정받았었기에 늦은 나이지만 글을 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설레고 기대되었다. 시니어 기자가 된 후 기사를 이메일로 보내기 위해서 딸의 도움을 받다가 컴퓨터 수업도 들었지만, 고장이 날까 봐 두려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사를 쓰고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스마트폰이 편해지면서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애들 아빠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 노인 일자리로 글만 쓰면 되는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얼른 신청했거든요. 노인신문 시니어 기자라고... [중략] 매달 세 편 기사를 보내야 하는데 이메일로 보내야 하거든요... 막내딸이 같이 있을 때라서 딸한테 부탁했지요... 계속 부탁하기 미안하고... 컴퓨터도 배워야겠다 싶었는데, 구청에 컴퓨터 강의가 있길래 들으러 다녔죠. 딸한테도 여러 번 배웠는데 이상하게 컴퓨터랑 친해지기 힘들대요... 스마트폰을 제가 쓰고 있었는데 딸이 스마트폰으로 해보라고 알려 주더라고요. 희안하게 컴퓨터는 배워도 잘 모르겠더만 스마트폰은 그래도 좀 사용하다보니까 알겠대요. 딸한테 몇 번 배우고 나니까 기사도 메일로 보내고 카카오스토리에 글도 올리고 쇼핑도 하고, 유투브도 보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혼자 할 수 있는게 많아요(세 번째 면담, 2021. 2. 25)".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서 자주 하게 된 것은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꾸준히 글을 올리다 보니 '친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좋아요' 아이콘과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스타가 된 것처럼 신기하고 즐거웠다. 미국에 사는 동생과 서울, 인천에 사는 동생들도 카카오스토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동생들 일상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 멀리있지만 가깝게 있는 것처럼 든든하고 행복했다. '친구 신청'한 사람들의 '스토리'에 들어가서 보면 고향 출신인 사람도 있고 작가인 사람도 있고 약간의 공통점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반갑고 신기했다. 스마트폰에 푹 빠지게 되면서 목과 어깨 결림으로 한의원에 자주 가고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에도 자주 갔다.

"스마트폰이 편해지면서 제일 많이 한 게 카카오스토리에요. 미국에 있는 막내 동생이 간호산데... 그림도 원래 엄청 잘 그려 가지고 날마다 카카오스토리에 사진도 올리고 그림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중략] 제가 지은 글도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친구 신청도 엄청 들어오는거에요. 꼭 스타 된 것처럼 그것도 재미있대요. [중략] 스마트폰 쓰면서 온라인에서 엄청 바빠져 가지고 스마트폰을 좀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외로울 틈이 없이 뭐가 바빠졌는데 그때부터 목, 어깨가 결리고 아프기 시작해서 한의원을 좀 자주 다녔어요(세 번째 면담, 2021. 2. 25)".

스마트폰이 익숙해지면서 생활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2년 전쯤에 우연히 유투브로 연결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카카오스토리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유투브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외출하지 않는 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유투브를 실행시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구독한 채널의 새로운 영상과 추천 영상을 모두 챙겨보려니 시간이 모자라서 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가 되었다.

"2년전 쯤인가 이웃 카카오스토리에 링크 걸린 유투브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러시아문학을 연구한 교수님이 도스옙스키에 대해서 강의하시는데 너무 좋은거에요... 몰랐던거 알게되니까... 그때부터 문학 관련 유투브채널을 엄청 봤어요. [중략] 예전에 카카오스토리 많이 할 때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했지만, 그때는 메시지 오면 메시지 확인하고 답변도 하고 하던 거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화 말고 메시지, 카톡 이런거는 유투브 한참 보고 난 뒤에 잠깐 확인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유투브를 눈뜨자마자 보고 자기 직전까지 유투브를 많이 본다 봐야죠. 코로나로 외출을 거의 안하니까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불면증도 좀 생겼어요(세 번째 면담, 2021. 2. 25)".

[송영자]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똑똑해지고 내면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위협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사용 시간을 조절할 생각은 없다.

[이기순]의 이야기

도시에서 홀로 살고있는 77세 여성으로 낮에는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고 가끔 친구도 만나지만 집에 있는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제일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조절이 힘든 상태이다.

잦은 이동 : 어디서나 주목받는 아이

[이기순]의 학창 시절,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의 업무 특성상 전근을 자주 가셨기 때문에 거의 일 년에 한 번 정도 옮겨 전학하게 되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서장이라는 위치에 있어서인지 새로운 학교에 가도 항상 주목받고 특별대우를 받는 느낌이 있었다. 유달리 피부도 하얗고 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졌기 때문인지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이사를 가게되면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설레임도 생기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잦은 전학은 불안을 야기하여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기순]에게는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주목받았던 것이 지금은 긍정적인 경험으로도 남았다.

> "국민학교 때는 내가 날렸지 뭐... 아버지가 공직에 계시고 아버지가 전근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번, 내가 국민학교를 4~5 군데는 다녔거든... 아버지 따라 전학 다녔지. 전학 가면은 아버지가 지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면은 그 면에서는 최고다 아이가~
>
> 머슴아들도 나한테 꼼짝 못 했지. 어린시절 내가 굉장히 유복하게 보냈어요~ [중략]그라고 내가 유달리 살결이 희거든... 그래논께네 머슴아들도 다 좋아하고 그랬어! 그때는 면장 딸이니 지서장 딸이니 하면 그래한다아이가~ 어린시절은 유복하게 보냈지(첫 번째 면담, 2021. 1. 20)".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기순]은 병원에 있는 문화센터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이 늦게 글쓰기 수업을 통해 문예지에 등단하고 작가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늦은 나이에도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벅찬 감정으로 설레었고 결국 격월 문예지를 통해 작가로 등단하여 작가가 되었다. 지역 문인협회를 시작으로 문인협회 세 군데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보니 그들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서 짧은 시간에 작가로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 "아저씨 다니던 병원에 글쓰기 수업이 있길래 함 가봤어요. 나만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한테 배워서 작가 등단한다는기라. 그래서 예전부터 쓴 글들이 있어가꼬 문인협회에도 몇 군데 가입하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내 책도 출판해야겠다 생각해서 책도 출판했어요. 아저씨 덕에 새로운 길을... 이 나이에 하게 된 거지요. 문학회, 문인협회 참석도 하고 글도 쓰고 도서관 가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세 번째 면담, 2021. 2. 5)".

나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고마운 친구

스마트폰은 처음 삼성에서 나왔던 스마트폰을 10년 전쯤에 구입했었다. [이기순]은 사람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 모임부터 문학회, 문인협회 모임 등 단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날마다 연락오는 단톡만 해도 다섯 개 정도가 된다. 아침부터 보내오는 메시지를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 추천 영상까지 보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산책할 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글을 쓰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것을 많이 검색하는데, 손에 들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간편하다. 발 빠르게 제공되는 뉴스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들을 보다 보면, 많은 지식을

흡수하게 되는 것 같고 아날로그 세대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준다.

"스마트폰은 아침 되몬 내가 사실 유투브 안볼라케도 인간관계가 이리 형성 되가꼬 있어노니까 단톡이니 뭐이니 이런 게 전부 아침 되면은 한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막 오거든... 단톡이 많지. 문학회 모임 하나있제, 문인협회도 있고... 함 보자 우리 단톡이...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지역 문협하고 하면 한 다섯 개정도 그런가베~ 어떤 때는 번거로울 때도 있어. 근데 사람이 '카톡'하면은 이상하게 손이간다 아이가... 그랑께 아침부터 보고 있구만은... 나는 보기 싫으면은 9시나 되면 열어보고... 나가서는 주로 사진 찍는 거로 많이 쓰고... (세 번째 면담, 2021. 2. 5)".

[이기순]은 남편도 손자도 없는 집에서 저녁에 혼자서 식사를 할 때는 어김없이 유투브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방전되어버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다. 백내장 수술 후 눈에 무리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만,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자제하기는 힘든 상태라 잠잘 때도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잠을 제대로 못 잘 때도 있고 스마트폰과 전등을 그대로 켜둔 채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든 날도 많았다.

"남편 옆에 있으면 끄라카던지, 손자랑 같이 살면 할머니 불끄라 하든지 이랄껀데... 내가 혼자 있응께네 집에 오면은 내 맘대로거든 규제를 안 받으니까 이래가 진짜 내가 스마트폰 때문에 이거 옛날에 '스마트폰'이라고 글 지어가꼬 문예지에 시도 하나 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친했는지 야만 없으면 내가 못 살게 됐다니까... 눈도 안 좋으면서 지금 맨날 불켜 놔놓고 그거하고 그런다 아이가... 어깨 아프고 목 아픈 적도 많고(세 번째 면담, 2021. 2. 5)."

[이기순]에게 스마트폰은 365일 24시간 [이기순]의 또 다른 뇌이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배움의 갈증이 컸고 배움이 즐거웠기에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을 얻고 싶을 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스마트폰이 있기에 드디어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의 의미

본 장에서는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 삶의 이야기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우선 그들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므로 살아온 날 속에 다양한 경험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은 스마트폰 '사용경험'보다 '과의존'이라는 현재 문제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인의 단편적인 사용경험과 사용패턴 정도의 이해로는 한 개인의 심리적 원인을 찾고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과거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상황과 연결하여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 과의존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진화 형태로 받아들이자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와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는 '노모포비아'라는 용어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과도기적 사회현상에 대한 맥락도 이해의 바탕이 될 수 있다. TV가 모든 가정에 하나 이상씩 생길 때는 'TV 중독'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었다.

산업화 이후 세상은 풍요로워지는 듯 보이지만, 무한경쟁 속에서 피로와 무의미를 회피하거나 망각하고자 하였다. 이런 대체물을 통한 만족이 다양한 행위중독에 빠져들어 과의존 상태가 되는 것이다(박남희 외, 2020). 따라서 무언가에 과의존하게 되는 원인이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또한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으로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장텍스트를 반복해서 읽고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러티브 패턴과 줄거리, 긴장감 등을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상황, 맥락에 맞게 연결시켜 찾아내었다. 찾아낸 의미 있는 이야기는 철학적인 시각과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도구로 깊은 통찰을 얻어 이해하고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얻은 의미 있는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었고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첫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 둘째, 소속에 대한 욕구. 셋째, 삶의 새로운 활력이다.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

연구참여자들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1956년 이전 출생자이다. 3차원 내러티브 공간에서 만난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 특징은 산아제한 정책이 수립되기 전, 1940년~ 1960년대 출생아 수가 많고 다자녀가 자연스러웠던 가족 형태에서 다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나 주 보호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기 힘들었다. 초기 성장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으로 작용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Ainworth, 1989: 김지혜, 2017에서 재인용) 자녀가 많은 경우 주 양육자에게 주목받기 위해 어릴 때부터 경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정전협정 이후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시대적 문화를 바탕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공통적인 심리와 욕구를 알 수 있다. 또한 지금의 고령자들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와 질병, 주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고 존재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회적 인정과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활용은 노년에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안정감과 자존감을 제공하며, 컨텐츠의 조회수와 댓글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활용은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노년을 위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한 민, 2019). 따라서 고령자에게 있어서 인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까운 존재가 스마트폰인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정욕구는 매체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스마트폰 활용 능력에 대한 자기 인정, 스마트폰에서의 소통을 통한 인정, 스마트폰의 지식 콘텐츠로 배움을 통한 인정이 있다. 연구참여자 세 명 모두 스마트폰 활용 능력에 대한 인정에 만족하였고, [박종만]은 스마트폰 SNS로 소통을 통한 인정에 과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송영자]와 [이기순]은 스마트폰의 지식 콘텐츠로 배움을 통한 인정에 과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Dewey, 1957)는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충동은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프로이트가 말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나 듀이의 '인정

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쉽게 충족되지 않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최효찬, 2012). 따라서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배움과 관계에 집착하게 된다. 고령자들에게 이러한 욕구를 쉽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소속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need to belong)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동기 중 하나로 친밀감, 승인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대인관계의 토대가 된다(Baumeister & Leary, 1995).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었다. 그들에게 스마트폰은 소속감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은 매슬로우의 소속감(belongingness)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환경 간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낮은 소속감이 높은 수준의 불안, 우울, 자살생각을 야기한다고 보고한다(Bailey & McLaren, 2005; Lee & Robbins, 1998; Mclaren, Jude, Hopes, & Sherrit, 2001). Hagerty, Williamsa, Coynea과 Earlya(1996)의 연구에서는 소속감과 심리적·사회적 기능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높은 수준의 소속감은 더 좋은 심리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면 불안, 우울 감소와 더 좋은 심리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경우 상위단계의 욕구가 나타나기 힘들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하위 욕구가 충족되었기에 상위욕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욕구를 탐색하였을 때,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정보격차의 벽을 허물어 이 시대의 주류와 소통할 수 있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며 소외되지 않음으로써 현시대에 소속되고픈 욕구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러한 상위욕구를 충족하는데 스마트폰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새로운 활력

스마트폰으로 탄생한 새로운 문명은 현대인들의 삶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로 현대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이 또 다른 뇌가 되어 인간은 기억의 한계를 뛰어넘어 풍부한 지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 활용 능력에 있어서 숙련도가 높은 고령자는 숙련도가 낮은 고령자보다 우울감 및 고독감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김수연, 채명신, 정창덕, 홍유식, 2009). 이명성(2015)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정도가 고령자의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가 고령자의 자아존중감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대인관계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가 향상되어야 하는데, 스마트폰 이용은 대인관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이명성, 2015). 이렇듯 스마트폰을 통해 SNS와 메신저 기능을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이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어 그로 인해 자아존중감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부작용으로 겪는 불편함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가지 기회를 얻기도 하고, 세상과의 연결,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로 이어

져 스마트폰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스마트폰은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도구로 보여진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불면증과 근육통 등으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이들은 긍정적인 만족감이 크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시공간과 내·외적인 맥락에서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부작용을 통한 문제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 속에 얻는 만족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다른 연령대의 대상과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연구 퍼즐과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확인된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정당성(Personal Justification) -'스마트폰이 나에게 주는 의미 알아가기'

발달심리학자 에릭슨(Erikson & Erikson, 1997)에 따르면 고령자의 심리적 과제는 자아통합이다. 에릭슨(Erikson & Erikson, 1997)은 인생주기를 심리사회 발달이론 8단계로 구분하여 각 발달단계마다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는데 노년기에 직면하는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은 자아통합감의 달성이라고 하였다(Erikson & Erikson, 1997).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고령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시 살 수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지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합성, 일관성, 전체성을 느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아 통합은 노인의 안녕 상태를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심리적 측면에서의 성공적 노화 기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정되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에서 노인이 갖도록 해야 하는 바람직한 중재의 방향으로 제시되어왔다고 주장한다(장성옥 외, 2007). 이렇듯 자아통합을 위한 노력 중 고령자의 경우, 지난 삶의 회상 시도는 현재의 자신을 되찾고 다시 긍정하게 함으로써 자기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Tobin, 1991).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과정에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다시 이야기하며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연결하여 수용하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이를 통해 평온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지난 삶을 회상하는 면담은 스마트폰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알게 하였고 자아통합감을 획득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스마트폰 과의존성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스마트폰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연구자 개인의 정당성은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면담을 통해 고령자와의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미래의 나와 마주한 것 같은 친밀감과 다각도의 깊은 이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실제적 정당성(Practical Justification) -'존재로서 인정받기'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보이는 고령자 상담의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삶

의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고 발견한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존재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스마트폰을 일찍부터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마트폰을 오래도록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지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고 그러한 경험들이 또 다른 이야기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즉,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의 요인들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살아온 경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는 동안 면담을 통해 상담적 개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안구 건조증, 목 통증, 팔 통증, 불면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큰 불편감은 아니라고 말하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이 부작용으로 겪는 증상들보다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문제의식을 크게 갖지 않았다. [박종만]은 부작용을 인지하고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만, 집에서는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었다. 상담 장면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보이는 고령자가 치료를 위해 '직접 상담을 하러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설득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는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옆에서 인지하고 설득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과의존성이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담적 접근 앱 개발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 시간을 체크하고 신체활동을 독려하는 운동 챌린지와 앱을 통해 집단상담이나 화상 개인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하루의 스마트폰 사용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정당성(Social Justification) -'소통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고령자의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관심 없이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고령자도 있지만, 시대에 발맞추어 편리하고 똑똑하게 살고자 정보화 교육을 열심히 받는 고령자들도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20)이 발표한'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 노년층 3,121명 중 약 14.9%가 스마트폰 사용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의 고령자 중 14%이지만 몇 년 뒤면 스마트폰 사용이 쉬운 장년층이 고령층이 되고 퇴직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보화'교육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 경제, 사회, 철학,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 가지고 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두려움에 대한 앞선 혜안을 얻고자 하는 사회의 관심이고 학자들의 노력일 것이다. 고령자가 정보격차로 소외되지 않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면서 과의존하지 않도록 정서적, 실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발견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을 경험한 고령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다 생생하게 고령자의 스

마트폰 사용 경험을 이해하고자 내러티브 탐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연구참여자의 살아온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이 큰 의의로 여겨진다.

둘째,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된 고령자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삶의 맥락과 사회적 배경, 철학적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의 고령자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선행연구들은 고령자의 스마트폰 사용이 무언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나 몇몇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다룬 연구는 심리적 원인을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성에 대한 질적연구는 스마트폰과 고령자의 삶의 이야기를 맥락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아직 국내에서의 고령자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질적연구로 청소년과 성인의 과의존과는 맥락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원인과 영향, 개입방안 등에 관한 연구의 방향 및 연구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령자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성인 대상 과의존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연구 결과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은 일반 성인과 다름을 알 수 있었기에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과의존 척도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SNS를 쉽게 이용하는 고령자이다. 이런 표본의 제한으로 인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령자 중에 게임이나 쇼핑 등 스마트폰의 다른 기능에 과의존 경험이 있는 고령자 등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 및 집단에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을 탐구하였는데, 현상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등 보다 다양한 질적연구로 접근해 본다면 고령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이해의 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20).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 https://www.iapc.or.kr/media View.do?idx=28&article_id=ICCART__0000000113015&type=A1.에서 2020, 4, 28 자료 얻음.

김명용, 전혜정 (2017).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활동 참여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2**(3), 343-370.

김성수, 최형임 (2019). 노인의 스마트폰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1), 841-851.

김수경, 신혜리, 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31**(1), 31-4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수연, 채명신, 정창덕, 홍유식 (2009). 모바일 통신기기 사용이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TV 학회 논문지, 9**(6). 219-226.

김지혜 (2017). **노인의 애착 요인이 죽음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남희, 장대성, 박일준, 서동은, 이은경, 이동용, ...

박승현 (2020). **철학, 중독을 이야기하다.** 서울 : 세창출판사.

배성만, 고영삼 (2017).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7), 111-121.

안영미 (2008). **내러티브탐구를 통한 두 남성 노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승민, 임진섭 (2019). 노인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 인지행동모델(cognitive-behavioral model)을 기반으로 한 탐색 연구. **공공정책 연구, 36**(1), 207-230.

원희욱 (2017). 노인의 스마트 폰 게임 중독 경향에 따른 뇌파 비대칭 (asymmetry)와 연결성(Coherehnce)의 정량화뇌파(QEEG) 비교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1), 644-652.

이명성 (2015).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한주 (2001). **저소득 노인의 우울에 관한 내러티브 접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성옥, 공은숙, 김귀분, 김남초, 김주희, 김춘길, ... 최경숙 (2017). 한국 노인의 자아통합감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7**(3), 334-342.

최효찬 (2012). **하이퍼리얼쇼크.** 서울: 위즈덤하우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2021). **"성인 및 고령층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https://www.iapc. or.kr/mediaView.do?idx=28&article_id=ICCART_0000000113024&type=A1.에서 2021, 5, 4 자료 얻음.

한민 (2019). 노년층 유튜브 중독의 심리적 원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 152-152.

Bailey, M., and McLaren, S. (2005). Physical activity alone and with others as predictors of sense of belonging and mental health in retirees. *Aging and Mental Health, 9,* 82 - 90.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Clandinin, D. J.(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Engaging Narrative Inquiry].* (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역). 서울 : 교육과학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7). **내러티브 탐구 :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Narrative inquiry :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서울 : 교육과학사. (원전은 2000년에 출판).

Clandinin, D. J., & Connelly, F. M.(1988). Studying teachers'knowledge off classrooms: Collaborative research, ethics, and the negotiation of narrative. *The Journal of Educational Thought, 22*(2A), 269-282.

Dewey, John(1957). *Human Nature and Conduct.* New York: The Modern Library.

Erikson, E. H., & Erikson, J. M.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Hagerty, B. M., Williamsa, R. A., Coynea, J. C., & Earlya, M. R. (1996). Sense of belonging and indicator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4), 235-244.

Lee, R. M., and Robbins, S. B.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anxiety, self-esteem, and social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38-345.

McLaren, S., Jude, B. A., Hopes, L. M., & Sherrit, T. J. (2001). Sense of belonging, stress and depression in rural-urban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ural Psychology, 2.* www.ruralpsych.com

Tobin, S. S. (1991). *Personhood in advanced old age.* New York: Springer.

원 고 접 수 일 : 2022년 09월 15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2년 10월 05일
게 재 확 정 일 : 2022년 10월 20일

부부가족상담연구, 제3권 제2호
Journal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2022, Vol. 3, No. 2, 147-164

A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on the Over-Dependence of Smartphones in the Elderly

Kim, Ji-Soo Park, Eun-A

PuK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nior people's over-dependence on smartphone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analyzed how their experiences were connected with their entire life and were related with their over-dependence on smartpho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narratives could be divided into 'means for being recognized for their existence', 'desire of belonging', 'new vitality for life'. All in all, it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hat the old people's over-dependence on smartphones was more beneficial or satisfactory than its side effects. Such results may well suggest that aged people's over-dependence on smartphones is different from juveniles' or middle-aged people's smartphone addiction.

Keywords: Elderly, smartphone over-dependence, narrative exploration

「부부가족상담연구」 발간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부가족상담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부부가족상담연구(Korean Journal of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라 한다.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발간 시기: 5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가족상담 관련 분야 학과 교수 및 상담관련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자의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의는 매년 2회로 3월과 8월에 개최한다.

제14조(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대학교수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제16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송부한다.

제 17조(심사기준)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의견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1.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
2. 수정후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
3.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 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친다.
4. 게재 불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③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얻은 후 학술지에 수록된다.

제18조(심사 방법 및 절차)

① (접수) 저자는 논문원고 파일을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투고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대장에 투고논문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 (심사)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③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논문심사 의견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 사항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게재 여부 최종 판정)

1.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2.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 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단, 충분한 수정기간을 두기 위하여 최소 2개월 이후 수정논문을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3.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4.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한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수정후 게재가"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불가"를 포함하는 논문에 한해, 재심사에서 두 번 연속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총 3회의 게재불가를 받은)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게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논문의 수정)

1. 저자는 논문심사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과 논문수정답변서를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된 논문의 수정내용 확인을 의뢰하며 재심사의견서와 수정/보완된 논문 1부, 저자의 논문수정답변서를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재심사의견서에 게재가/게재불가 여부를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재심사) / 3차심사(재심사, 최종). 3차 심

사에서도 '게재가'로 판정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논문작성요령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⑦ 예고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⑧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9조(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근거)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정관 제1장 4조와 제6장 31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 하에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선정)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부부가족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편집회의

제7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 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성립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위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위임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3.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1항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9조(심사 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타당성
2. 연구 필요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투고규정 준수정도
7. 논문체제의 적합성

제10조(심사 위원의 위촉) 편집 위원회에서는 게재 희망 논문의 성격과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심사 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방법 및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논문의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종합 판정을 내린다.
3. 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의 원칙에 의거한다.
4.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5.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는 <붙임 표2>의 원칙에 의거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사후검수를 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12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투고원고의 종류) 투고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제14조(학위논문투고)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예시) 연구는 저자명(연도)의 OO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목'을(를) 요약(or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3.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투고 금지) 본 협회에 논문을 공식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거나, 심사완료되어 논문이 정식게재된 경우, 동일 논문 또는 내용상 상당한 중첩이 있는 유사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해서는 안된다. 단, 정식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투고/게재 철회요청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다른 학술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다.

제16조(게재제한) 한 호에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허용하나, 게재되는 논문 2편 중 한 편에서 반드시 주저자여야 한다.

제17조(원고의 사용언어) 모든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원고의 경우 영어도 가능하다.

제18조(원고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고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19조(학술지 발간 및 접수) 학술지는 5월(1호)과 10월(2호)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또한 원고가 본 협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기한 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를 무효로 한다.

제20조(원고의 내용) 제출된 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21조(저작권)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본 학술지에 논문의 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시하지 않아도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23조(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심사 판정 체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 결과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붙임2>

「부부가족상담연구」 투고자 이의 신청 처리 체제	
이의 신청 범위 및 방법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 1차 처리 방법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 수정 실시.
이의 신청 최종 처리 방법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 의뢰.

「부부가족상담연구」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

1.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이다. 상세한 것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홈페이지의 학술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수시로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편집위원회로 논문원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논문 작성은 HWP(흔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논문 작성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사항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홈페이지의 학술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① 원고제출시 1단. 게재확정 후(제목 및 초록은 1단 편집, 본문은 2단 편집으로 제출).
   ② 편집용지: A4규격(210 × 297 mm) 세로용지
   ③ 용지 여백 : 위쪽 35 mm, 아래쪽 35 mm, 좌측 30 mm, 우측 30 mm,
   머리말 12 mm, 꼬리말 13 mm
   용지 방향: 좁게
   ④ 문단모양: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⑤ 마침표 다음: 한 칸 띄울 것(두 칸이 아님)
   ⑥ 논문 제목: 신명조 2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⑦ 저자: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⑧ 소속: 신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⑨ 국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⑩ 주요어: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⑪ 본문: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⑫ 본문제목 1단계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부록'):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본문제목 2단계 : 중고딕 11호, 진하게, 양쪽 정렬
   본문제목 3단계 : 신명조 10호, 양쪽 정렬, 들여쓰기 8
   ⑬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내어쓰기 30
   ⑭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5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⑮ 영문초록 저자: 신명조 10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⑯ 영문초록 소속: 신명조 9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⑰ 영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⑱ 영문초록 key word: 중고딕 9호, 기울기,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위 15

⑲ 각주, 저자 주, 표 및 그림의 주: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주(중고딕 9호)라고 시작하고, 붙여서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어서 내용은 신명조로 작성
⑳ 표제목, 그림제목: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표 작성의 줄긋기: 표에 사용되는 줄은 명확성을 높여 줄 경우에만 사용하며 세로 줄은 사용하지 말고 가로 줄만 사용, 표의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굵은 선(0.25mm)으로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0.12 mm)을 사용

4. 논문의 모든 내용, 특히 인용문, 그림, 표 등은 반드시 저작권법 및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제정한 연구진실성심사운영세칙에 위배되지 않게 기술해야 한다.

5. 논문제출 시에 게재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 및 저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논문의 모든 페이지는 1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도록 한다. 저자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 한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학위논문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신청서 및 논문제목 각주).
   -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상담관련등재학술지: 상담관련 논문 3편 이상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다.

7. 투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별도의 양식으로 논문에 표시할 수 있다.

8. 제출된 논문은 학술지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키로 한 논문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출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15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경험적 연구논문의 형식은 서론(제목 없이),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서론 앞부분에 제시하고, 다른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11.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동일저자에 의한 일련의 연구인 경우에 한해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논문전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모든 연구 논문은 120-150 단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은 APA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하고, 국문 및 영문 초록의 하단에 주요어 5개 이내로 표기한다.

13. 그림(figure와 graph)은 동판을 뜰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거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 로(graph의 경우 좌표 값의 명기) 제시한다. 표(table)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써 넣는다.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예: 그

림 1에서..., 표 1에서...).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는다.

14.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 쓰고,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조성봉(2018)은

(예 2) 오제은(2016: 15)은..., (2016년도 문헌의 페이지 15)

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1)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제은, 2016: 18).

(예 2) 한 연구(오제은, 2009; Haville Handrix, 2004; Rick Brown, 2009)에 의하면...

라. 저자가 1~2인인 경우

괄호안에 제시 ... (윤선자, 윤정화, 2017), (Haville & Hellen, 2020)

본문속에 참조 ... 윤선자와 윤정화(2017)는... , Haville과 Hellen(2020)은...

마. 저자가 3인 이상 5인이하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시하되 첫 인용에는 모두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될 때에는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1) 첫 번째 인용

괄호안에 제시 ... (윤선자, 윤정화, 박은아, 2017), (Haville, Hellen, & Handrix, 2020)

본문속에 참조 ... 윤선자, 윤정화와 박은아(2017)는..., Haville, Hellen과 Handrix(2020)는...

(2) 반복 인용

괄호안에 제시 ... (김혜진 외, 2017), (Haville et al., 2020)

본문속에 참조 ... 김혜진 등(2017)은..., Haville 등(2020)은...

바. 저자가 6인이상인 경우

(1) 첫 번째 인용

공저자 6인까지 제시하거나 처음 사람만 기재해도 됨(김혜진 외, 2017),

(2) 반복 인용

3인이상인 경우와 동일함

15. 참고문헌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2)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5ed.) 양식을 따른다.

- 단행본의 경우: 책 이름은 진하게 한다.

  이지영 (2015).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서울: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오제은 (2009).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수준과 부부관계 적응. **상담학연구, 10**(2),1217-1228.

- 학위논문의 경우

  오소정 (2016). **중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김이해 (2008). **현대 한국가족 문화와 부부 및 가족상담**. 김유리(편), 111-121.

-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오제은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와 세계적 동향.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14-229). 서울: 한국심리학회.

- 신문기사의 경우

  동아일보(2001. 9. 23). 사이버 대학 1학기 수강생 10명 중 8명 꼴 재등록. 19면.

-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①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주소를 적은 후 인출한 날짜의 연월일을 구분하여 적고 " … 에서 인출"이라고 적어 문장을 끝낸다. 반드시, URL과 인출한 날짜를 기입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ref.html에서 2001. 9. 5 인출.

②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GVU's 8th WWW user survey.(n.d.).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에서 2000. 8. 8 인출.

④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 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

매일신문 (2020). 방탄소년단 뷔 솔로곡 'Inner Child' 팬들에게 전하는 감동 메시지. 2020. 02. 24. http://news.imaeil.com/Entertainments/2020022410013569691.

3)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McMillan, J. H. (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② 편집된 책의 경우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한다.

Wells, A.S.(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단,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쪽수도 함께 표기한다.

③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는다. 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연도를 괄호를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할 것.

[예: Rog3ers, C. R. (1980/2007).].

Rogers, C. R.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0년에 출판)

④ 정기간행물의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출판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 중에 있는 경우 출판연도 대신 (inpress)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Diener, Marc J., & Monroe, Joel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rapeutic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8*(3), 237-248.

⑤ 연구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출판도시: 보고서 제출 기관 명 순으로 한다.

가)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

Smith, J.E.(2008).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Hobbes Research Center.

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조직이나 기관명이 저자명이 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⑥ 미출판된 박사(/석사)학위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순으로 한다.

Adelmann, P.K.(1989). *Emotional labor of employee well-being*(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USA.

⑦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가) 출판된 자료: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Deci, E.L., & Ryan, R.M.(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rgration in personality. In Dienstbier, 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나) 미출간된 자료

Byun, S.Y., & Kim, K.K.(2007). Cultural activities and student achievement in East Asian countries: An analysis of PISA 2000. Paper presenti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Balimore, USA.

⑧ 신문기사: 게재면과 출판 연월일을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기간행물과 동일하다.

Mayer, C.E.(2005, January 7). Group takes aim at junk-food marketing. *The Washington Post*, pp. E2, E3.

⑨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

National wage data.(2004, April 20). Bureau of Labor Satistics. Retrieved January 19, 2005, from http:// 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

16. 영어논문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논문의 작성 양식은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he 6th edition)에 따른다. 논문 분량은 6,000단어 이내(A4 15쪽 내외)로 하며, 초록은 120-15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 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 즉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2장 연구윤리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1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 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4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15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6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조사방해、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제18조(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19조(표절)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21조(연구자료의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인사 2인 이상과 편집위원 4인 이상을 위촉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학술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회는 확정된 학술윤리위원 명단을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학술윤리위원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5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연구윤리 검증

제27조(부정행위 제보) 제보자는 본회에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29조(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① 예비조사는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30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예비조사결과는 피조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제3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1.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34조(변론의 권리 및 이의제기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의를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6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8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술지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3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행해진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회원가입 안내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의 회원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 해당하는 급수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절차

(1)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신청 http://www.kamft.or.kr
(2) 해당급수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입금방법: 성명+생년월일 기재]
(3) 확인 후 회원가입 승인처리

▣ 회원 가입 자격 요건

(1) 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회의 가족.부부.다문화가족.내면아이치료.부모교육상담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준비하며 가입 신청을 한 후 매년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2) 전문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회의 가족.부부.다문화가족.내면아이치료.부모교육상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관리 및 재연수 참여 등 매년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 회비 및 계좌번호

구분	입회비	연회비
준회원	2만원	2만원
2급	2만원	3만원
1급	2만원	4만원
수련감독급	2만원	5만원

※ 신규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회원가입 승인처리가 됩니다.
※ 계좌번호: 국민은행 468001-01-064121 (사)한국가족상담협회

▣ 문의처

사무국: kamft@kamft.or.kr

※ 제공하신 정보는 회원 지원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1. 본인 확인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2.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등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자택 주소, E-mail 주소
3. 회원의 전문성 확인 이용: 학위 관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회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며 삭제요청시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실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하여 주시고 동의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및 활동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